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전 형 진 연구 위원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남 민 지 연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전 형 진	연 구 위 원	연구총괄, 분석/집필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집필
남 민 지	연 구 위 원	자료 수집 및 분석

머 리 말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일부 농산물 품목류는 국내 수급 물량의 일정 부분을 중국산이 충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중국 농업의 영향력이 한층 심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추어 한·중 양국은 FTA 협상 추진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무역이론인 비교우위론에 근거할 때 중국 농업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나라 농업은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농업생산구조가 우리와 유사하여 양국간 농산물 교역은 보완구조의 형성이 쉽지 않아 중국 농산물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출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농업이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간투입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고생산비 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중국의 농산물 수출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중 FTA 협상 추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국의 농업구조 변화가 미치는 대내외적인 파급영향에 착안하여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한·중 농산물 교역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중국 농업구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중 FTA의 농업분야 협상 전략 수립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요 약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래 중국 농업의 성장 과정과 구조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의 변화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넓은 국토면적과 다양한 기후·토양·지형 조건 그리고 지역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해 농업생산의 지역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중국을 단일 지역으로 통합하면 자연지리조건, 자원부존조건, 사회경제조건이 상이한 다양한 지역들이 동질화되고 지역간 차이도 평균화되어 자칫 중국 농업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중국 농업구조의 변화가 우리 농업에 주는 함의를 보다 실제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구조의 차별성과 분화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생산구조는 재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재배업은 토지집약적인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집약적인 원예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6대 농업지역에서도 이러한 변화 추세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지만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부상한 동북3성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식량작물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이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95%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동북3성은 앞으로 식량산업 특화지역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재배업 작부체계에서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작물의 비중이 60% 이상(남부연해지역은 2009년 44%)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도 동북아지역 재배업 작부구조의 특성이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식량작물의 비중 감소 추세가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증산정책으로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향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과정에서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향후 농업구조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에서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지제도에 기인한다.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는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농민들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용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를 전망할 때 중국 정치경제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시장경제의 일반법칙이 예외 없이 관철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우리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패턴을 보면 중국 농업이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으로 변화하여 향후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농업노동임금과 토지용역비가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중국 농산물이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연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경우 농업구조의 변화패턴이 선진국이 경험한 표준패턴과 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경제사회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일반법칙이 예외 없이 관철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 구조 변화의 방향을 잘못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제도 및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협

력, 위생검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당국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중국 농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농업은 우리나라 농업과 비교하여 요소생산성의 변화와 요소 대체 관계 그리고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방향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양국 농업은 자원부존 조건과 성장단계상의 차이로 인해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한·중 농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압도적이고 보완구조의 형성도 어렵다. 중국의 비교우위에 의한 일방무역구조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농업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양국의 농업성장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원료 및 기초 농산물 또는 노동 및 토지집약형 농식품 수출에 특화하고, 우리나라는 가공농식품이나 기술 및 자본집약형 농식품 수출에 특화하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식량작물의 교역액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채소류와 가공농산품의 교역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 국내 수급 상황이 양국간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역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신선 과채류, 신선 과일류 및 신선 육류는 양국의 동식물검역 조치가 양국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고, 양자간 검역협상의 관례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양국의 검역조치가 단기간에 해제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가공농산품류와 채소류 위주의 품목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 of Chinese Agriculture for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hows a clear one-way trade from China to Korea and consists mainly of inter-industry trade. The products available to intra-industry trade are rare with the exception of several processed foods. This overwhelmingly unbalanced trade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for the two countries to avoid severe competition and build a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agricultural sector, and is not expected to change in the near futu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the share of grain in their bilateral agricultural trade has decreased, but the shares of vegetables and processed foods have increased. The pattern will set in because grain trade is quite restrictive to the supply and demand in the Chinese domestic market and most of fruits, vegetables, and livestock products trade are not allowed to trade because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barriers, which is not expected to be completely removed in the near future.

The implications from our analyses on relevant issues in the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nese agriculture is now on the stage of labor productivity-led growth and changes its production structure to the one relying on intermediate inputs gradually. Hence, the rises of input prices including agricultural wage and land rent are likely to threate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Chinese agricultural export.

Second, China is a young market economy and the economy is not yet sophisticated enough due to the government's frequent interventionist economic policies. Most of all, China still clings to the socialist system in

politics. Thus, resource allocation in Chinese agricultural sector would be distorted by other factors rather than market principles. In this case, the prospect that the structural change in Chinese agriculture will follow a stylized path, through which developed countries already passed, will lead to a mistaken prediction of its change and then fail to properly act in the light of Korean agricultural sector.

Third, the two countries have a similar production structure and a development course of agriculture, but also have distinctive resource endowments and growth stages, which led to the current overwhelming one-way trade that is expected to leave not much room for a complementary relation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constructive cooperation plans between the trading partners towards co-prosperity under a more liberalized trade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ation system reflecting their comparative advanta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Researchers: Hyoung-Jin Jeon, Myong-Keun Eor and Min-JI Nam
E-mail address: hjchon@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선행연구 검토 3
4.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중국 농업의 성장과 위상 변화

1. 경제성장과 농업의 비중 변화 11
2. 농업 생산성의 변화 16
3. 농업 성장경로 분석 23

제3장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

1. 농업 투입 및 산출의 변화 29
2.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39
3. 농업경영구조의 변화 47

제4장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요인

1. 가격 및 수익성 요인 67
2. 소비 요인 71
3. 정책 요인 72

제5장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

1. 중국의 농산물 교역 75
2.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93
3.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117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27
2. 결론	138
참고 문헌	141

표 차례

제1장

- 표 1- 1. 본 연구의 농산물 품목류 분류표 10

제2장

- 표 2- 1. 중국의 농업지역간 요소생산성 및 요소투입비율 비교 18
 표 2- 2.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지수 비교(1978~2009년) ... 23

제3장

- 표 3- 1.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총생산액 중 재배업과 축산업 비중 변화 41
 표 3- 2. 중국의 농촌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률 규정 비교 54
 표 3- 3. 중국의 농촌 토지사용권의 유동에 관한 법률 규정 57
 표 3- 4. 중국 ‘농업산업화’의 6가지 특징 60
 표 3- 5. 중국의 주요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 내용 61
 표 3- 6. 중국의 ‘농업산업화경영’ 조직 발전 추이 65

제4장

- 표 4- 1. 중국의 도시 및 농촌 주민 1인당 식품소비량 변화 추이 71

제5장

- 표 5- 1. 중국의 농산물 교역액 변화 추이 76
 표 5- 2.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 상위 11개국의 수출액과 비중 변화 추이 ... 78
 표 5- 3. 중국의 농산물 수출대상국 집중도 변화 추이 79
 표 5- 4.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 상위 12개국의 수입액과 비중 변화 ... 80
 표 5- 5. 중국의 농산물 수입대상국 집중도 변화 추이 81
 표 5- 6.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 상위 10개 성·직할시 82
 표 5- 7.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 상위 10개 성·직할시 83
 표 5- 8. 중국내 지역별 농산물 수입액 집중도 변화 추이 83

표 5- 9.	중국의 농산물 수출기업 유형별 수출입액 및 비중 변화 추이	84
표 5-10.	중국의 HS 01류~24류(HS 03류 제외) 수출액 변화 추이	87
표 5-11.	중국의 HS 01류~24류(HS 03류 제외) 수입액 변화 추이	91
표 5-12.	대중국 주요 수입농산물 수입액 및 비중	95
표 5-13.	대중국 주요 수출농산물 수출액 및 비중	98
표 5-14.	대중국 식량작물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103
표 5-15.	대중국 채소류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106
표 5-16.	대중국 과실류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110
표 5-17.	대중국 축산물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113
표 5-18.	대중국 가공농산물 수출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115

그림 차례

제1장

- 그림 1- 1. 본 연구의 중국 농업지역 구분도 9

제2장

- 그림 2- 1.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12
 그림 2- 2. 중국의 농업지역별 산업구조 변화 추이 14
 그림 2- 3.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투입지수 변화 추이 17
 그림 2- 4. 중국 농업의 총요소생산성(TFP) 변화 추이 22
 그림 2- 5. 중국 농업의 기술효율성 및 총요소생산성 변화율 추이 ... 22
 그림 2- 6. 중국 농업의 성장경로 24
 그림 2- 7.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성장경로(1980~2009년) 26

제3장

- 그림 3- 1. 중국의 농업지역별 토지 투입 비중 비교(2008년) 30
 그림 3- 2. 중국 농업의 토지 및 노동 투입 변화 31
 그림 3- 3.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림어업취업자수 비중 변화 31
 그림 3- 4. 중국 농업의 경상재 및 자본재 투입 변화 33
 그림 3- 5. 중국의 농업지역별 화학비료 시비량 비중 변화 34
 그림 3- 6.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기계총동력 비중 변화 34
 그림 3- 7.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가당 생산성 고정자산 규모 35
 그림 3- 8. 중국의 농림어업부가가치 성장 추이 36
 그림 3- 9. 중국의 농림어업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 추이 37
 그림 3-10.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총생산액 비중 변화 38
 그림 3-11. 중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변화 ... 39
 그림 3-12. 중국의 농업총생산액 구성비 변화 40

그림 3-13.	중국의 농업총생산액 품목별 구성비(2009년)	41
그림 3-14.	중국의 농작물 재배업 작부구조 변화 추이	42
그림 3-15.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작물 재배업 작부구조 변화 추이 ..	43
그림 3-16.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구조 변화 추이	45
그림 3-17.	중국의 농업지역별 식량작물 작부구조 변화 추이	46
그림 3-18.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변화와 농업경영시스템 개념도	50

제4장

그림 4- 1.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가격지수 변화 추이 ...	68
그림 4- 2.	중국의 주요 농산물 10a당 현금수익 변화 추이	69

제5장

그림 5- 1.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별 농산물 수출가격지수 변화 추이 ..	86
그림 5- 2.	중국의 HS 01류~24류 중 주요 품목군의 수출액 비중 변화 추이 ..	88
그림 5- 3.	중국의 HS 01류~24류 중 주요 품목군의 수입액 비중 변화 추이 ..	92
그림 5- 4.	농산물 품목류별 대중국 수입액 및 비중 변화 추이	94
그림 5- 5.	농산물 품목류별 대중국 수출액 변화 추이	97
그림 5- 6.	식량작물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입액 변화 추이	100
그림 5- 7.	대중국 채소류 주요 품목별 수입액 변화 추이	107

1. 연구의 필요성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 규모는 9.8억 달러에서 2009년 20.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양국간 농산물 무역규모의 확대는 주로 대중국 수입액 증가에 의한 것으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같은 기간 9.6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에 맞추어 한·중 양국은 FTA 협상 추진을 준비 중이다. 2006년 11월 민간 공동연구를 완료한 데 이어 2007년 3월 산·관·학 공동연구에 착수하여 2008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하였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농업분야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로 공동연구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으나 양국 정상간에 FTA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2010년 5월 28일 공동연구를 공식 마무리하고 정부간 공식협상에 앞서 민감품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양국간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분야이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농산물시장 개방의 충격이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한·칠레, 한·미, 한·EU FTA에 비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서론

한·중 FTA 체결은 우리나라 농업의 입장에서 위협(threat)과 기회(opportunity)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한·중 FTA 체결로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농축산물 교역이 가속화될 경우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의 농업은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국내 농산물 수급에서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의존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협상 추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향후 그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농업의 실태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변화기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FTA 협상 전략 마련을 위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은 단계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전환 과정을 겪었으며 2000년대 들어 농업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시 한번 구조조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전환은 중국 경제 자체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 농업 및 경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생산구조 등 농업구조의 일련의 변화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가 한·중 농산물 교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한·중 FTA 협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래 중국 농업의 성장 과정과 구조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의 변화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한·중 FTA 대비 농업분야 연구는 크게 나누어 1)한·중 FTA 체결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추정, 2)농업분야의 산업별 한·중 비교 및 대응방안 모색, 3)중국의 FTA 농업분야 협상사례 분석 및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전략(양허전략) 제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초기에는 주로 파급효과 추정을 통해 한·중 FTA의 파괴력을 가늠하는 데 초점이 있었으나 점차 산업별 또는 품목별로 한·중 비교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양국이 2006년 11월 민간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07년 3월 산·관·학 공동연구에 착수함으로써 한·중 FTA 협상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예상쟁점 및 협상전략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다.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기존 연구들은 파급효과 추정, 민감품목의 선정, 양허전략 수립 등 협상 준비과정에서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업 내부의 구조변화를 포착하여 향후 10~20년 후의 중국 농업의 미래상과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FTA의 농업분야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어명근 외(2009)는 한·미 FTA와 DDA협상, 검역상 수입규제 등 여러 기본가정을 고려하여 양허범위에 따라 1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KASMO-2008 모형을 이용하여 한·중 FTA 체결이 우리나라 농업생산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추정하고 품목군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2021년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은 2,420억~2조3,58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중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양허대상 품목의 제외범위이며, 검역상 수입규제조치의 해제 여부도 피해액의 규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 협상 추진이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 한·EU

FTA의 비준 여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한·중 FTA의 농업분야 파급효과를 새롭게 계측하고,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시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어명근 외, 2010).

김경필 외(2006)는 현재 식물방역법상 중국산 신선과일류는 수입이 불가하지만 검역이 해제될 경우의 수입가능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사과, 배, 감귤은 수입이 증가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구조조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이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취급받도록 하고 동시에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윤식(2007)은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중국의 과수산업 실태를 파악한 결과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과실이 중국 정부의 지역특산물 육성정책 등으로 과거에 비해 품질과 맛이 많이 향상되었고 가격경쟁력도 여전히 높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중국산 과실의 수입가능성과 관련하여 중국이 사과와 배, 포도 등의 과실파리(fruit fly) 유병지역이므로 단기간 내에 해충위험분석(PRA)을 거쳐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였다.

어명근 외(2008a)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비교, 중·ASEAN 및 중·칠레 FTA의 농산물 품목별 양허사례를 분석한 데 기초하여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사과 등 35개 실품목(HS-10단위 309개 품목; HS-10단위 전체 1,452개 품목의 17.8%)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고, 양허전략을 제시하였다.

어명근 외(2008b)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양국간 공동연구 결과와 농업분야의 예상쟁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협상 논리를 도출하고 양국간 농업분야의 현안에 대한 향후 전망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원산지규정, 동식물검역, 긴급수입제한조치(SG)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예상쟁점을 검토하고, 산업내무역 가능성과 중국의 곡물류 수출규제를 한·중 FTA와 관련한 농업분야 현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분야의 대응방안으로 민감품목 특별취급과 대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 양국간 농업협력 강

화를 제시하였다.

김승규(2009)는 한·중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곡물류,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대응방안과 함께 농업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어명근 외(2010)는 중국이 기체결한 중·ASEAN, 중·대만, 중·칠레, 중·뉴질랜드 FTA의 농업분야 협정문을 분석하고 관세양허분야, 원산지규정, 동식물검역 등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조만간 추진될 한·중 FTA 대비 협상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한·중 농산물교역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연구는 주로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주요 수출입 품목의 변화, 관세구조 등 농산물교역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고찰하는 데 집중하였다.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고 한국 농업과 중국 농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역관련 지수(index)를 활용하여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분업 및 경쟁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한 데 기존 연구에서는 어명근 외(2003, 2008), 이창수 외(2005), 박준근(2009)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명근 외(2003)는 한·중·일 3국의 농업구조를 비교 분석한 데 기초하여 3국의 농업이 상호경합적 관계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공존하고 있지만 토지집약적 농산물에 대한 3국의 경쟁력이 낮아 역내 경쟁보다는 상호 농업 협력을 통한 역내 시장 공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명근 외(2008)는 한·중 양국의 농산물 HS-6단위 690개 품목을 대상으로 2004~2006년의 시장비교우위(MCA)지수를 계측하고 수평적·수직적 분업이 어려워 양국간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연구는 MCA 지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농업생산액에서 비중이 높은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시 양허 예외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준근(2009)은 중국의 농업 현황, 농산물 수출정책 및 교역현황을 개괄하고 농산물 134개 품목을 대상으로 표준화 경쟁력지수(SCI)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중국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품목이 77%로 한·중 경쟁력 격차가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고급 차별화전략, 정부 주도의 민관 동맹 진출, 법적·제도적 장벽 해소, 첨단하이테크 기술 접목으로 고품질화, 조선족을 비롯한 한상(韓商) 네트워크 활용, 친환경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개혁개방 초기 농지제도의 변화를 매개로 한 농업경영구조의 변화와 시장화개혁을 핵심 내용으로 한 농산물유통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식량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구조조정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반의 구조변화 추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중국 농업 내부의 구조변화가 중국의 농산물교역 및 한·중 농산물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착안하여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를 심층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국의 농산물교역을 전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중 개혁개방 초기의 농가토지도급제 도입에 이은 제2차 농업경영시스템의 개혁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농업 산업화 경영’의 발전 과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 연구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일영(2007), 전형진 외(2009, 2010)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농산물수급 상황은 세계적인 관심사항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OECD, FAO 등 세계기구도 세계 최대의 식량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을 상시 예측 전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OECD,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USDA/ERS, WASDE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과 전망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국농업 전망모형 구축 작업의 첫 단계로 어명근 외(2005, 2006) 연구에서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의 ‘중국농업전망모형(CAPSiM)’을 활용하여 중장기(2005~2015년) 수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후속 연구의 단절로 아

직까지 중국 농업에 대한 독자적인 관측과 전망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정길 외(2003a)는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국내 소비시장은 물론 제3의 수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과 중국산 농산물 간 경합이 이루어지고 국내 농가의 생산감소와 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최근 농정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농업의 생존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 투입과 생산효율, 농업생산구조, 농산물 소비구조, 농산물 교역구조 등 4가지 측면에서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에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어명근 외(2005, 2006)는 중국의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수급동향과 변화 요인을 고찰하고,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가 운용하는 CAPSiM 중국농업전망모형을 이용하여 품목별로 2005~2015년 중장기 수급상황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전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일영(2007)은 중국의 개혁개방시기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시스템의 개혁을 구소련과 비교 분석하고, 농업경영에서 ‘쌍층경영’의 형성과 분화과정을 북경시 근교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단계를 통합하여 계열화한 ‘기업+농가’ 또는 ‘기업+중간상인+농가’ 유형의 농산물유통시스템의 변화를 산동성지역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전형진 외(2008)는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는 경우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지역들이 동질화되고 지역간 차이가 평균화되어 현실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농업구조를 고려하여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변동에 고찰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국의 주산지 정책을 개괄하고 4대 식량작물(쌀·밀·옥수수·대두)과 과실류(사과·배), 채소류(고추·마늘·양파·당근)의 주산지 구조 변동을 자연지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전형진 외(2009), 전형진 외(2010)는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업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통합하는 계열화를 핵심으로 하는 농업산업화 정책을 소개하고, 중국 농촌의 ‘기업+농가’ 또는 ‘기업+생산기지+농가’ 유형의 생산경영시스템의 변화를 각각 동북3성의 쌀산업과 산동성의 친환경농식품산업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중국 농업의 성장과 위상변화에서는 중국 농업의 현주소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업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하고, 중국 농업의 생산성 변화와 성장경로의 특징을 살펴본다.

제3장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에서는 농업 투입 및 산출의 변화,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그리고 농업경영구조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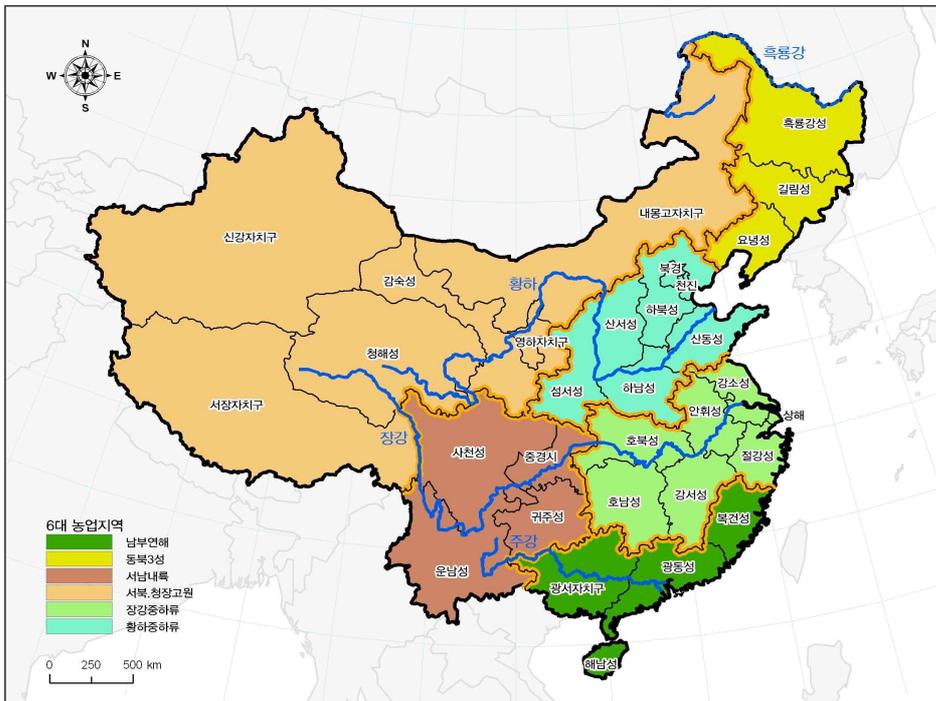
제4장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요인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 요인을 농업생산요소 가격, 농산물 가격, 농산물 소비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5장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는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농산물 교역구조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식량작물,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기타가공농산품 등 품목류별로 향후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넓은 국토면적과 다양한 기후·토양·지형 조건으로 인해 농업생산조건의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을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농업 성장 및 구조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농업지역 구분은 먼저 자연지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업생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을 동부, 서북, 청장고원으로 구분하고, 동부지역을 다시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4대 자연지리지역 구분법을 차용하여 북

부, 남부, 서부(서북 및 청장고원)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3개 지역 내부적으로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특성의 자연지리조건과 과거 6대 행정구역체계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전국을 동북3성(東北三省), 황하중하류(黃河中下游), 장강중하류(長江中下游), 남부연해(南部沿海), 서남내륙(西南內陸), 서북·청장고원(西北·靑藏高原) 등 6개 농업지역으로 세분하였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본 연구의 중국 농업지역 구분도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이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범위를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의 분류 방법을 참조하여 수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축산물로 한정하였다. 농수산물무역정보의 무역통계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AG코드 63개 품목류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570개 실품목으로 세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AG코드 63개 품목류를 임의로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기타가공농산물, 축산물 등 5개 품목류로 재분류하였다. 각각의 품목류가 포괄하는 범위는 <표 1-1>와 같다.

표 1-1. 본 연구의 농산물 품목류 분류표

품목류	세부 품목류
식량작물(26)	곡류(12), 서류(4), 두류(10)
채소류(48)	-
과실류(39)	-
기타가공농산물(343)	채유종실(15), 기타곡실류(28), 화훼류(23), 버섯류(5), 기타 산식물(3), 커피류(2), 코코야류(6), 차류(2), 연초류(11), 인삼류(12), 한약재(24), 잡사류(10) 전분(7), 식물성유지(24), 유지가공품(5), 농산물 납류(4), 식물성액즙(13), 박류(20), 사료(9), 기타 식물성 물질(3), 기타농산부산물(6), 빵류제조용(2), 효모류(8), 소스류(11), 향신료(6), 지방성물질(3), 기타식물성재료(3), 주류(23), 당류(10), 음료(6), 과자류(8), 면류(9), 기타조제 농산물(17), 식물성섬유(5)
축산물(114)	산동물(32): 포유가축류(14), 가금류(3), 기타포유류(4), 기타조류(2), 파충류(4), 양서류(1), 곤충류(2), 환형동물(1), 기타 산동물(1) 육류(21): 포유가축육류(9), 가금육류(4), 양서류육류(1), 기타 육류(7) 난류(3), 낙농품(12) 기타축산물(46): 동물성 유지(9), 동물성 납(1), 꿀류(4), 한약재(4), 기타 축산물 부산물(11), 단백질류(4), 모·수모류(8), 원피(4), 생모피(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AG코드 실품목 수를 나타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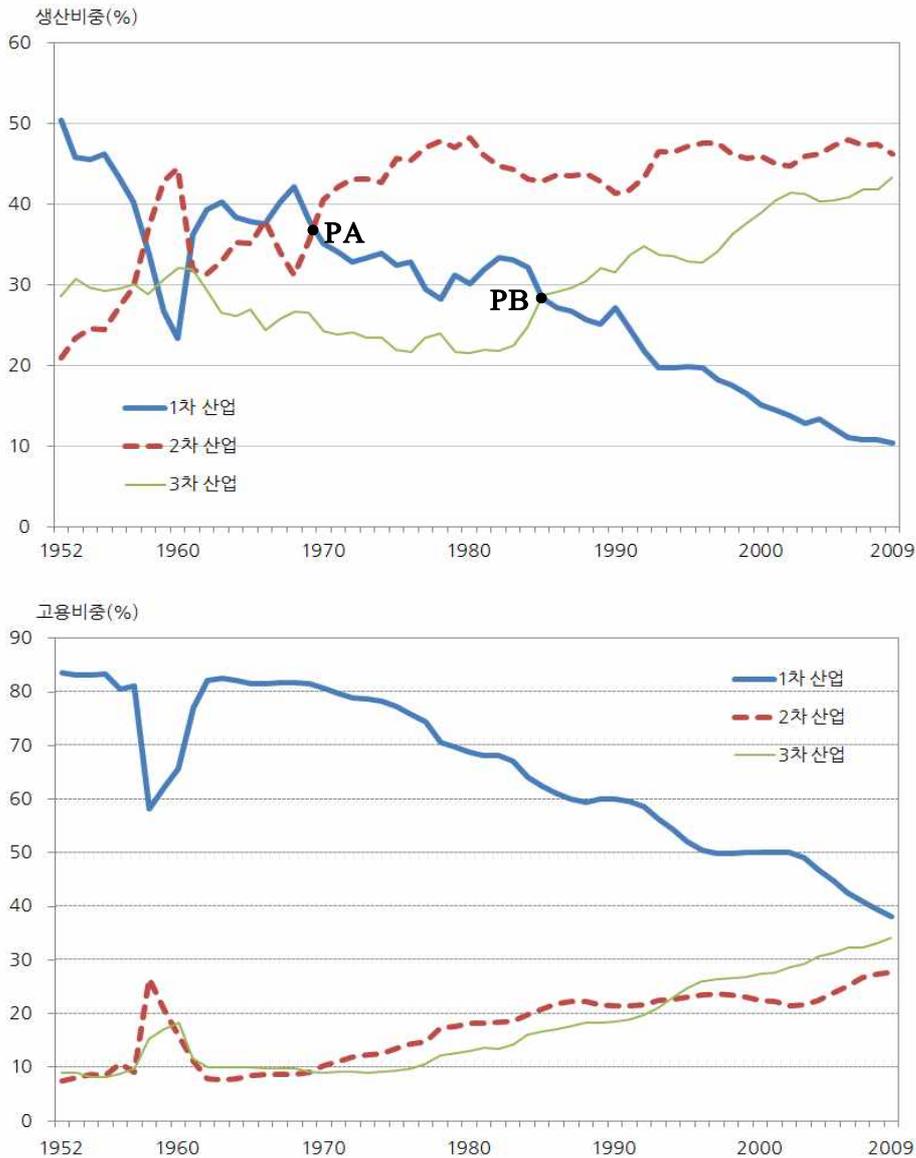
1. 경제성장과 농업의 비중 변화

한 국가에서 특정 산업의 위상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생산구조의 변화, 즉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의 변화와 고용구조의 변화, 즉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의 변화(고용구조의 변화) 두 측면에서 고찰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다수의 실증연구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이 생산과 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먼저 생산구조 변화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에서 1차 산업(농림어업)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1963년 33.9%에서 2009년 10.6%로 감소하였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산업은 1965년(변환점PA)과 1973년(변환점PB)에 각각 2차 산업과 3차 산업보다 생산 비중이 낮아져 중국 경제에서 생산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이 되었다. 이러한 생산구조 변화의 결과는 중국에서도 경제성장의 일반법칙이 예외 없이 관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계획경제시기에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2차 산업에 자원 배분을 집중시킨 결과 2차 산업의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구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선진국이 경험한 산업구조 변화의 표준패턴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중국 농업의 성장과 위상 변화

그림 2-1.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다음으로 고용구조 변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전체 취업자 수에서 1차 산업(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3년 67.1%에서 2009년 38.1%로 감

소하였다.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고용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생산구조의 전환과 고용구조의 전환 사이에 시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구조의 변환은 생산구조의 변환과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의 경우 그 시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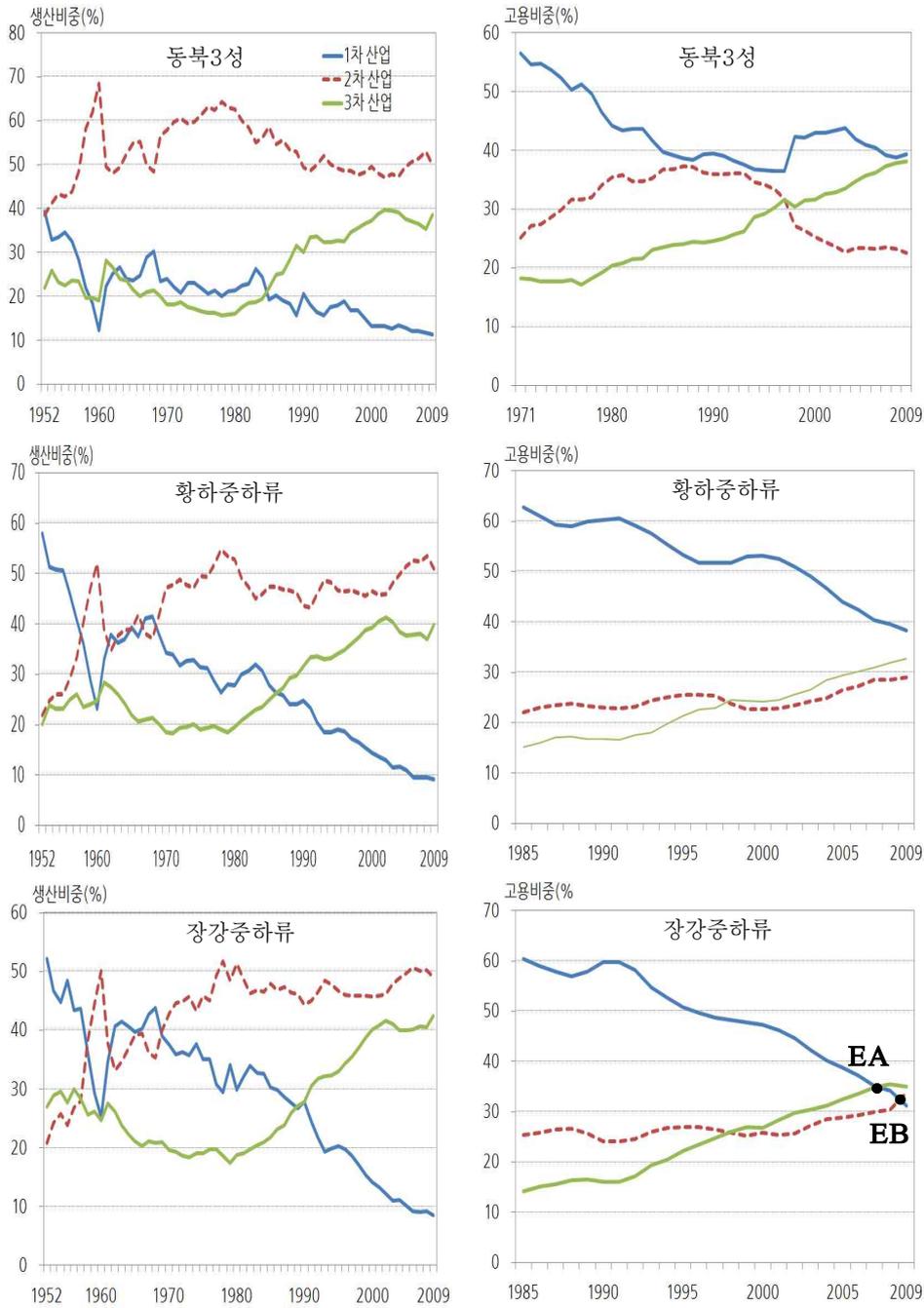
중국의 농림어업은 2009년도 생산 및 고용 비중이 각각 10.6%와 38.1%로 생산구조 측면에서는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이지만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아 여전히 농업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생산구조의 변환점 PA, PB에서 농업의 비중은 각각 35.2%와 28.4%로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고용구조에서는 아직도 변환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생산구조 변환과 고용구조 변환의 시간 격차가 현저한 고용구조의 비전형화(非典型化) 현상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서는 흔히 도시와 농촌으로 이분화된 중국의 호적(戶口)제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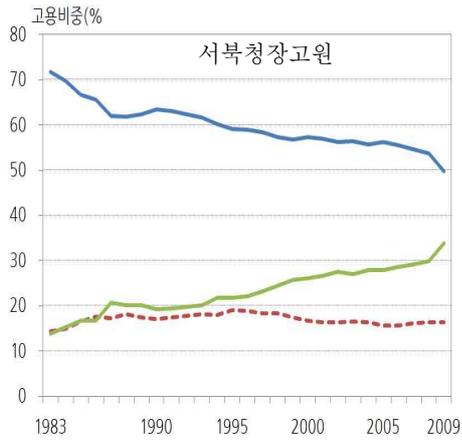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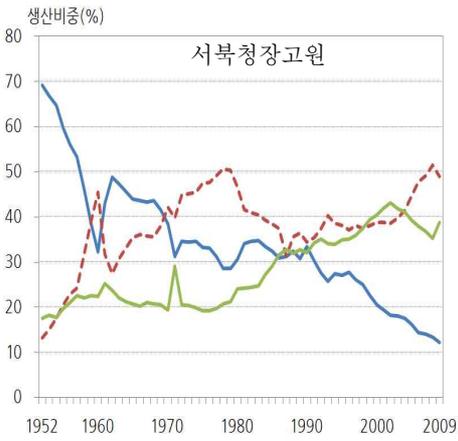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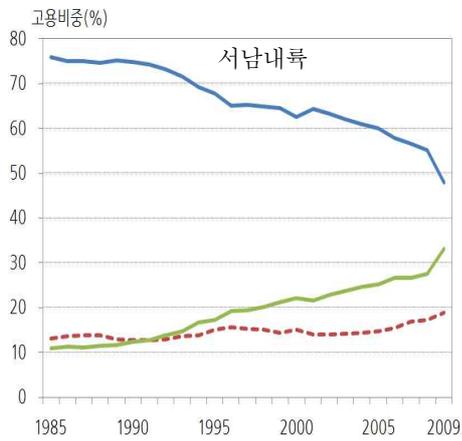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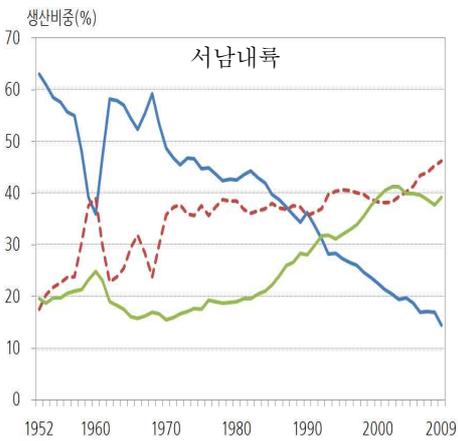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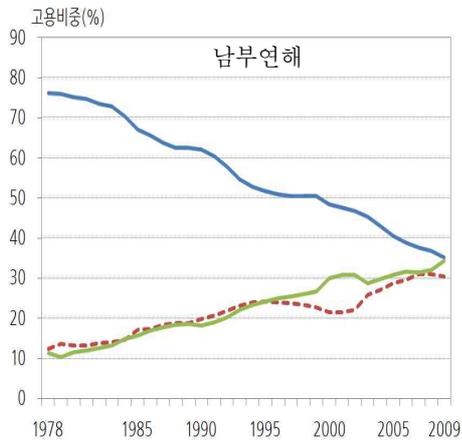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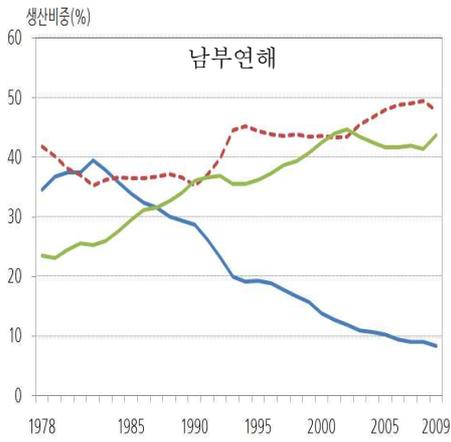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기후·토양·지형이 다양하게 분포하여 농업생산조건의 지역간 차이가 크다. 또한 지역별로 사회경제조건도 상이하여 농업성장의 지역간 격차도 비교적 뚜렷하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게 되면 자연지리조건, 자원부존조건, 사회경제조건이 상이한 다양한 지역들이 동질화되고 지역간 차이도 평균화되어 자칫 중국의 농업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조건을 고려하여 중국을 6개 농업지역(동북3성,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칭장고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산업구조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농업 성장의 지역간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1 중국이 1958년 제정한 ‘호구등록조례(戶口登記條例)’는 농민들의 도시 유입과 도시 간 인구유동을 제한하였음.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을 분리한 중국의 호적관리제도는 ‘이중경제구조’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14 중국 농업의 성장과 위상 변화

그림 2-2. 중국의 농업지역별 산업구조 변화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 「2010國家統計年鑒」;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개혁개방 이후 6대 농업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에서도 고용구조의 비전형화(非典型化)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간 경제성장 및 농업성장 격차로 인해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양상은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농업지역 가운데 GDP 점유율이 31.8%로 중국에서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인 장강중하류지역은 고용구조상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변환점 EA, EB가 출현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광동성이 위치한 남부연해지역도 변환점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6개 농업지역 가운데 중국의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부상한 동북3성은 고용구조상 1990년대 후반 이후 농림어업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고용구조의 비전형화(非典型化)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 농업 생산성의 변화

2.1. 요소생산성과 요소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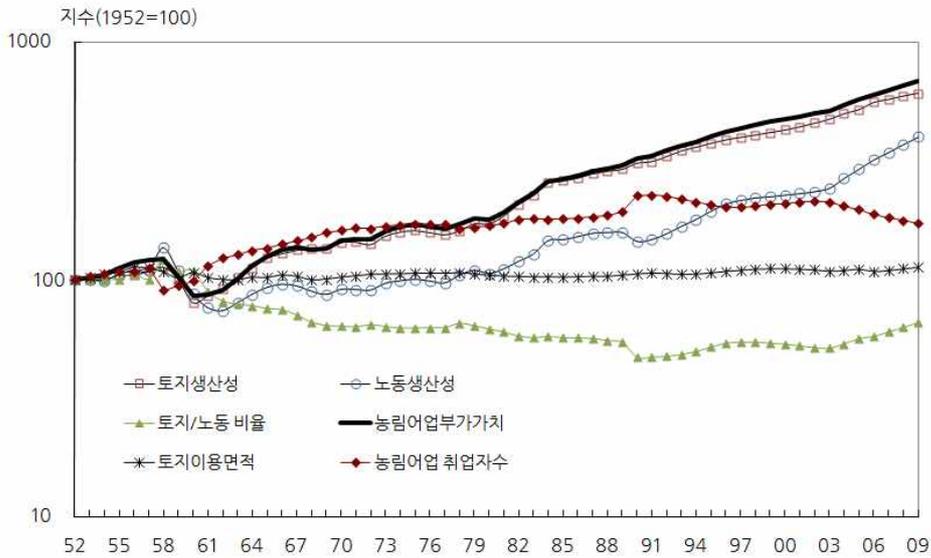
1952~2009년 동안 중국 농업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2.5%, 3.2% 증가하였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농업의 성장에 토지생산성 향상이 좀더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만 보면 1980~2009년 동안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모두 크게 증가한 가운데 노동생산성의 증가 속도(연평균 6.0%)가 토지생산성의 증가 속도(연평균 5.8%)를 추월하였다. 중국도 점차 노동생산성이 농업 성장을 견인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요소생산성간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신중국 성립 이후 줄곧 토지생산성이 노동생산성보다 높았고 그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2006년 이후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이다.

중국 농업의 토지/노동 비율은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말까지 감소했지만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V’자형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농업노동력이 빠른 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지이용면적당 비료와 농약의 투입비율은 1980~2009년 동안 모두 연평균 5.8% 증가하였다. 화학비료의 단위면적당 투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기계의 투입증가로 기계/노동 비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6.5%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전에는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투입 비율의 증가 속도가 농기계/노동 비율의 증가 속도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농업노동력 감소로 이러한 추세는 역전되었다.

그림 2-3.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투입지수 변화 추이



자료: 農業部, 「2010中國農業發展報告」

6대 농업지역별 2009년도 농업 노동생산성은 동북3성(20,525.4위안)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장강중하류(15,488.9위안), 남부연해(15,080.3위안), 황하중하류(13,706.6위안), 서북·청장고원(12,824.3위안), 서남내륙(8,040.4위안) 순이다. 1980년과 비교하여 지역별 순위에는 변화가 없다.

표 2-1. 중국의 농업지역간 요소생산성 및 요소투입비율 비교

		요소생산성		요소투입비율		
		노동 (위안/인)	토지 (위안/ha)	CA/L (ha/인)	F/CA (kg/ha)	M/L (Kw/인)
1980년	동북3성	4,419.1	3,791.3	1.17	75.9	1.15
	황하중하류	1,975.7	4,142.6	0.48	93.2	0.61
	장강중하류	2,432.6	5,488.9	0.44	100.4	0.44
	남부연해	2,442.1	6,660.4	0.37	119.9	0.34
	서남내륙	1,859.9	5,588.0	0.33	83.1	0.20
	서북·칭장고원	2,307.6	3,079.9	0.75	52.8	0.70
2009년	동북3성	20,525.4	19,353.2	1.06	239.8	3.79
	황하중하류	13,706.6	25,603.8	0.54	412.2	4.57
	장강중하류	15,488.9	26,565.3	0.58	363.8	3.20
	남부연해	15,080.3	44,628.3	0.34	470.1	1.59
	서남내륙	8,040.4	19,158.9	0.42	249.7	1.35
	서북·칭장고원	12,824.3	15,154.1	0.85	261.3	3.71
연평균 증가율(%)						
1980 -2009년	동북3성	5.4	5.8	-0.3	4.0	4.2
	황하중하류	6.9	6.5	0.4	5.3	7.2
	장강중하류	6.6	5.6	1.0	4.5	7.1
	남부연해	6.5	6.8	-0.3	4.8	5.5
	서남내륙	5.2	4.3	0.8	3.9	6.9
	서북·칭장고원	6.1	5.6	0.4	5.7	5.9
1980 -1989년	동북3성	2.3	5.0	-2.5	6.3	3.8
	황하중하류	6.0	6.8	-0.8	6.9	7.0
	장강중하류	5.9	6.2	-0.3	7.1	6.8
	남부연해	6.0	7.5	-1.4	8.5	7.5
	서남내륙	3.6	5.1	-1.5	4.9	5.0
	서북·칭장고원	5.8	7.8	-1.9	6.0	4.5
1990 -1999년	동북3성	6.0	7.0	-0.9	3.2	1.9
	황하중하류	8.2	7.1	1.1	4.8	8.6
	장강중하류	7.7	6.4	1.2	3.9	5.8
	남부연해	7.6	6.6	1.0	1.5	4.4
	서남내륙	4.6	2.7	1.9	2.5	6.9
	서북·칭장고원	6.3	3.8	2.4	4.8	6.2
2000 -2009년	동북3성	6.6	5.0	1.5	3.0	7.1
	황하중하류	6.6	4.5	2.0	2.5	6.3
	장강중하류	6.5	3.9	2.5	1.9	8.9
	남부연해	5.0	5.9	-0.8	3.8	4.5
	서남내륙	6.5	4.7	1.7	2.5	8.1
	서북·칭장고원	5.5	3.6	1.9	4.2	6.6

주: CA는 재배면적, L은 제1차 산업 취업자수, F는 화학비료 시비량, M은 농기계총동력
 자료: 國家統計局. 「2010國家統計年鑒」;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중국의 6대 농업지역별 토지생산성을 살펴보면 토지/노동 비율이 낮아 토지밀집형 농업경영을 실시하는 남부연해, 장강중하류, 황하중하류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토지조방형 농업경영을 실시하는 동북3성, 서북·청장고원지역은 낮게 나타났다. 2009년도 ha당 토지생산성은 남부연해지역이 44,628.3위안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장강중하류(26,565.3위안), 황하중하류(25,603.8위안), 동북3성(19,353.2위안), 서남내륙(19,158.9위안), 서북·청장고원(15,154.1위안) 순으로 나타났다. 1980년과 비교하여 서남내륙지역의 토지생산성이 크게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개혁개방 이후 1980~2009년 동안 6대 농업지역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남부연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토지생산성 증가율은 남부연해, 황하중하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동북3성과 남부연해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토지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단, 동북3성과 남부연해지역도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증가율 격차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농업 총요소생산성(TFP) 변화

2.2.1. 분석 모형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요소생산성이 갖는 편기성(bias)을 극복할 수 있고, 생산에 투입되는 각종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생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 총요소생산성은 집계(aggregated)된 산출과 투입의 비율, 즉 모든 투입물을 고려한 포괄적인 의미의 평균 생산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총요소생산성이란 총 투입요소의 단위당 산출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산출 및 투입 벡터를 각각 $y = (y_1, y_2, \dots, y_M) \in R_+^M$, $x = (x_1, x_2, \dots, x_N) \in R_+^N$ 로 정의하고, Y 와 X 를 각각 하나의 지수로 집계된 산출물지수와 투입물지수라고 하면 총요소생산

성은 $TFP = Y/X$ 로 나타낸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총산출량의 변화 중에서 요소투입량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의 산출량의 변화, 즉 순산출물(net output)의 변화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농업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계측하기 위해 Malmquist생산성변화지수 모형을 활용하였다. Malmquist 생산성변화지수는 Caves *et al.*(1982)이 Malmquist수량지수와 Shepherd거리함수 개념에 기초하여 개발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계측하는 전문 지수이다.

$x^{k,t} = (x_1^{k,t}, x_2^{k,t}, \dots, x_N^{k,t}) \in R_+^N$ 와 $y^{k,t} = (y_1^{k,t}, y_2^{k,t}, \dots, y_M^{k,t}) \in R_+^M$ 를 각각 투입 및 산출 벡터로 정의하고 $k=1, 2, \dots, K$ 개 DMU와 시간 $t=1, 2, \dots, T$ 을 가정한다. Caves *et al.*(1982)와 Färe *et al.*(1994)의 방법에 따라 CRS 생산기술을 가정하면 투입측면의 Malmquist생산성변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M_i^k(x^{k,t+1}, y^{k,t+1}, x^{k,t}, y^{k,t}) = \frac{D_i^{k,t+1}(x^{k,t+1}, y^{k,t+1})}{D_i^{k,t}(x^{k,t}, y^{k,t})} \times \left[\frac{D_i^{k,t}(x^{k,t+1}, y^{k,t+1})}{D_i^{k,t+1}(x^{k,t+1}, y^{k,t+1})} \times \frac{D_i^{k,t}(x^{k,t}, y^{k,t})}{D_i^{k,t+1}(x^{k,t}, y^{k,t})} \right]^{1/2} = EFFCH_i^k \times TECH_i^k$$

위 식에서 $D_i^{k,t}(x^{k,t}, y^{k,t})$ 와 $D_i^{k,t+1}(x^{k,t+1}, y^{k,t+1})$ 는 각각 t 기 생산기술로 측정된 k DMU의 t 와 $t+1$ 기 관측점의 투입물 거리함수를 나타낸다. $D_i^{k,t+1}(x^{k,t+1}, y^{k,t+1})$ 와 $D_i^{k,t+1}(x^{k,t}, y^{k,t})$ 는 각각 $t+1$ 기 생산기술로 측정된 k DMU의 $t+1$ 와 t 기 관측점의 투입물 거리함수를 나타낸다. $EFFCH_i^k$ 는 기술효율변화지수로 각기의 기술수준하에서 기술효율성의 변화가 총요소생산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두 기간내 상대적인 기술효율의 변화, 즉 추격효과(catching-up effect)를 나타낸다. $TECH_i^k$ 는 기술변화지수로 생산프런티어가 T^t 에서 T^{t+1} 로 변화할 때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두 기간에 기술효율적인 생산프런티어의 이동, 즉 가장 효율적인 생산프런티어의 이동(frontier-shift effect)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Malmquist생산성변화지수 $M_i^k(\cdot)$ 에 포함된 거리함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하나는 비모수적방법으로 선형계획법에 기초한 자료포

락분석(DEA)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DMU의 투입 및 산출에 관한 실제 관측치를 이용하여 생산프런티어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DMU와 생산프런티어곡면 간 거리로 $M_i^k(\cdot)$ 지수 내의 모든 거리함수를 계측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확률적프런티어함수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을 추정 한 후 $M_i^k(\cdot)$ 지수 내의 모든 거리함수를 계측하는 확률적프런티어(SFA)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DEA 방법을 활용하였다.

중국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계측하는 데 필요한 산출지표는 농업 총생산액(2000년 불변가격)을 사용하였다. 투입지표는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토지와 노동의 대리변수로서 각각 농작물 파종면적과 제1차 산업 취업자수를 사용하였다. 자본의 대리변수로는 농기계총동력과 화학비료소비량을 사용하였다. 통계자료는 31개 성·자치구·직할시의 1978~2009년 동안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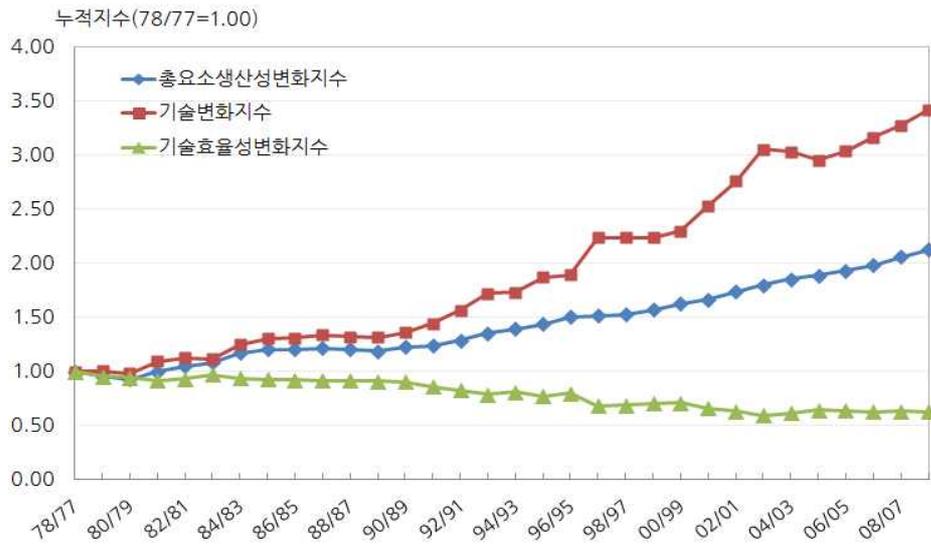
2.2.2. 분석 결과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1년 동안 중국의 농업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2.5% 성장하였다.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까지 연도별 성장률의 변동이 심하였으나 이후 안정된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분해해보면 기술진보가 연평균 4.0% 성장한 반면 기술효율성은 연평균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농업 기술효율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실제 농업산출 수준과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농업산출 수준(생산프런티어)과의 차이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농업 총요소생산성 성장은 생산프런티어의 상향 이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진보에 대한 의존이 뚜렷한 기술유발형 성장 특성을 지닌다.

2 생산과정에서 기술상의 비효율성을 가정하면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기술변화(생산프런티어의 이동)와 기술효율성변화(주어진 기술의 발휘 정도)로 분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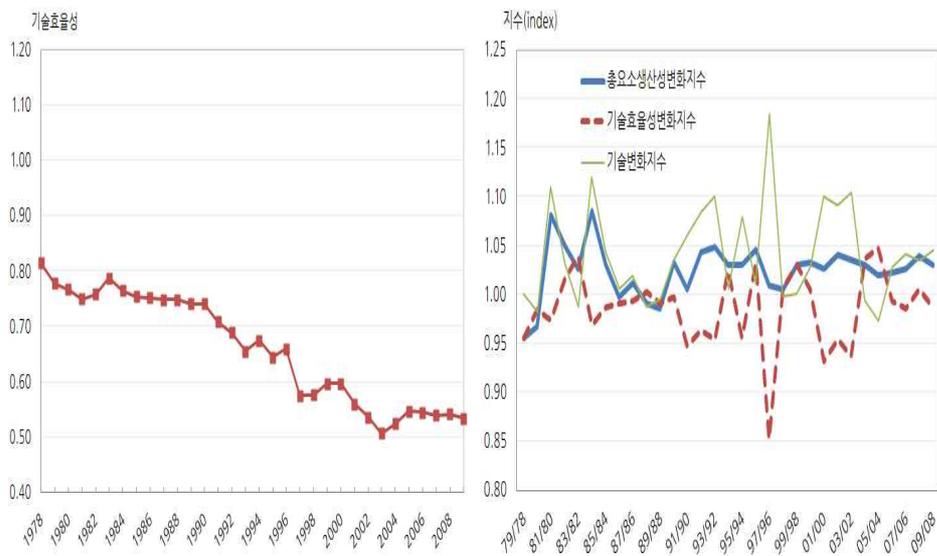
22 중국 농업의 성장과 위상 변화

그림 2-4. 중국 농업의 총요소생산성(TFP) 변화 추이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그림 2-5. 중국 농업의 기술효율성 및 총요소생산성 변화율 추이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표 2-2.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지수 비교(1978~2009년)

구 분	TFPCH	TECH	EFFCH	PECH	SECH
전국 평균	1.025	1.040	0.992	0.992	0.995
동북3성	1.026	1.046	0.980	0.991	0.989
황하중하류	1.037	1.050	0.988	0.997	0.992
장강중하류	1.026	1.043	0.983	0.990	0.993
남부연해	1.033	1.038	0.994	0.998	0.996
서남내륙	0.995	1.024	0.972	0.984	0.987
서북·청장고원	1.018	1.033	0.985	0.992	0.994

주: TFPCH, TECH, EFFCH, PECH, SECH는 각각 총요소생산성지수, 기술진보지수, 기술효율성지수, 순기술효율지수, 규모효율지수를 나타냄.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8~2009년 동안 농업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은 황하중하류, 남부연해, 장강중하류, 동북3성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3.7%, 3.3%, 2.6%, 2.6%로 전국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청장고원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은 1.8%로 전국 평균 성장률에 미달하였고, 서남내륙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은 -0.4%로 부(負)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동부연해지역에 위치한 황하중하류와 남부연해지역의 성장률이 높은 반면 농업산출(농업총생산액) 성장률이 낮은 장강중하류,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은 농업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도 낮게 나타났다. 6대 농업지역 모두 기술진보는 정(正)의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기술효율성은 부(負)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3. 농업 성장경로 분석

농업 성장경로(growth path)는 요소생산성과 요소부존 조건의 변화를 통해 농업의 성장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Yamada & Ruttan(1980)과

Hayami & Ruttan(1985)은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상호관계에 의해 농업 성장경로를 유럽형, 아시아형, 신대륙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Yamada(1987)는 토지생산성과 토지/노동 비율의 상호관계에 의해 아시아형 농업 성장경로로서 ‘S’자형 성장경로를 제시하였다. 두 가지 농업 성장경로는 모두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유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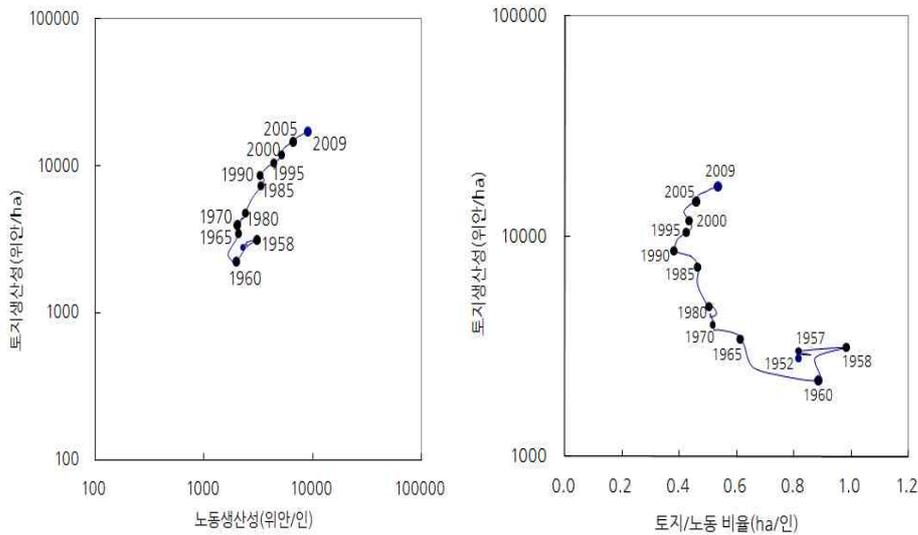
$$\text{노동생산성} \left(\frac{Y}{L} \right) = \text{토지노동비율} \left(\frac{A}{L} \right) \times \text{토지생산성} \left(\frac{Y}{A} \right)$$

단, Y 는 농업산출액, L 은 농업노동력 수, A 는 경지면적(재배면적)

그림 2-6. 중국 농업의 성장경로

(a) Hayami & Ruttan(1985) 성장경로

(b) Yamada(1987) 성장경로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의 농업성장은 노동생산성보다 토지생산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52~1977년 동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0.15%와 1.75%로 노동생산성의 희생하에 토지생산성이 농업성장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모두 크게 성장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1978

~2009년 동안 중국 농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4.43%로 토지생산성 성장률 4.40%를 앞질렀다. 이로써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은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이 동시에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점차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견인하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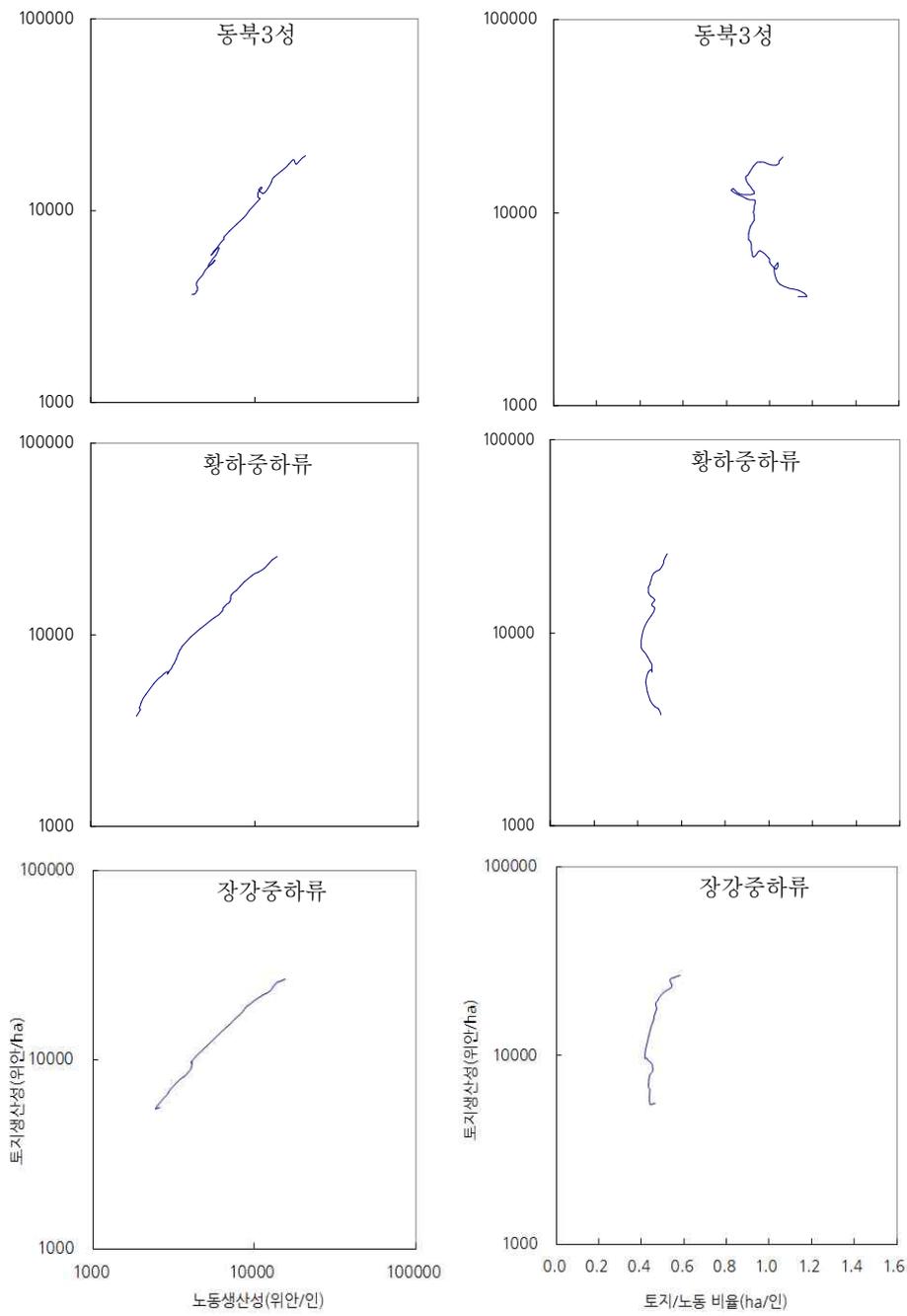
시기적으로 보면 1990년대 초반을 전환점으로 ‘V’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는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까지는 토지생산성 증가율(5.63%)이 노동생산성 증가율(2.77%)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에 힘입어 노동생산성 증가율(5.69%)이 토지생산성 증가율(3.75%) 추월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볼때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농업은 1990년대 초반을 전환점으로 하여 ‘Yamada의 아시아형(‘S’자형) 농업 성장경로’상 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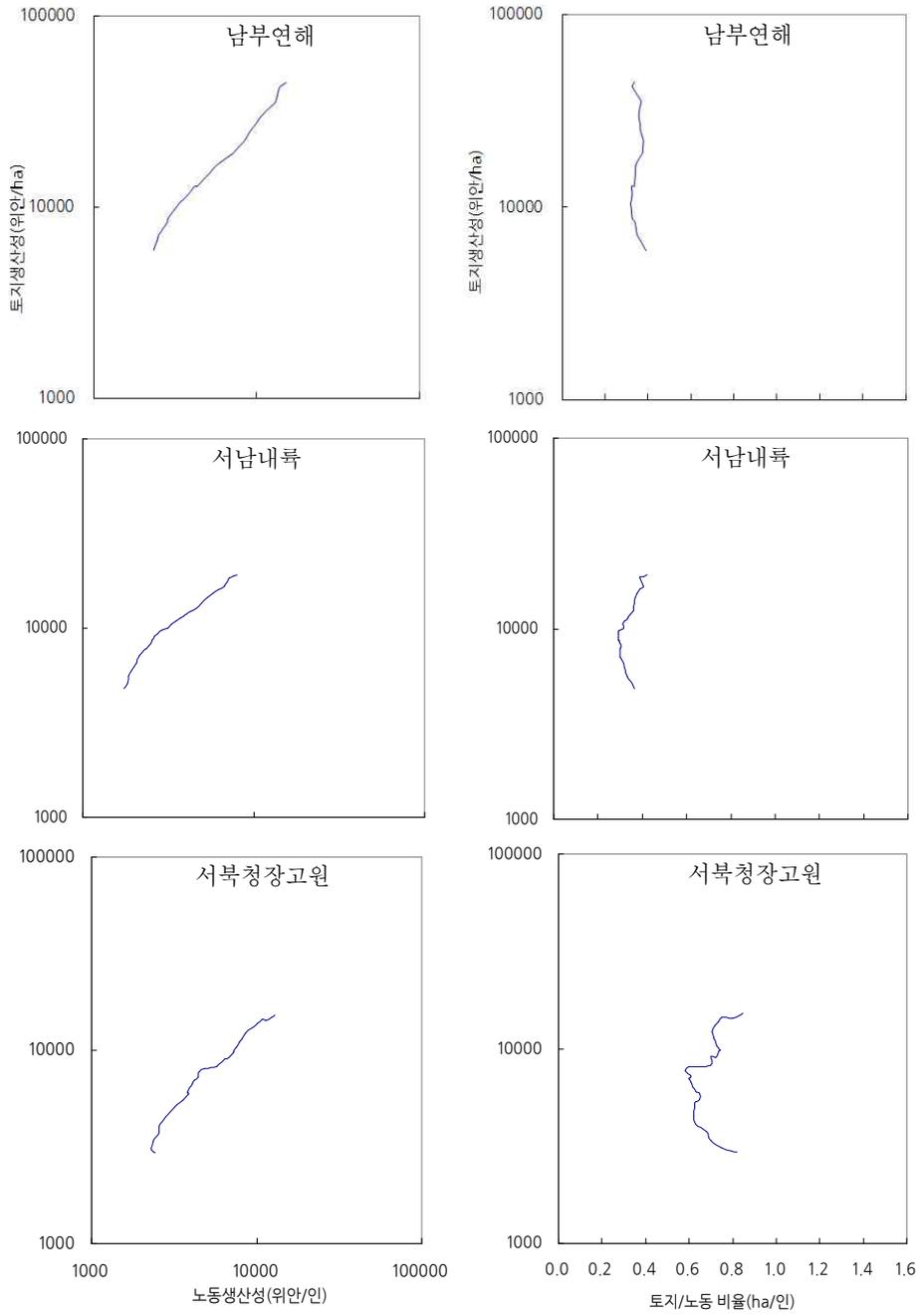
개혁개방 이후 1980~2009년 동안 농업지역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남부연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토지생산성 증가율은 남부연해, 황하중하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동북3성과 남부연해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토지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동북3성과 남부연해지역도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증가율 격차는 매우 미미하다.

시기를 구분해서 보면 6대 농업지역 모두 1980년대까지는 토지생산성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1990년대 이후 6대 농업지역 모두 노동생산성이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지역별로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2000년대 들어 증가속도가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대 농업지역의 토지/노동 비율은 동북3성을 제외하고 1980년 대비 2009년 비율이 증가하였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동북3성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2-7.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성장경로(1980~2009년)





자료: 國家統計局, 「2010國家統計年鑒」;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대 농업지역의 노동생산성 성장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토지/노동 비율이 악화되는 가운데 토지생산성이 성장을 견인하였다.³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토지/노동 비율이 노동생산성 성장에 정(正)의 기여율을 나타내는 동시에 토지생산성도 동시에 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이전에 비해 토지생산성의 노동생산성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감소하였다.

3 노동생산성은 토지/노동 비율과 토지생산성의 곱, 즉 $(Y/L)=(A/L)\times(Y/A)$ 로 분해할 수 있음.

1. 농업 투입 및 산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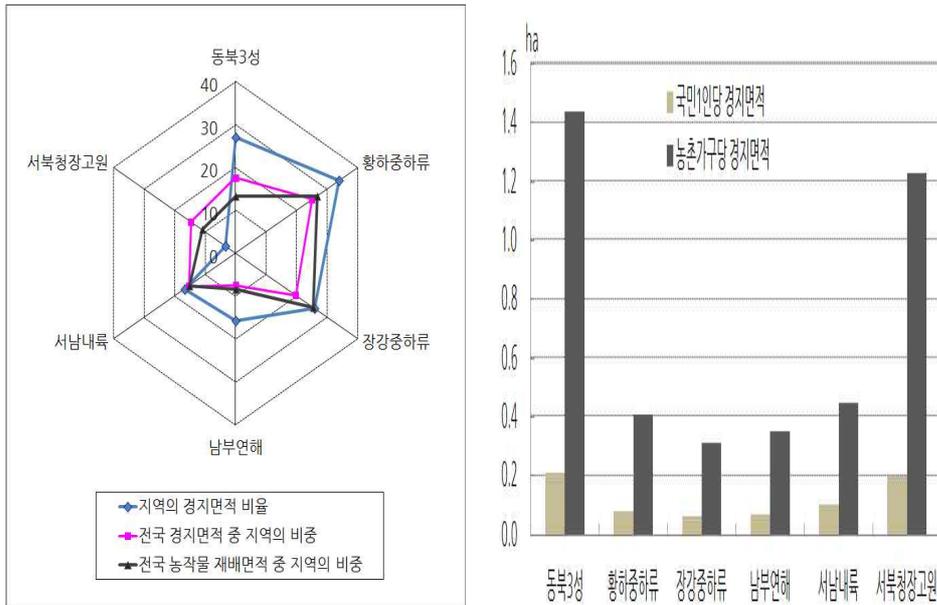
1.1. 생산요소 투입 변화

중국의 경지면적은 1996~2008년 동안 1억 3,004만ha에서 1억 2,172만ha로 감소했다.⁴ 중국의 농경지는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그리고 동북3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3개 지역 내 경지면적 비율은 각각 33.9%, 25.9%, 27.1%로 다른 지역의 약 16%에 비해 높다. 중국 국토면적의 54.5%를 차지하는 서북·청장고원은 지역 내 경지면적 비율이 3.5%에 불과하다. 농작물 파종면적도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가 우위를 점한다.

토지 투입에서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의 상대적 우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토지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동북3성과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이다.

⁴ 중국은 1995년 농업총조사를 계기로 1996년부터 새로운 계열의 경지면적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그림 3-1. 중국의 농업지역별 토지 투입 비중 비교(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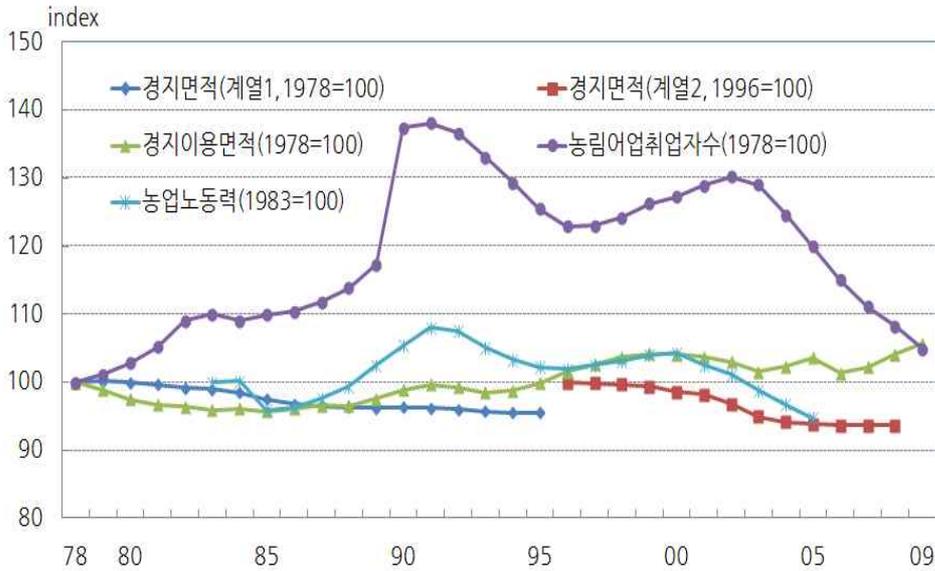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 「2010國家統計年鑒」;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토지 투입 총량과 달리 단위당 투입량은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에 비해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지역이 우위를 점한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에 농경지 면적은 넓어 규모화 영농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8년도 장강중하류와 황하중하류의 1인당 경지면적은 각각 0.06ha, 0.08ha인 반면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은 각각 0.21ha, 0.20ha로 2배 이상 높다. 2008년도 농촌가구당 경지면적도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은 각각 1.44ha와 1.23ha로 황하중하류 0.41ha, 장강중하류 0.31ha, 서남내륙 0.45ha, 남부연해 0.35ha에 비해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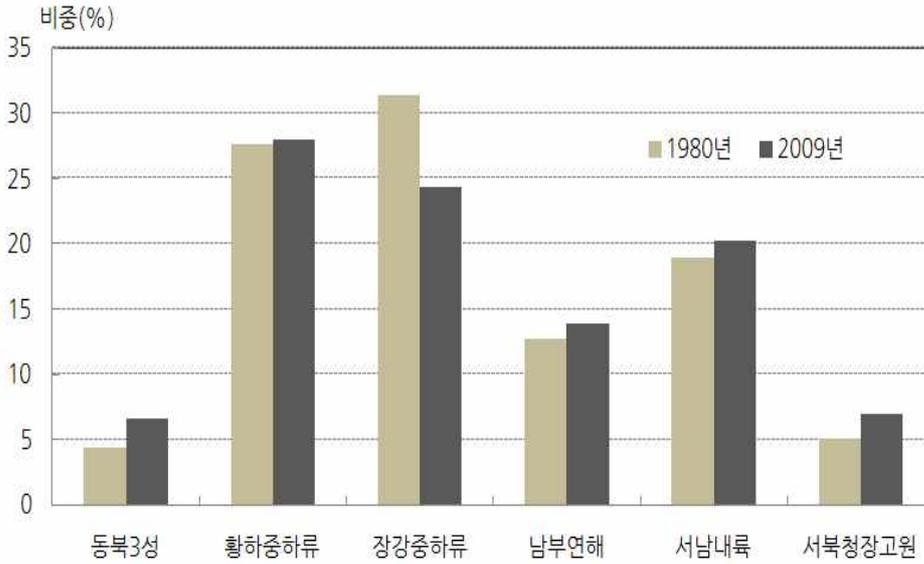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경지면적은 개혁개방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실제 파종면적인 경지이용면적은 1978년 1억 5,010만ha에서 1985년 1억 4,363만ha로 완만하게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09년 1억 5,864만ha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3-2. 중국 농업의 토지 및 노동 투입 변화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그림 3-3.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림어업취업자수 비중 변화



자료: 國家統計局. 「2010國家統計年鑒」;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중국의 농림어업취업자수는 1978년 2억 8,318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 3억 9,098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 투입의 감소 추세가 더욱 뚜렷해져 2009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2억 9,708만 명으로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노동과 토지의 상대적 부존도를 나타내는 농업취업자밀도(ha당 취업자수)도 1978년 1.89명에서 1990년 2.62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는 1.87명으로 감소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노동 투입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농업기술도 점차 노동절약적인 기술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농업기술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화학비료 증투, 농약 사용 등 생물화학적(Bio-Chemical) 기술의 발전에 크게 의존했다면,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노동 투입의 감소 추세가 현저한 가운데 기계공학적인(Mechanical) 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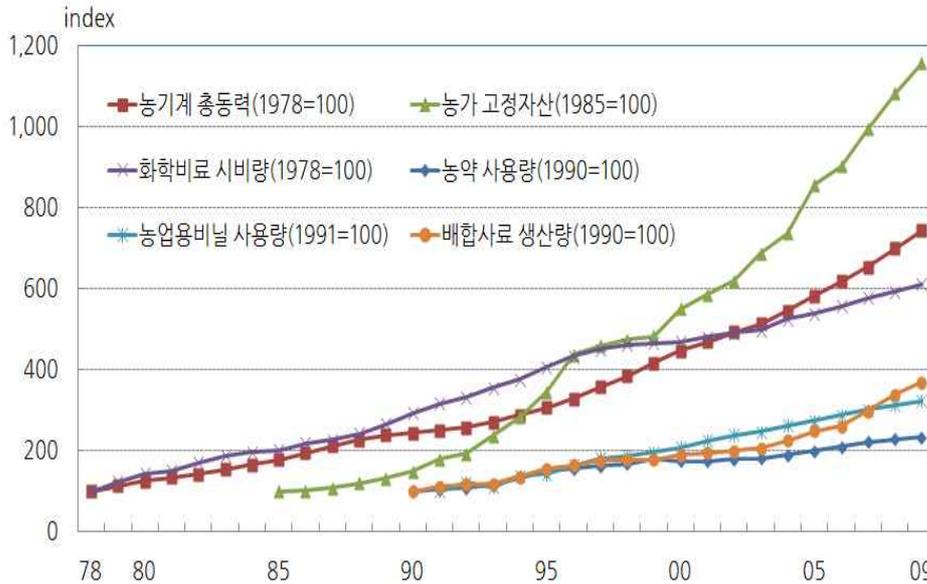
농업지역별로 농림어업취업자수의 변화를 보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장강중하류와 황하중하류는 1980년 대비 각각 26.8%포인트, 4.5%포인트 감소한 반면,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은 각각 42.9%포인트, 31.5%포인트 증가했다. 농업지역별 농림어업취업자수 비중을 비교해보면 중국 최대의 농업지역인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가 여전히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58.9%에서 2009년 52.4%로 다소 감소하였다. 특히 장강중하류지역의 비중이 같은 기간 31.3%에서 24.4%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나머지 지역의 비중은 모두 증가하였다.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농업의 경상재 및 자본재 투입은 개혁개방 이후 단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상투입재인 화학비료의 시비량(성분량)은 1978년 884만 톤에서 2009년 5,404만 톤으로 6.1배 증가하였다. ha당 화학비료 시비량도 1996년 294.4kg에서 2009년 430.4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약 사용량은 1990년 73.3만 톤에서 2009년 170.9만 톤으로 2.3배 증가하였다. 농업용비닐 사용량은 1991년 64.2만 톤에서 2009년 208만 톤으로 증가했다. 또한 배합사료 생산량은 1990년 3,122.2만 톤에서 2009년 11,534.5만 톤으로 3.7배 증가

했다.

한편 농기계총동력은 1978년 11,749.6만 kW에서 2009년 87,496만 kW로 7.5배 증가하였다. 농가 호당 고정자산도 1985년 603.9위안에서 2009년 6,991.9위안으로 11.6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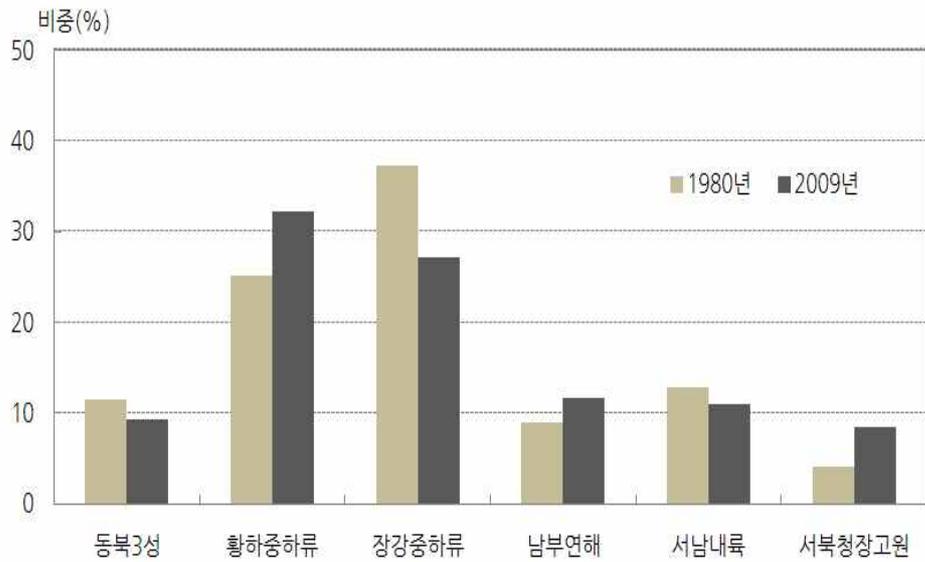
그림 3-4. 중국 농업의 경상재 및 자본재 투입 변화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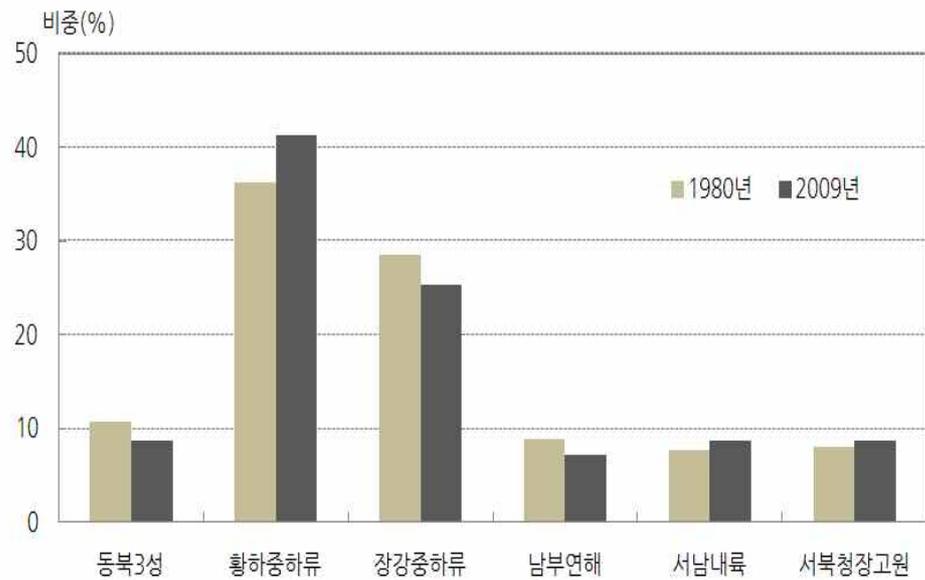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지역별로 2009년도의 화학비료 시비량 비중을 비교해보면 주요 재배업지역인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가 각각 32.2%와 2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강중하류지역은 중국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중국 전체 화학비료 시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37.4%에 비해 10.2%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황하중하류지역은 1980년 25.1%에 비해 7.1%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북·청장고원과 남부연해지역은 증가한 반면 동북3성과 서남내륙지역은 감소하였다.

그림 3-5. 중국의 농업지역별 화학비료 시비량 비중 변화



자료: 國家統計局. 「2010國家統計年鑒」;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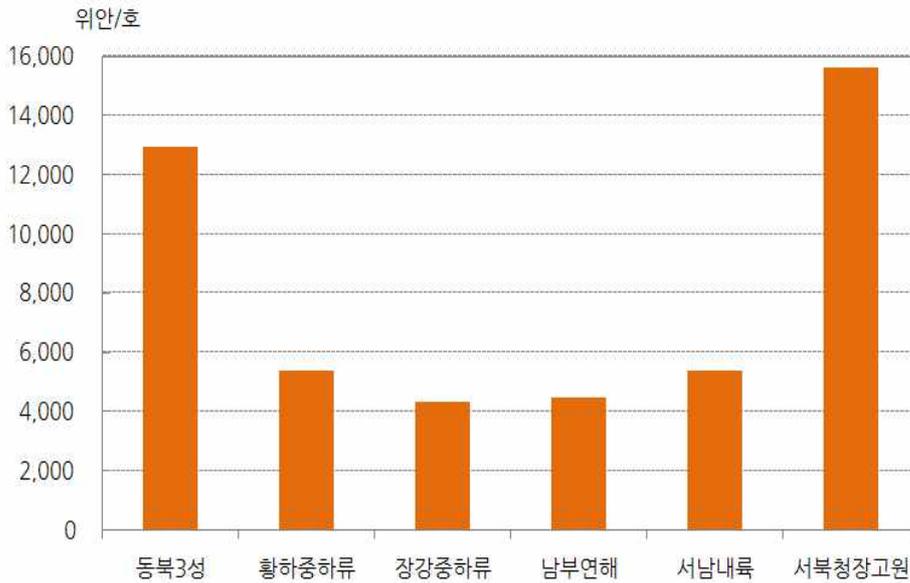
그림 3-6.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기계총동력 비중 변화



자료: 國家統計局. 「2010國家統計年鑒」;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농기계총동력(2009년)은 주요 재배업지역인 황하중하류(41.3%)와 장강중하류(25.3%)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980년과 비교하여 황하중하류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1%포인트 증가한 반면, 장강중하류지역은 3.3%포인트 감소하였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비중은 7~8%로 커다란 차이가 없다.

그림 3-7.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가당 생산성 고정자산 규모



자료: 國家統計局. 「2010國家統計年鑒」;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중국의 농가보유 생산성 고정자산⁵의 농업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북·청장고원, 동북3성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중국의 농가당 생산성 고정자산 통계에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재배업 위주의 농업지역보다는 축산업 또는 ‘재배업+축산업’ 지역의 고정자산 규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정자산 규모가 가장 큰 서북·청장고원은 중국의 대표적인 목축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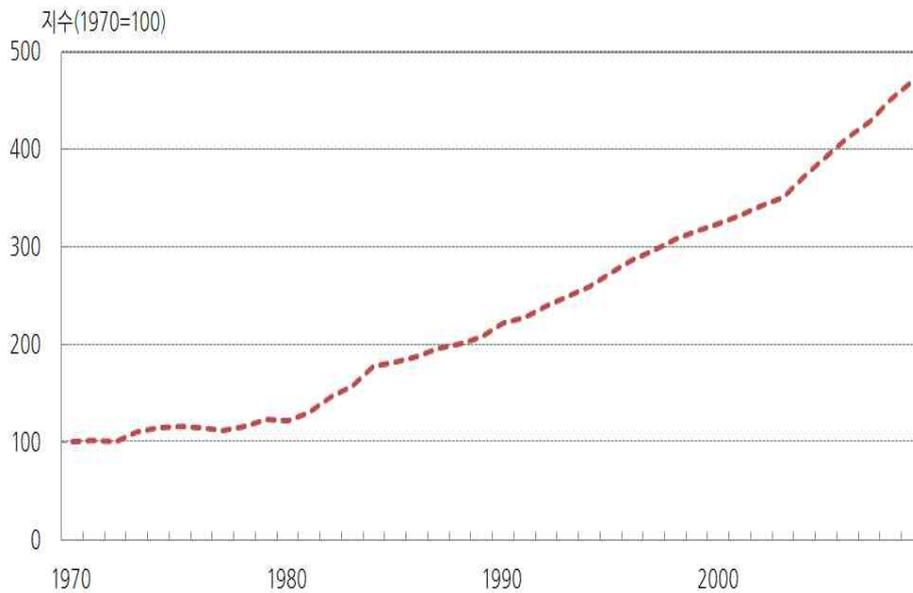
5 재배업부문의 주택·건축물, 역축, 중·대형 농기구, 농기계 그리고 축산업부문의 주택·건축물, 각종 가축·가금을 포함하며 농지는 포함되지 않음.

역이다. 서북·청장고원 다음으로 고정자산 규모가 큰 동북3성은 축산업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기계화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1.2. 농업 산출의 성장

중국의 농림어업부가가치는 1970~2009년 동안 연평균 4.05%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2.25%와 비교하여 중국 농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 전후로 구분해서 보면 신중국 성립 이후 1952~2009년 동안 연평균 3.43%, 개혁개방 이후 1979~2009년 동안 연평균 4.54% 성장하였다.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연평균 9.9%의 속도로 성장한 것을 두고 흔히 “중국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중국 농업의 성장 실적도 “중국농업의 기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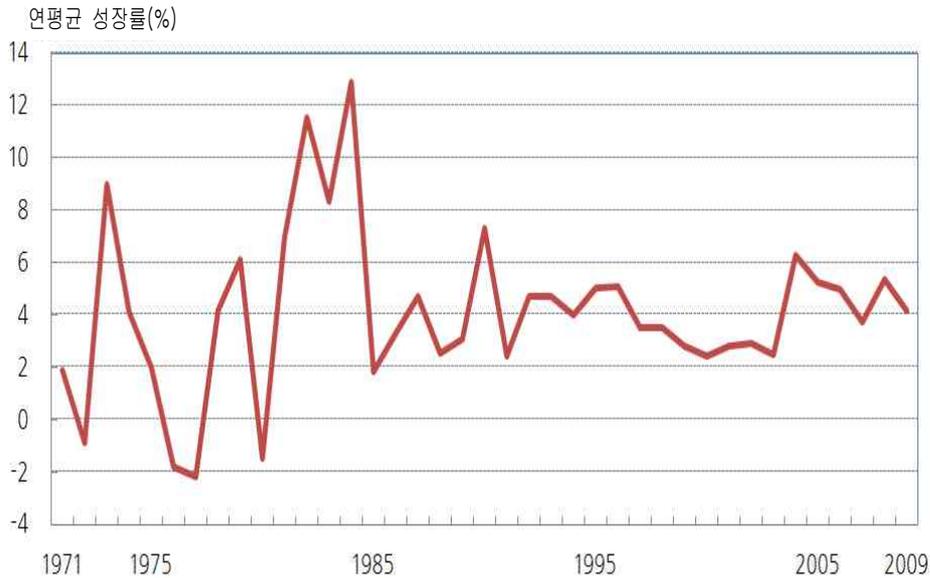
그림 3-8. 중국의 농림어업부가가치 성장 추이



자료: 농림수산물부. 「2010농림수산물 주요통계」;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중국 농업의 성장 과정은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정한 성장 추세를 보인 우리나라와 달리 198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 1981~85년 동안 8.6%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후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3.0~4.5%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9. 중국의 농림어업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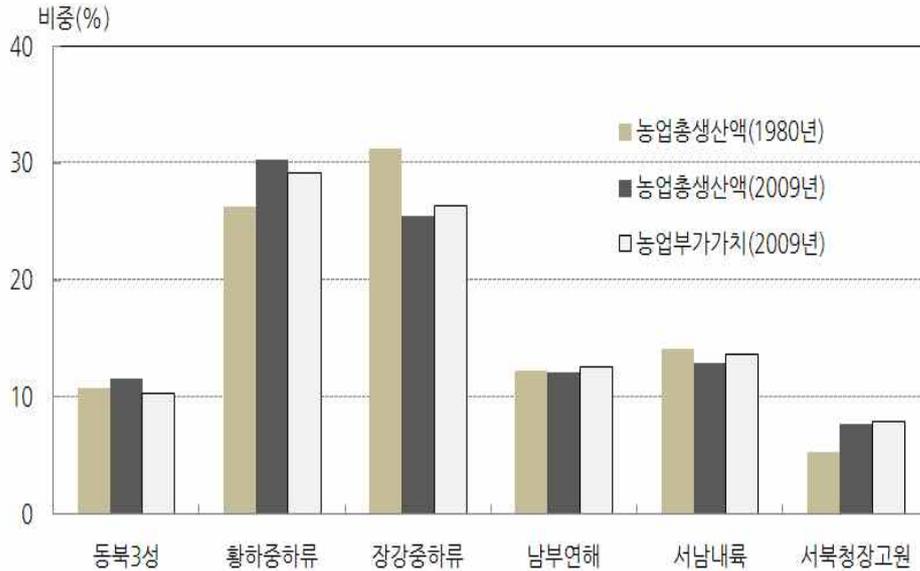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물부. 「2010농림수산물 주요통계」;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산출 성장을 비교하기 위해 농업총생산액(1990년 불변가격) 지표를 사용하여 1980~2009년 동안의 성장 추이를 살펴보았다. 6 분석기간 동안 중국의 농업총생산액은 연평균 5.95% 성장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북·청장고원, 동북3성, 황하중하류, 남부연해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6.7%, 6.6%, 6.4%, 6.1%로 서남내륙, 장강중하류지역의

6 중국의 농업은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포함하는 대농업 개념이나 여기서는 재배업과 축산업만을 포함한 농업총생산액 지표를 활용하였음.

5.3%, 4.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재배업지대인 장강중하류지역의 성장률이 가장 낮고 대표적인 목축업지역인 서북·청장고원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은 농업총생산액의 구성에서 재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3-10.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총생산액 비중 변화



자료: 國家統計局, 「2010國家統計年鑒」;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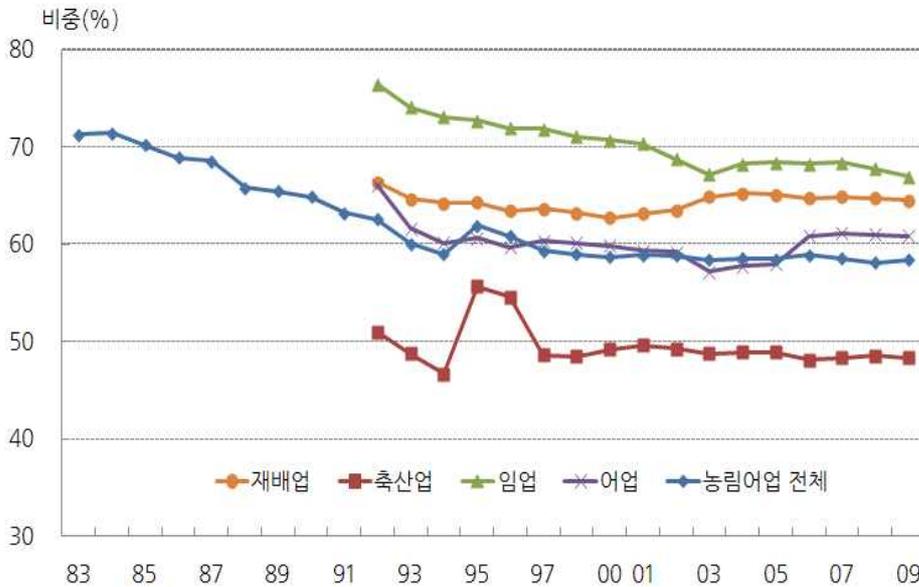
<그림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중국의 전체 농업총생산액에서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3%, 25.5%이다. 1980년과 비교하여 황하중하류의 비중은 3.9%포인트 증가, 장강중하류는 5.7%포인트 감소하였다. 중국 최대 농업지역이었던 장강중하류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고 황하중하류지역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지역도 1980년과 비교해 전체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농업부문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2009년도 중국 농업부가가치 총액의 지역별 비중은 농업총생산액의 지

역별 비중과 마찬가지로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지역이 각각 29.2%, 26.3%를 차지하였다.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농업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71.3%에서 2009년 58.2%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 농업이 현대적 투입요소의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남내륙 62.0%, 남부연해 60.6%, 장강중하류 60.1%, 서북·청장고원 59.5% 수준이다. 동북3성과 황하중하류지역의 농업은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농업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52.0%, 56.1%로 낮다.

그림 3-11. 중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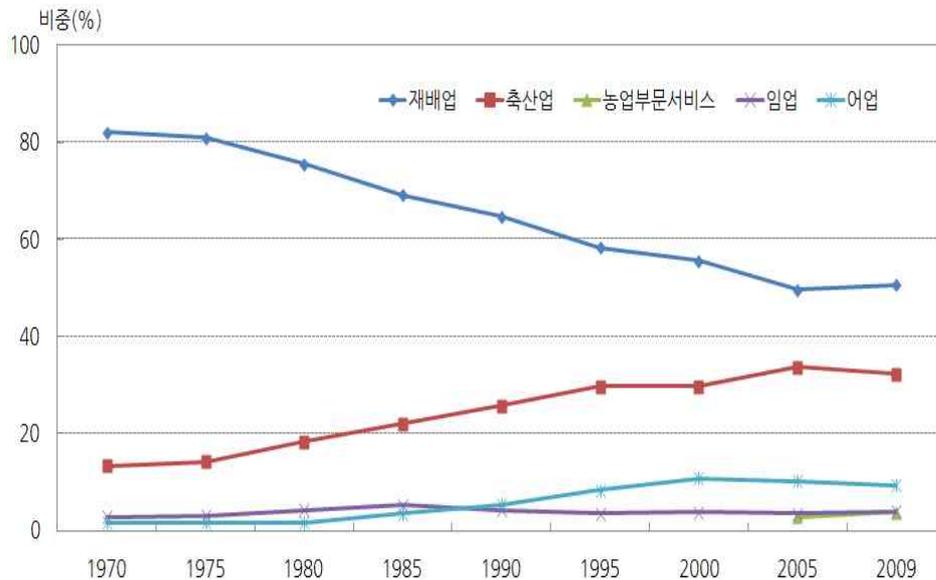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農業部. 「2010中國農業發展報告」

2.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2.1. 농업총생산액의 구성

중국 농업은 성장과정에서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재배업의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재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5.6%에서 50.7%로 감소하였다. 반면 축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8.4%에서 32.3%로 증가하였다. 중국 농업의 성장이 재배업이 주도하던 국면에서 ‘재배업+축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중국의 농업총생산액 구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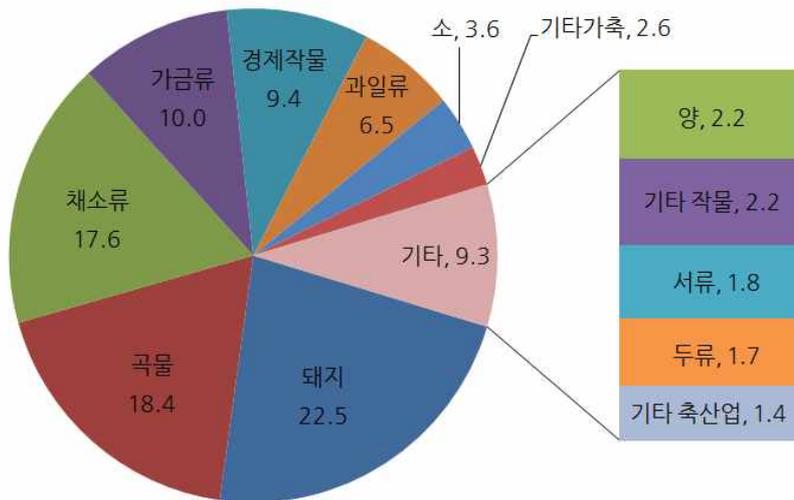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총생산액(재배업과 축산업만 포함)의 품목별 구성 변화를 보면 곡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원예작물과 돼지, 가금류 등 축산 품목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곡물의 비중은 1995년 31.6%에서 2009년 18.4%로 감소하였다. 채소류는 1985년 8.0%에서 2009년 17.6%로 증가,

과실류는 같은 기간 3.3%에서 6.5%로 증가했다. 돼지는 같은 기간 13.6%에서 22.5%로 증가, 가금류는 같은 기간 2.7%에서 10.0%로 증가했다. <그림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농업총생산액의 품목별 구성비를 보면 그동안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던 곡물을 제치고 돼지가 단일 품목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3-13. 중국의 농업총생산액 품목별 구성비(2009년)



자료: 「2010中國農村統計年鑒」

표 3-1.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총생산액 중 재배업과 축산업 비중 변화

농업지역	1980년		2009년	
	재배업(%)	축산업(%)	재배업(%)	축산업(%)
동북3성	72.3	22.5	43.3	42.9
황하중하류	81.0	14.3	55.6	31.8
장강중하류	72.3	18.6	49.2	28.3
남부연해	72.0	16.1	45.4	26.6
서남내륙	72.4	23.4	51.2	38.4
서북·청장고원	69.4	25.9	58.2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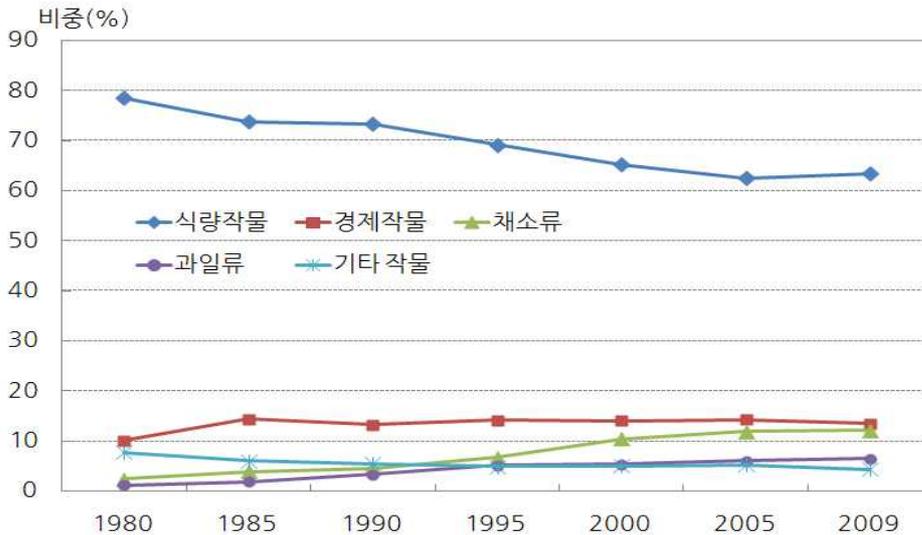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統計年鑒」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을 6대 농업지역으로 세분해서 보아도 농림어업 총생산액 구성에서 재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예외 없이 관찰되었다. 특히 동북3성이 재배업의 비중 감소와 축산업의 비중 증가 추세가 가장 뚜렷하다. 반면 전통적인 재배업 지대인 장강중하류지역의 축산업 비중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황하중하류지역은 동북3성에 이어 축산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2. 재배업 작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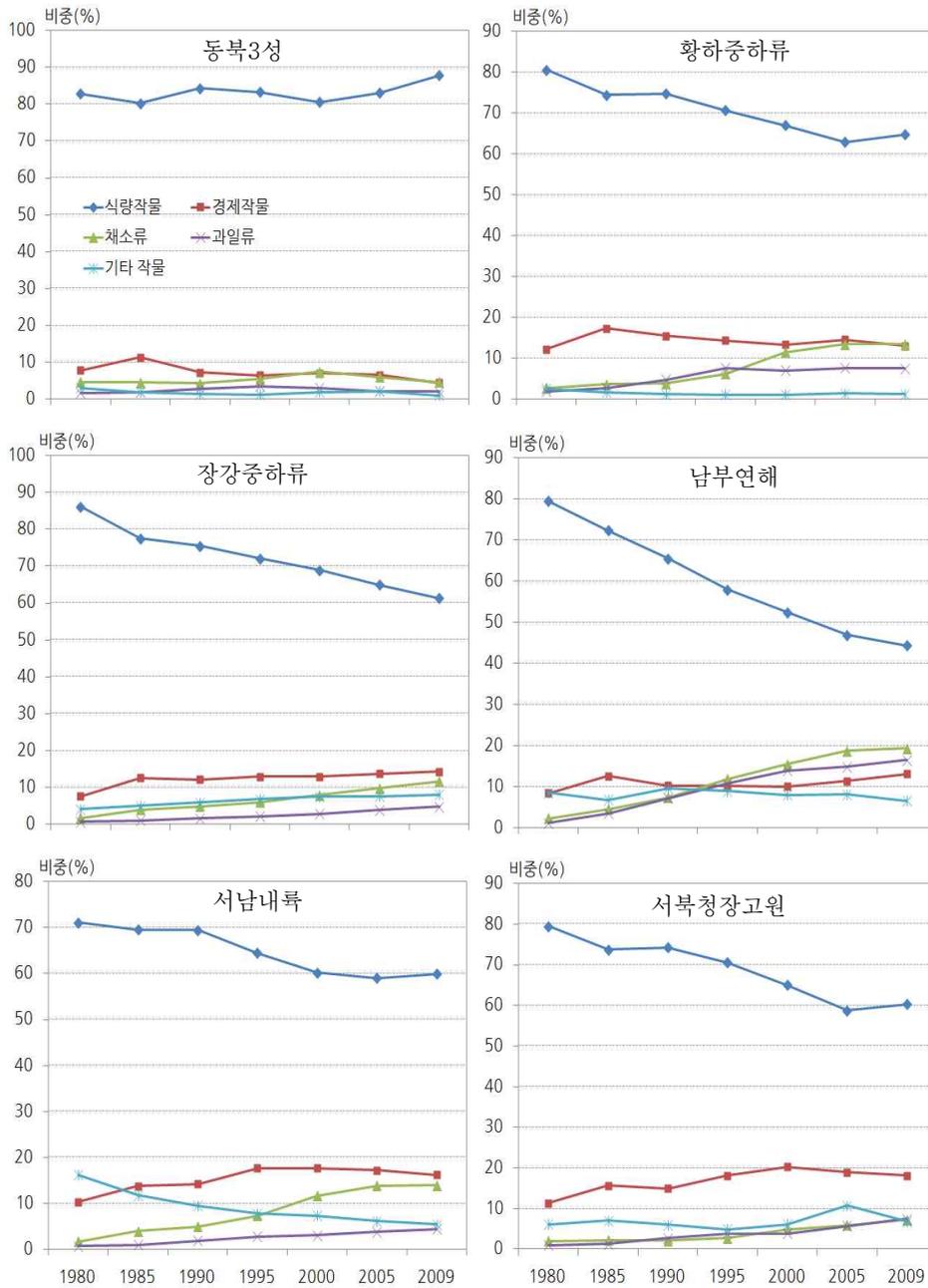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작물 작부구조의 변화를 보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탄성치(수요측 요인)와 수익성(공급측 요인)이 낮은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은 감소하였다. 반면 소득 탄력적이고 수익성이 높아 비교우위가 있는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경제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림 3-14. 중국의 농작물 재배업 작부구조 변화 추이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그림 3-15.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작물 재배업 작부구조 변화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 「2010國家統計年鑒」;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세분해서 살펴봐도 개혁개방 이후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 농작물 재배면적 중 식량작물의 비중이 줄고, 채소류·과일류·경제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양상은 다소간 차이가 관찰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북3성이다. <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3성은 예외적으로 식량작물의 비중이 1980년 82.8%에서 2009년 87.8%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동북3성을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선정하여 식량작물의 생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가 발전한 남부연해지역은 식량작물 재배면적 비중 감소 추세가 6개 지역 가운데 가장 뚜렷하다. 채소류와 과일류의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4년 이후 중국 정부가 강력한 식량증산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남부연해, 서남내륙지역은 예외). 중국 정부는 2004년 이후 식량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소득보전직불제(식량직불제 및 농자재종합직불제), 투입재보조(우량종자보조·농기계구입보조), 가격보조(식량 최저수매가격제) 등 식량생산 농가의 생산의 적극성을 견인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제도적 요인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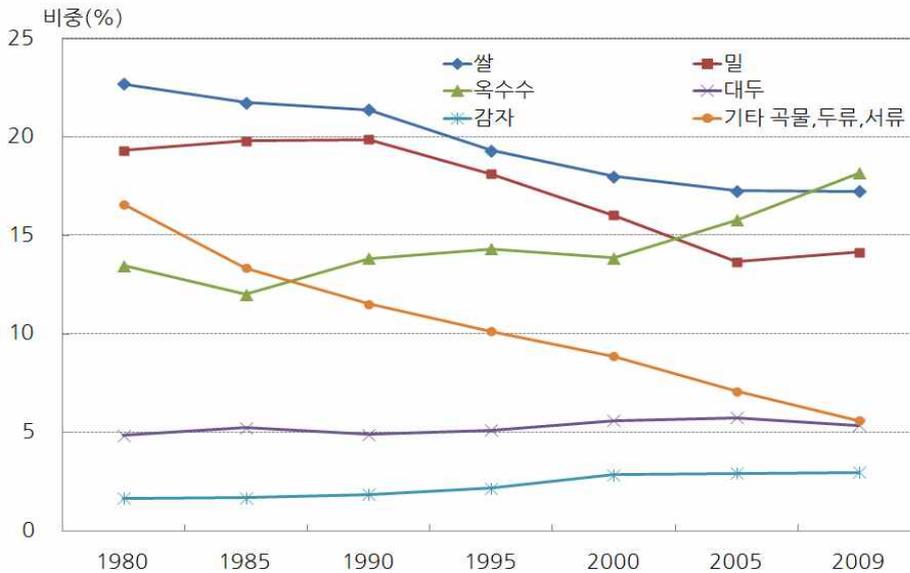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작물 작부체계는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농업생산구조가 동북아지역 재배업 작부구조의 특성을 구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6개 농업지역별 식량작물의 비중은 동북3성 87.8%, 황하중하류 64.8%, 서남내륙 61.3%, 서북·청장고원 60.3%, 장강중하류 60.0% 순이다. 중국의 주요 수도작지대였던 남부연해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식량작물의 비중이 1980년 79.5%에서 2009년 44%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채소류와 과일류가 이를 대체하였다. 1980~2009년 동안 남부연해지역의 채소류 비중은 2.4%에서 19.3%, 과일류는 1.2%에서 16.5%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3. 식량작물 작부구조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체계는 개혁개방 이후 쌀, 밀, 기타 곡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옥수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로 육류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축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사료작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사료용 옥수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옥수수 이외의 기타 곡물·두류·서류의 비중은 대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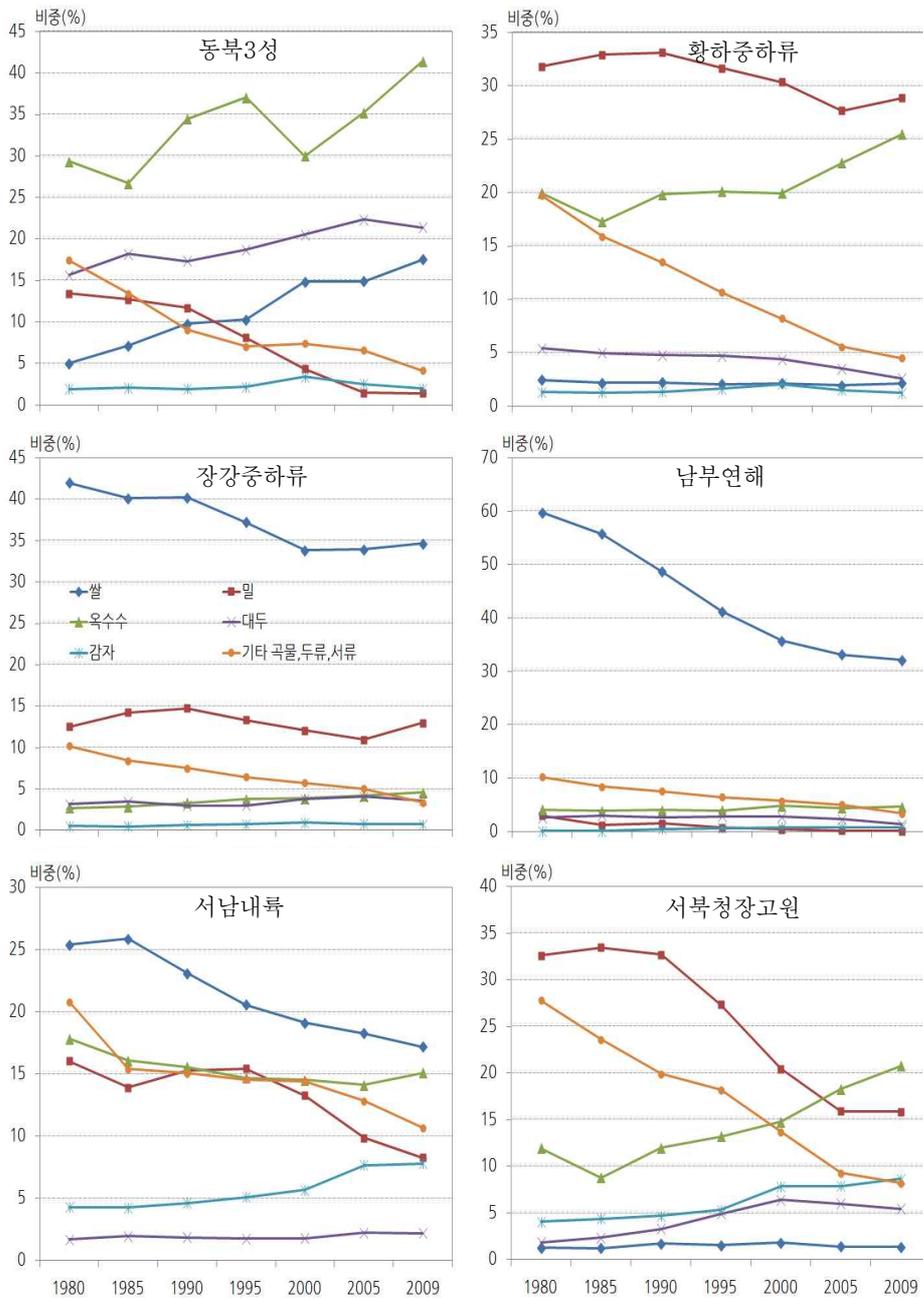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체계의 변화 양상은 지역간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동북3성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옥수수 비중 증가와 함께 쌀과 대두의 비중도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가 눈에 띈다. 이는 중국에서 중단립종 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재배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중단립종 쌀 재배의 최적지역인 동북3성에서 쌀 재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두도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적지역으로 평가되는 동북3성에서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16.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구조 변화 추이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그림 3-17. 중국의 농업지역별 식량작물 작부구조의 변화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 「2010國家統計年鑒」;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황하중하류지역은 밀과 옥수수의 주산지로 옥수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밀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 식량증산 정책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0년 약 20%의 비중을 차지했던 기타 곡물·두류·서류는 재배면적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장강중하류지역은 쌀과 밀의 주산지이며 두 작물 모두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식량증산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남부연해지역은 쌀 주산지였으나 재배면적 감소 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다. 서남내륙지역은 쌀과 옥수수, 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주산지였으나 재배면적이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이다. 서북청장고원은 밀과 옥수수 주산지로 옥수수 재배면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밀은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3. 농업경영구조의 변화

3.1. 토지제도의 변화와 농가경영시스템의 확립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는 개혁개방으로 농가토지도급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라는 두 번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두 번의 변화 모두 제도 공급의 행위주체인 정부에 의한 ‘공급주도형 강제적 제도변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제도 공급 방식과 의도 측면에서 보면 모두 정치적 지지의 최대화와 사회적 총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변화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두 차례의 토지제도 변화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주로 토지재산권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신중국 건국 직후 추진된 토지개혁(1950~52)은 중국 정부가 강제적인 독점 권력을 이용하여 지주토지소유제를 철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토지소유제를 실현한 강제적인 제도 변화였다. 토지개혁으로 농민

들의 토지재산권이 명확히 확립됨으로써 법률적으로나 명의상으로도 농민들의 토지소유권이 실현되었고, 배타적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권과 수익권 나아가 토지의 자유처분권 등 경제적 권익도 향유하게 되었다. 명확한 재산권관계는 농민들의 생산의 적극성을 유발하였고, 결과적으로 토지개혁을 통한 제도변화의 효과는 농업생산 증대로 나타났다.

1953년부터 시작된 농업집단화 과정은 토지제도 측면에서 보면 토지개혁을 통해 확립된 농민토지소유제의 집단토지소유제로의 전환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동시에 상실하였다. 농업집단화 초기 호조조(互助組) 및 초급농업협작사(初級農業合作社) 시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농민토지소유제와 농가경영시스템이 유지되었다. 이 시기까지는 토지재산권 관계도 여전히 명확하였으며, 농업생산에서 토지개혁에 의한 제도변화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발휘되었다. 농업집단화가 고급농업협작사(高級農業合作社)단계로 이행하고 곧이어 인민공사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강제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졌다.

농촌 토지의 소유 주체는 고급농업협작사(1956~57)에서 인민공사(1958~61)로 변화하였다가 인민공사의 재정비기를 거치면서 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의 '3급 소유'로 세분화되었다. 농가토지도급경영제가 도입될 때까지 유지된 '3급 소유제'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주로 인민공사체제에서 '생산과 회계의 기본단위'로서 기능했던 생산대에 귀속되었다. 인민공사제도에서는 토지가 집단소유와 집단경영에 귀속된 데다 계획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져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수익권 그리고 자유처분권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재산권 침해가 일상화되었다.

인민공사의 집단소유 집단경영구조에서 농민은 더 이상 독립적인 경제단위로서 기능할 수 없었으며, 더 이상 직접적으로 토지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비록 인민공사 재정비기에 '3급 소유제'가 확립되어 경영의 분권화와 재산권의 세분화가 진전되기는 했지만, 농민과 생산대, 생산대와 생산대대, 생산대대와 인민공사 사이의 재산권관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⁷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농촌의 농업 생산·경영제도로 정착한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토지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토지소유제도 측면에서 보면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확립된 집단토지소유제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사용제도 측면에서는 개별농가가 농업생산과 경영의 기본단위로서 토지사용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중국의 현행 농가경영시스템은 바로 토지사용권에 기초하고 있다.

농가토지도급경영제로의 토지제도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수요주도형 제도 공급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인민공사의 토지제도가 파레토 비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 전형적인 파레토개선(pareto improvement) 사례에 속한다.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실시는 두 차례에 걸친 공급주도형 강제적 제도공급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인민공사의 토지제도는 제도 자체의 낮은 효율성과 재산권 침해로 항상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요를 내재하고 있었다. 이는 농업집단화 초기에 출현하여 인민공사제도에서도 긍정과 부정의 역사를 되풀이하다 결국 1978년 시작된 농업개혁 과정에서 공식 승인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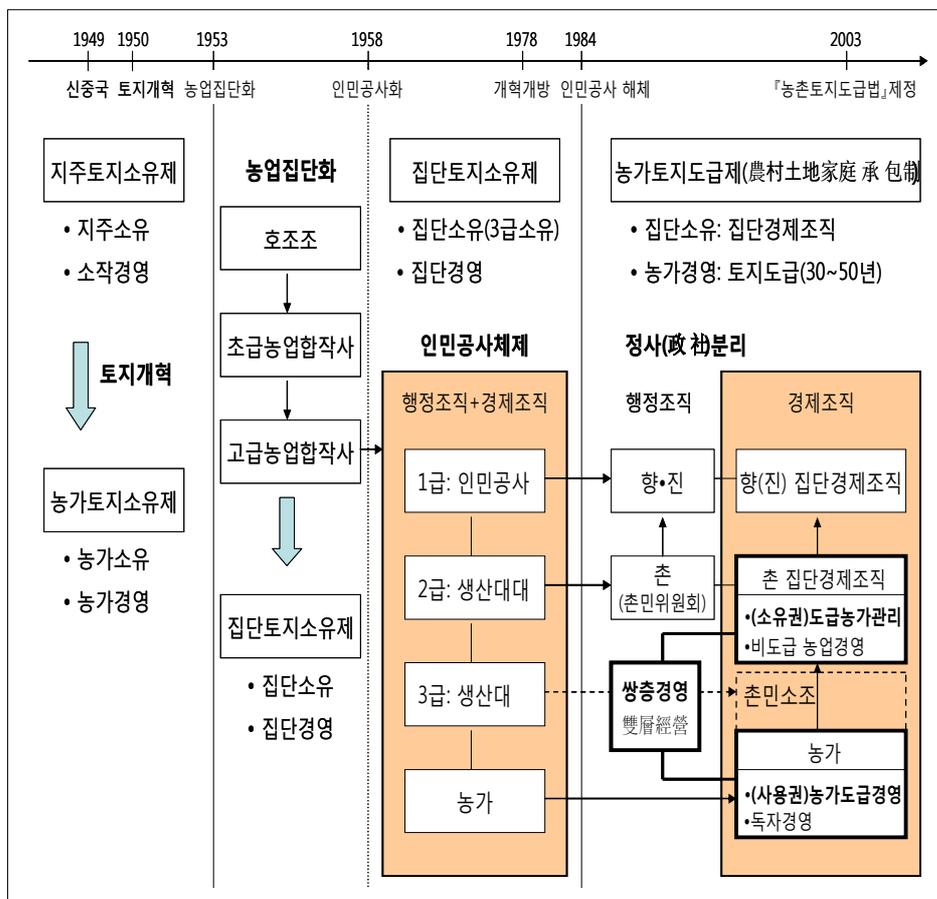
농가토지도급경영제에서는 농가가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아 직접 생산 및 경영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과거 인민공사제도의 최대 문제점이었던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문제뿐 아니라 과도한 노동 감독비용 문제도 해결

7 인민공사시기 '3급 소유제'의 모호한 재산권관계는 현재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불완전한 토지재산권제도의 출발점이다. 인민공사체제가 해체되고 현재의 행정조직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3급 소유제'의 모호한 재산권관계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계승되었음.

8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대표적인 형식이었던 포산도호(包產到戶)는 농업집단화 운동의 고조기인 1956년 처음으로 출현한 이후 인민공사제도를 거쳐 1978년 시작된 농업개혁 과정에서 공식 승인되기까지 다섯 차례의 흥망성쇠를 경험하였음.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1956년 浙江省 永嘉, 瑞安, 四川省 江津, 山西省 榆次, 安徽省 風陽, 1959년 河南省 新鄉, 1960년 四川省, 安徽省, 廣西省 壯族自治區, 1964년 云南省, 貴州省, 1970년 福建省, 江西省, 廣東省 등지에서 포산도호(包產到戶) 형식이 실험되었음.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농가토지도급제의 토지제도에서는 생산의 적극성이 극대화되고 비용은 최소화되는 제도변화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었다. 농가토지도급경영제로의 제도변화는 다양한 농촌 미시경영조직의 발전, 농업자원의 효율적 배치 유도, 경제발전에 대한 농업의 역할 제고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다. 새로운 토지제도에 기반한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1986년 6월 제정된 [토지관리법](2장 12조)과 1993년 3월 수정된 [헌법]에서 그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림 3-18.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변화와 농업경영시스템 개념도



자료: 필자 작성

중국의 농가경영시스템은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경영권)이 일체화된 자본주의의 농가경영시스템과는 구별되며,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토지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른바 ‘쌍층경영시스템(雙層經營體制)’⁹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그림 3-18 참조). ‘쌍층경영시스템’은 개념적으로 토지소유제 측면의 집단소유제와 토지사용제 측면(혹은 농업경영 측면)의 농가토지도급경영제가 상호 결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경영 측면에 좀 더 비중을 둔다면 ‘쌍층경영시스템’은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농촌(농민)집체경제조직의 통일경영 기능과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개별 농가의 분산경영의 결합을 강조한 개념이다.¹⁰

‘쌍층경영시스템’에서 농민들이 토지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 두 가지 요인에 기초한다. 첫째, 토지집단소유제에서 집단(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은 자연적으로 집단소유의 토지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¹¹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해당 공동체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둘째, 농민들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반드시 국가에 대한 세금과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토지도급비용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토지사용권은 취소된다(畢寶德 主編, 2001).

농가토지도급제에 기반한 ‘쌍층경영시스템’이 전국 농촌에 정착된 1984년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농가토지도급경영제와 토지사용권의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을 위해 일련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였다. 토지 도급기간의 연장이 후속 조치의 핵심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까지는 법률적 구속이 없는 당 문건 형식이 대부분이었

9 쌍층경영(雙層經營)이라는 용어는 중국 공산당의 1986년 ‘1호 문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미 1982년 ‘1호 문건’에서 제시된 바 있음. 따라서 쌍층경영 개념은 농가토지도급제를 다른 각도에서 파악한 것이라는 점에서 농가토지도급제의 도입과 같은 시기에 형성된 개념임.

10 통일경영 기능이란 농자재의 공급, 기계화작업·방제·관개 등 농업서비스 기능을 의미함.

11 周其仁·劉守營(1988)는 이러한 권리를 ‘社區成員權’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¹²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도급 주체가 각종 명목으로 도급 토지를 회수하거나 토지 도급비용을 인상하는 등 토지사용권(도급경영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토지사용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아 농가토지도급제가 왜곡된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2002년 8월 제정된 [농촌토지도급법(農村土地承包法)](2003.3.1 시행)은 국가법률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사용권을 확인해 준 최초의 법률로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와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보호를 위해 토지 도급기간 내에는 인구변동에 관계없이 도급 토지면적을 고정시키는 것(贈人不增地, 減人不減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인구변동에 따라 토지사용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쌍층경영시스템’의 한 축인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주도적인 지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토지경영모델이 적극 실험되고 있다. 이는 농가토지도급경영제가 자연지리적 조건, 사회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여 세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2. 중국 농가경영시스템의 불안정성

12 농가토지도급제 도입 초기에는 3~5년이 일반적이었으나 1984년 공산당 ‘중양1호문건’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음. 1993년 공산당 ‘중양11호문건’은 토지도급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토지투입 증대 및 토지생산성 향상 그리고 토지도급 관계의 안정을 목적으로 도급 기간을 재차 30년으로 연장하였음. 1998년 수정된 《토지관리법》(2장 14조)에서도 30년 도급 기간을 규정하였음.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2002.8.29)에서 통과된 《농촌토지도급법》은 2장 3절 20조에서 “경지의 도급 기간은 30년, 초지의 도급 기간은 30~50년, 임지의 도급 기간은 30~70년”으로 규정하였음. 2007년 3월 제정된 《물권법》도 11장 126조에서 경지 30년, 초지 30~50년, 임지 30~70년의 도급 기한을 명시하였음.

3.2.1. 토지소유권 측면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1950년대 농업집단화 이후 확립된 집단소유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개별 농가가 토지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토지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중국 농촌의 기본적인 농업경영제도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행사 측면에서 권리 침해 현상이 빈번하여 제도적 불안정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는 토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산권인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분리를 중요한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의 주체와 성질, 권리와 의무, 재산권행사의 범위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관련 문제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명문화된 법률의 존재이다.

중국에서 농촌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헌법(憲法)], [민법통칙(民法通則)],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 [농촌토지도급법(農村土地承包法)], [물권법(物權法)]이 있다. 이렇듯 많은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재산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률 규정의 모호함 때문이다. 특히 토지소유권의 주체, 다시 말해 농가토지도급제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을 농민에게 도급하는 주체(도급수여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법률에서는 농민집단(農民集體)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소유권 주체를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민법 차원에서 보면 농민집단의 실체는 법인이나 혹은 자연인의 연합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의 주체를 대표할 수 없는 개념이다. 집단이라는 표현은 현재 중국 상황에서 단지 촌(村)의 사회경제조직 형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될 수 없다.

표 3-2. 중국의 농촌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률 규정 비교

법률	제정시기	관련 규정
헌법	1982.12.4 제4차 헌법	“농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소유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집단소유에 속한다”(1장 10조) *4차 헌법은 4차례(1988.4, 1993.3, 1999.3, 2004.3) 수정
민법통칙	1986.4.12	“집단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촌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며, 촌 농업생산합작사 등 농업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경영 및 관리한다”(5장 1절 74조) “이미 향(진) 농민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집단소유의 토지는 향(진) 농민집단소유에 속할 수 있다”(5장 1절 74조)
토지관리법	1986.6.25 수정 1988.12.29 1998. 8.29 2004. 8.28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촌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며,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경영 및 관리한다”(2장 10조) “이미 촌 내 2개 이상의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각각의 농민집단소유 토지는 촌 내 각 해당 농촌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경영 및 관리한다”(2장 10조) “이미 향(진) 농민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집단소유의 토지는 향(진) 농촌집단경제조직이 경영 및 관리한다”(2장 10조)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현(縣)급 인민정부가 등기서류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행하여 소유권을 확인한다”(2장 11조)
농업법	1993.7.2 수정 2002.12.28	“집단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촌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며, 촌 농업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경영 및 관리한다”(2장 11조) “이미 향(진) 농민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집단소유의 토지는 향(진) 농민집단소유에 속할 수 있다”(2장 11조) “이미 촌 내 2개 이상 농업집단경제조직 소유의 각각의 촌 농민집단소유 토지는 각 해당 농업집단경제조직의 농민집단 소유에 속할 수 있다”(2장 11조)
농촌토지 도급법	2002.8.29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촌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며,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토지를 도급한다”(2장 1절 12조) “이미 촌 내 2개 이상의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각각의 농민집단소유 토지는 촌 내 각 해당 농촌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토지를 도급한다”(2장 1절 12조)
물권법	2007.3.16	“촌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는 토지(삼림, 임야, 초지, 황무지 등)는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2편 5장 60조) “촌 내 2개 이상의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는 각각의 토지(삼림, 임야, 초지, 황무지 등)는 촌 내 각 해당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2편 5장 60조) “향(진)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는 토지(삼림, 임야, 초지, 황무지 등)는 향(진) 집단경제조직이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2편 5장 60조)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법률에서는 향(진) 집단경제조직,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 촌 내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경영·관리하거나 농민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향(진)-촌-촌민소조 단위의 3급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현재와 같은 행정조직 체계로 개편할 때 과거 인민공사체제에서 존재하였던 인민공사-생산대대-생산대의 '3급 소유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현재의 향(진) 집단경제조직-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촌 내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의 '3급 소유제' 형태로 온존하고 있다. 현재 중국 농촌에서는 많은 토지가 소유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이들 3급의 집단간에 소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2.2. 토지사용권 측면

토지사용권은 개념적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한 토지를 이용하고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협의의 의미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를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에 포함되는 토지점유권, 토지수익권, 토지처분권과 병렬 관계로 해석되고 있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하여 토지점유권, 협의의 토지사용권, 부분적인 수익권, 불완전한 처분권의 조합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에서 토지사용권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토지사용권으로 해석되고 있다.¹³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는 권리와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여 토지소유권 주체가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경영권은 사용권에 속하는 것으로 현재 중국 농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토지도급경영제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은 토지사용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경작권, 부분적인 수익권 그리고 불완전한 처분권을 내

13 畢寶德 主編. 2001. 「土地經濟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p.335.

포하고 있다. 중국 농촌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의 실제 권리 내용이 불충분하여 농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토지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 [물권법]¹⁴에서는 토지 도급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수가 늘거나 줄어도 도급 토지 면적은 불변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¹⁵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의 변화에 따라 도급 토지를 조정(토지 재도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¹⁶ 또한 규모경영을 이유로 농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양전제(兩田制), 반조도포(反租倒包)의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¹⁷

토지사용권이 불안정한 가운데 토지수익권 측면에서 토지소유권 주체가 농촌 공공사업 실시 등의 이유로 고액의 토지 도급비용을 부과하거나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토지 수용 및 사용과정에서 토지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토지도급경영권의 불안정으로 많은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투입을 기피하여 지력이 하락하고 토지생산성도 낮아져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농민들도 토지사용

14 [물권법]은 다수의 단행법에 산재되어 있던 농촌 토지의 재산권을 포함하여 재산권 관련 규정을 통합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기본법의 위상을 지님. [물권법]은 토지도급경영권을 물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농민이 도급 경영하는 농지, 초지, 임지의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음.

15 [농촌토지도급법] 제28조는 집단경제조직이 법률에 의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동지(機動地; 공적인 용도와 노동력의 변화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도급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합법적인 개간 등으로 조성한 신규 토지, 도급농가가 법률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반납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급관계를 조정하거나 증가한 인구에게 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6 농민의 토지사용권 보장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토지도급경영권의 안정성과 토지의 시장가격(shadow price)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 농업경제 환경이 낙후하고 비농업용지 전환 확률이 낮은 지역의 토지 도급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토지의 수익이 높고 비농업용지 전환 확률이 높은 지역의 토지 도급관계는 불안정한 특성이 있음.

17 양전제는 집단소유의 토지를 기본 식량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구량전(口糧田)과 도급경영을 실시하는 책임전(責任田)으로 구분하는 방식임. 반조도포는 향(진) 정부나 촌민위원회가 농민이나 집단경제조직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후 이를 다시 토지경영을 원하는 농가에게 도급하는 방식임.

권을 행사하고 보호하려는 의식과 능력이 부족하여 토지 도급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폐지하고, 타인의 농지를 함부로 점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표 3-3. 중국의 농촌 토지사용권의 유동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및 문건	관련 규정
1984년 '중양1호문건'	“도급기간 내에 영농을 영위할 수 없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여 도급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적은 규모의 토지를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를 집단에 반납하고 집단이 통일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의 동의를 거쳐 도급 농가 스스로 대상을 찾아 협상을 통해 전환 도급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과의 도급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토지관리법	“토지사용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양도할 수 있다”(1장 2조)
농업법 (1993.7)	“국유토지와 집단소유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양도할 수 있다”(1장 4조)
농촌토지 도급법	“농가도급을 통해 취득한 토지도급경영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전환 도급,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유동할 수 있다”(2장 5절 32조)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평등 협상, 자원, 유상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도급농가가 진행하는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토지소유권의 성질과 토지의 농업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유동 기한은 도급기간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토지도급경영권을 획득하는 측은 반드시 농업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 우선권을 향유한다”(2장 5절 33조) “전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유동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양도 방식을 채택하여 유동하는 경우 반드시 도급수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방식을 채택하여 유동하는 경우 반드시 도급수여자에게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2장 5절 37조)
물권법	“토지도급경영권자는 《농촌토지도급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도급경영권을 전환도급, 교환, 양도 등 방식으로 유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유동기간은 도급기간의 잔여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으면 도급토지를 비농업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11장 128조)

자료: 각 법률에 의거하여 필자 번역 정리.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는 농촌 토지사용권의 유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지사용권의 유동을 통한 영농규모화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⁸ 토지도급경영제의 실시로 토지의 분산경영이 정착되었으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의 소규모 분산경영과 규모화 경영 실현, 토지의 수익성 제고라는 사회적 수요 간에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사용은 더욱 영세하고 분산되어 대형 농기계 사용과 규모화가 어려워 농업 현대화를 제약하고 있으며 규모경제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도시로 유출된 농민의 토지사용권이 고정되어 효율적으로 유동되지 않음으로써 대량의 토지가 황폐해지는 등 토지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토지사용권 유동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가격 형성이 불합리하고 외부환경도 성숙되지 않아 농지의 유동이 더욱 어려운 상태이다.

농촌의 토지재산권 관계가 모호하여 토지의 수용과 사용 과정에서 기층간부의 비리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농민은 토지 가치 상승의 실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농촌 토지에 관한 현행 법률 및 법규는 농민이 커다란 제약 없이 토지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 정부와 촌 집단이 매우 강력한 토지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농촌 토지의 강제 수용 및 보상체계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현행 보상 규정은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¹⁹

18 葉劍平·蔣研·豐雷(2006)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17개 성 1,962개 농가 조사결과 67%의 농가가 농지유동 경험이 없고, 농지유동 경험이 있는 농가의 65%가 도급 토지의 일부, 35%가 도급 토지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지유동 경험이 있는 농가의 평균 양도 면적은 0.24ha, 조사대상 농가의 전체 도급 토지 가운데 9.7%만이 양도되었음.

19 [토지관리법] 제47조는 수용 토지의 보상비는 토지보상비, 정착보조비, 지상부착물 및 묘목보상비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토지보상비는 수용 전 3년 동안의 연평균 총생산액의 6~10배, 정착보조비는 수용 토지 면적을 1인당 평균 점유면적으로 나누어 정착보조 인구수를 계산하고, 1인당 보조 기준은 수용 이전 3년 동안의 연평균 총생산액의 4~6배(단, ha당 보조비는 15배를 초과

3.2. '농업산업화' 정책과 생산계열화²⁰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산업화(農業產業化)'가 중국 농정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특히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영세소농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별(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1978년 말 농가토지도급제의 도입을 통한 농업경영시스템의 대전환에 이은 제2차 농업경영시스템의 개혁이라는 의미도 부여되고 있다.

중국의 '농업산업화' 정책은 처음부터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산둥성(山東省)에서 채소산업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rgration) 모델이 시도된 것을 계기로 그 성과를 확대 보급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구체화되고 정책화되었다. 이른바 '돌을 두들기면서 강을 건넌다(摸着石頭過河)'는 전통적인 개혁방식이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중국의 '농업산업화' 개념은 시장화, 구역화(단지화), 전업화, 규모화, 계열화(통합화), 기업화의 6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중 계열화(Integration)가 핵심이다(표 3-4 참조). 이는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각 단계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통합되는 생산계열화를 의미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의 후방산업(투입재 생산 및 공급산업, 기술 및 서비스산업)과 전방산업(농산물 가공, 저장, 운송, 판매산업)의 결합을 통해 전후방연쇄효과(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를 극대화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할 수 없음)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비의 합이 3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0 전형진. 2009. 「중국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 p.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제5장 제1장 및 제2절의 내용을 전문 인용하거나 재정리하였음.

표 3-4. 중국 '농업산업화'의 6가지 특징

특징	주요 내용
시장화 (Marketization)	· 자원배치 및 생산요소의 결합, 생산요소와 상품의 구입·판매 가 시장경제에 의해 실현
구역화 (Regionalization)	· 생산요소의 집중, 자원비교우위에 입각한 배치계획 수립, 자 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는 자원 배치로 구역화(단지화) 실현
전업화 (Specialization)	· 생산, 가공, 판매, 서비스 등 각 단계의 전업화(전문화)
규모화 (Scalazation)	· 수평적으로 토지,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집적경영 실현 · 수직적으로 생산·가공·유통의 통합화, 서비스의 사회화 실현. 통일적인 계획, 기술서비스, 가공 및 판매로 적정규모에 도달 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적의 경제적 이익 실현
계열화 (Integration)	· 생산·가공·판매과정의 통합화, 농업·공업·상업의 일체화경영 메커니즘 형성 여부가 농업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기업화 (Commercialization)	· 생산, 경영, 관리의 기업화

자료: 관련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중국 농업부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산둥성 제성시, 수광시, 유방시 등에서 기업(또는 도매시장)이 주도하는 생산·가공·유통의 수직적 통합 실천 경험을 토대로 1996년 '농업산업화경영영도소조(農業産業化領導小組)'를 조직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농업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1998년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5기 3중 전회(1998.10.12~14)에서 채택된 《농업·농촌업무의 약간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은 '농업산업화'가 중국 농업의 당면과제인 농업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을 강조하고 정책적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아울러 '농업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개척 능력과 농산물 심층가공 능력을 갖추고, 대농민 서비스 제공 및 농민들의 상품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용두기업(龍頭企業)'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기업+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통한 '농업산업화' 발전 전략을 표방하였다.

표 3-5. 중국의 주요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 내용

일 자	주요 내용
1995.12.11	· 사설 '論農業產業化' 게재: 산둥성 유방시의 농업산업화 경험 소개
1996	· 농업부에서 '농업산업화영도소조(農業產業化領導小組)' 조직 → 전국적인 범위에서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
1998.10.14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농업·농촌업무의 약간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國務院關於農業和農村工作若干重大問題的決定》 · '농업산업화'는 농가토지도급제의 토대 위에서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영세한 농민들의 시장진입 문제, 현대적인 과학기술 응용 및 규모화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과 시장화 정도를 제고하여 농업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임. · '농업산업화'의 발전은 시장개척, 농산물 심층가공 능력을 갖추고 대농민 서비스제공 및 상품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용두기업' 육성이 관건임.
2000.1.16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2000년 농업·농촌업무를 잘할 데 대한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做好2000年農業和農村工作的意見》(中發[2000]3號) · '기업+농가' 유형의 '농업산업화경영'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임. ·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농식품 '용두기업'을 선정하여 시설 건설, 원료 구매, 설비 도입 및 상품 수출 등 방면에서 지원하도록 함.
2000.10.8	· 농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대외무역경제협작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농업산업화경영 중점용두기업 지원에 관한 의견關於扶持農業產業化經營重點龍頭企業的意見》(農經發[2000]8號) · 국가에서 지원할 중점 '용두기업'의 선정 기준 및 6개 방면의 세부적인 지원내용 제시
2000.10.26	· 농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대외무역경제협작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關於公布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名單的通知》(農經發[2000]10號) · 《意見》(農經發[2000]8號)에서 제시한 '용두기업' 표준에 근거하여 151개 국가중점 '용두기업' 선정. 기업 동태에 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격 취소
2001.6.26	· 농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대외무역경제협작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협작총사: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 인증 및 운영모니터링관리 잠행방법印發'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暫行辦法'的通知》(農經發[2001]4號) · 《通知》(農經發[2000]10號)에 근거하여 국가중점 '용두기업'의 선정지표, 신청 및 인증 절차와 방법, 모니터링 실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표 3-5. 중국의 주요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 내용(계속)

일 자	주요 내용
2001.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세무총국: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 소득세 면세 문제를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關於明確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所得稅徵免問題的通知》(國稅發[2001]124號) · 소득세 면세 기업의 조건과 절차, 관리 감독 및 검사에 관한 내용 규정
2002.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농업은행: 《농업산업화 신용대출 업무를 더욱 잘할 데 대한 지도의견關於進一步做好農業產業化信貸工作的指導意見》(農銀發[2002]125號) · 농업산업화 촉진을 위한 중국농업은행의 중점 지원사업 영역 명시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 《계약농업의 발전과 규범화에 관한 의견關於發展和規範訂單農業的意見》 · '계약농업'의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하고 인도하기 위해 '계약농업'의 의의와 역할, 형식 등을 소개하고 각 지역 사정에 맞게 규범화하여 계약이행률을 제고할 것을 강조
200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제2차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關於公布第二批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名單的通知》(農經發[2002]14號) · 《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暫行辦法》에 근거하여 235개 국가중점 '용두기업' 선정
2004.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제3차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선도기업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關於公布第二批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名單的通知》(農經發[2004]5號) · 《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暫行辦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210개 국가중점 '용두기업' 선정
2005.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21개 기업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선도기업 추가 선정 공포에 관한 통지關於公布21家企業遞補爲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的通知》(農經發[2005]8號) · 《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暫行辦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21개 기업을 추가로 국가중점 '용두기업'으로 선정
2006.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농업산업화 경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快發展農業產業化經營的意見》(農發[2006]6號) ·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 동안의 5가지 농업산업화 발전 목표,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의 8가지 중요 업무, 농업산업화 경영에 대한 재정, 투자, 세수, 금융, 수출 방면의 지원 내용을 명시
2008.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제4차 농업산업화 국가중점 용두기업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關於公布第二批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名單的通知》(農經發[2008]3號) · 《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暫行辦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312개 국가중점 '용두기업' 선정

중국 정부의 ‘농업산업화’ 정책은 농식품 ‘용두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업부를 포함한 9개 부처는 2001년 6월 공동명의로 발표한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 인증 및 운영모니터링 관리 잠행방법》(農經發[2001]4號)에서 국가중점 ‘용두기업’의 선정 지표, 신청 및 인증 절차와 방법, 모니터링 실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2000년 10월 국가중점 ‘용두기업’ 151개를 선정한 데 이어 2009년 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929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의 국가중점 ‘용두기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 투자, 세수우대, 금융, 수출방면에 걸쳐 있다. 농업부를 비롯한 8개 부처의 공동명의로 2000년 10월 발표된 《농업산업화경영 중점 선도기업 지원에 관한 의견》(農經發[2000]8號)에 나타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 상업은행²¹은 국가중점 ‘용두기업’을 대상으로 농가와 연계된 생산단지 조성 및 기술개발 투자 항목에 대해 저금리 신용대출을 확대한다. 식량, 면화 등 주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대형 가공기업의 원료 구매 시 기업과 생산기지 농가 간 계약내용을 토대로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국가중점 ‘용두기업’이 대규모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와 연계하여 ‘기업+생산단지+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 조성 등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셋째, 기업과 농가 간 다양한 형식의 위험공동부담 기제를 확립하고 계약(contract) 등의 방식으로 안정적인 구매 및 판매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련 재정, 세수정책과 제도에 근거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재배업, 축산업 및 농림수산물 1차 가공업에 종사하는 국가중점 ‘용두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기술 개발과 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다섯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을 개척하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국가중점 ‘용두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중앙대외무역발전기금’ 사용 조

21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은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 중국농업은행(中國農業銀行), 중국은행(中國銀行), 중국건설은행(中國建設銀行)임.

건에 부합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수출시 용자를 실시하고, 국유 상업은행도 수출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출해주도록 한다. 국가 신기술 항목에 부합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설비의 수입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산업화’ 정책은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년)의 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 업무 등을 망라하고 있는 《농업산업화경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農發[2006]6號)에 잘 나타나 있다. 《의견》은 2006~2010년 기간 동안 ①‘용두기업’ 육성, ②농산물 가공수준 제고, ③브랜드 육성, ④생산자조직 및 농민의 ‘농업산업화경영’ 참여 확대, ⑤농산물 원료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 5가지의 ‘농업산업화’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1) ‘용두기업’ 육성: 옥수수 가공제품, 유제품, 육류제품, 과일, 채소 등 이미 기초가 확립된 분야부터 경쟁력이 강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용두기업’을 육성한다. 대·중·소형 ‘용두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연간 매출액 100억 위안 및 50억 위안을 초과하는 ‘용두기업’을 다수 육성한다.

(2) 농산물 가공수준 제고: 농산물 심층가공 비중을 현저히 증가시켜 가치사슬을 연장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산물 가공률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농산물 브랜드 육성: 국제 및 국내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표준화체계를 마련하여 농산물 품질안전과 생산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고품질·고효율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유명브랜드 상품을 육성한다. 국가급 및 성급 중점 ‘용두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은 녹색식품 표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100개 이상의 유명 브랜드를 육성한다.

(4) 생산자조직 및 농민의 ‘농업산업화경영’ 참여 확대: 다수의 전문협동조합과 중개조직을 발전시켜 기업과의 이익배분 및 경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민들의 시장진입의 조직화 정도를 제고한다. 많은 농민들이 ‘농업산업화경영’ 영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로부터 얻는 소득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5) 농산물 원료 생산단지 조성 확대: 다수의 고품질 전용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용두기업’의 가공수요를 충족시

키며, 농가들의 표준화 생산수준을 제고한다.

《의견》은 또한 ‘농업산업화경영’ 시스템 완비, ‘용두기업’ 산업클러스터 시범기지 육성, 각종 중개조직의 발전 촉진, 농산물 품질 수준 제고, 과학 기술 수준 제고, 국내외시장 개척,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실현 등을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중점 추진 업무로 제시하였다.

중국의 ‘농업산업화’ 정책은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통합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과 농가를 연계하고 계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조직의 조직화를 수반한다. 중국에서 ‘농업산업화경영’ 과정에서 농가와 파트너가 되는 조직, 즉 계열화 주체는 ‘용두기업’, 중개조직(전문 협동조합, 품목협회 등), 전문시장(주로 도매시장)이 대표적이다.

표 3-6. 중국의 ‘농업산업화경영’ 조직 발전 추이

구 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조직 수(만 개)	11,824 (100.0)	66,000 (100.0)	114,000 (100.0)	201,500 (100.0)
· ‘용두기업’	5,381 (45.5)	27,000 (41.0)	49,700 (43.6)	81,500 (40.5)
· 중개조직	3,384 (28.6)	22,000 (33.0)	41,500 (36.4)	84,000 (41.7)
· 전문시장	1,450 (12.3)	7,600 (12.0)	10,600 (9.3)	36,000 (17.9)
참여 농가(만 호)	1,995 (10.0)	5,961 (25.0)	8,454 (30.5)	9,808 (39.2)
참여 농가의 평균 소득 증가액(위안)	n.a.	947	1,201	1,797

주: 참여 농가의 괄호 안 숫자는 중국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王新陽. 2008. 「農業産業化問題研究－以威海市爲例」山東大學碩士學位; 農業部 中國農業信息网(<http://www.agri.gov.cn/>)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농업산업화경영’ 조직은 1996년 1.2만 개에서 2008년 20.2만 개로 연평균 26.5% 증가하였다. 연계된 농가의 수는 같은 기간 1,995만 호에서 9,808만 호로 연평균 14.2% 증가하였

다. 중국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0%에서 39.2%로 증가하여 ‘농업산업화’ 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제약과 자본주의적 농업협동조합 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규범화된 협동조합의 발전이 매우 미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농식품 ‘용두기업’을 주축으로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계열화하는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킨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다만 ‘농업산업화경영’ 조직은 초기에 ‘용두기업’이 주도하던 양상에서 벗어나 점차 중개조직의 역할이 증가하여 현재는 ‘용두기업’과 중개조직이 동시에 주도하는 국면이 형성되었다. 1996년 전체 ‘농업산업화경영’ 조직의 45.5%에 달했던 ‘용두기업’은 2008년 40.5%로 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개조직은 같은 기간 28.6%에서 41.7%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7월 1일 『농민전업합작사법農民專業合作社法』(2006.10.31 제정) 시행을 계기로 협동조합의 제도적이고 규범화된 발전이 촉진되어 대표적인 중개조직인 협동조합이 점차 중국 ‘농업산업화경영’의 주력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농업산업화경영’ 조직이 농가와 연결되는 주요 형태, 즉 이익분배 형태는 계약(contract), 주식합작제(stock cooperative system), 합작제(cooperative system)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계약관계는 조직 내부의 이익주체들이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분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식합작제는 농가가 주식 지분을 가지고 조직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참여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시스템이다. 합작제는 농가가 조직을 설립하고 회원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가운데 계약관계가 5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6.4%는 주문계약(order form)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22 湖南省鄉鎮企業局(<http://www.hnai.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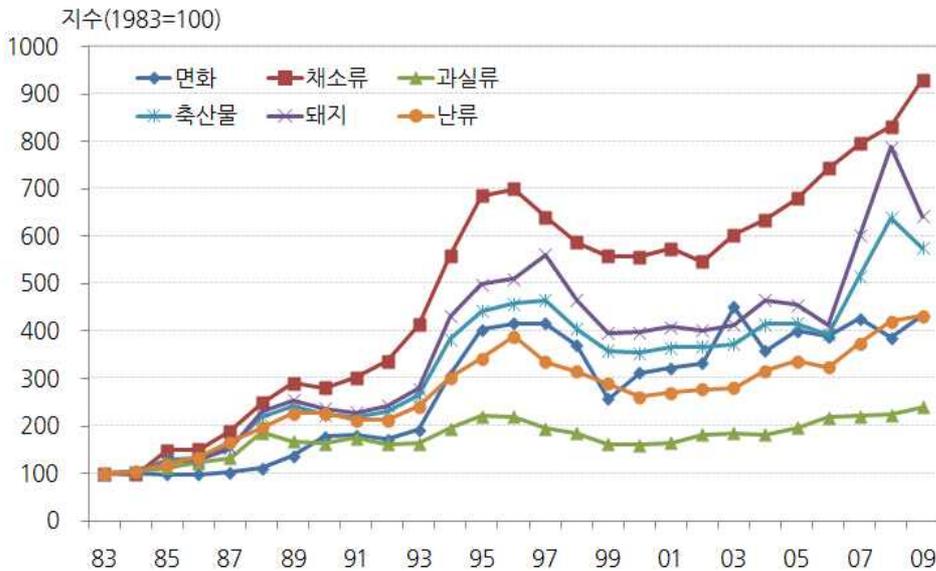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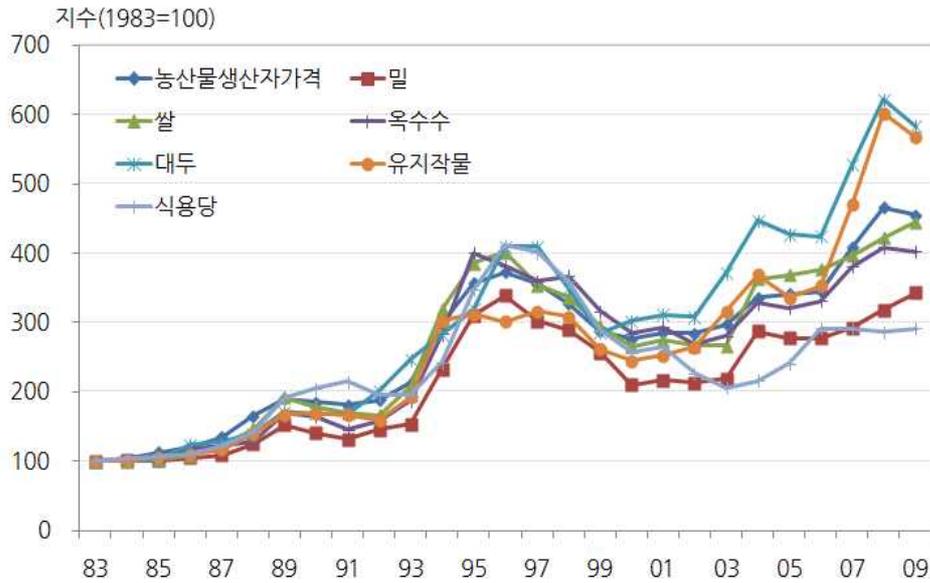
1. 가격 및 수익성 요인

중국의 농산물 생산자가격지수는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1990년대 초반 하락하였으나 중반에 급격히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격 변화 패턴은 식량작물, 과실류, 채소류, 유지작물, 축산물 등 모든 농산물에서 예외 없이 나타났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식량작물을 포함해 모든 농산물의 생산자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유지작물, 축산물 및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1983~2009년 동안 채소류와 축산물, 유지작물(대두)의 가격은 각각 연평균 9.0%, 7.0%, 6.9% (7.0%) 상승하였다. 반면 3대 식량작물인 쌀, 옥수수, 밀은 각각 5.9%, 5.5%, 4.9% 상승하였다. 과실류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연평균 상승률이 3.4%에 불과하였다.

농산물의 가격변화는 농작물의 작부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작물 중 생산자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채소류는 1980년대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1.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가격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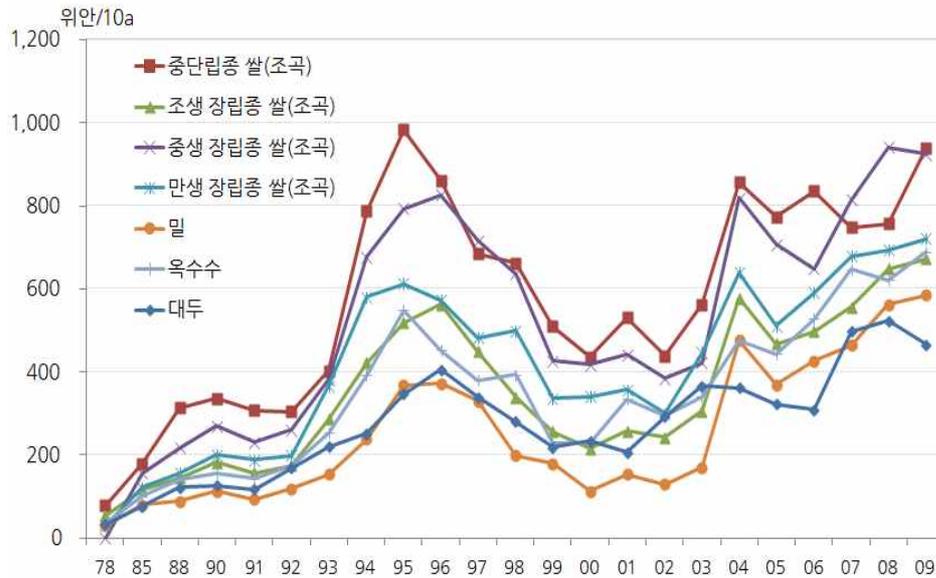


주: 2000년 이전 지수는 수매가격지수를 나타냄.

자료: 農業部, 2010中國農業發展報告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가격하락 국면에서도 재배 면적과 생산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채소류와 더불어 생산자가격 상승폭이 큰 축산물도 사육두수와 육류 및 가금육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식량작물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가격 상승 국면에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이후 가격 하락 국면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단, 과일류는 생산자가격 변화와 재배면적 변화간 인과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생산자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음에도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크게 증가했으며, 1990년대 중반 가격하락 국면에서도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증가하였다.

그림 4-2. 중국의 주요 농산물 10a당 현금수익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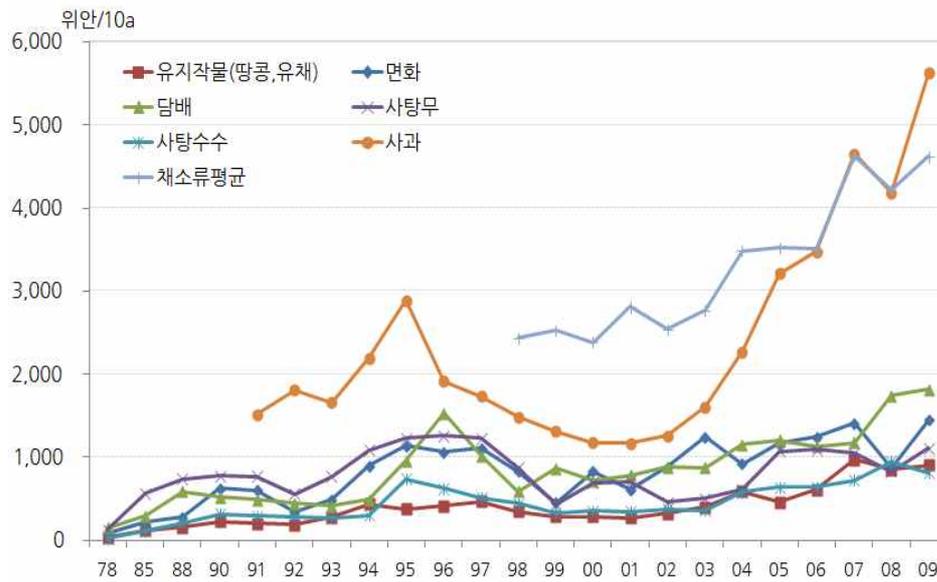


자료: 農業部, 2010中國農業發展報告

한편 작물의 재배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소류와 과일류는 단위면적당 수익이 다른 작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높은 수익성은 농민들의 재배의 적극성을 자극하여 작목선택에 영향을 미

쳐 결과적으로 농작물 작부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1990년대 중반 최고 가격상승 국면에서 3대 식량작물과 사과, 사과의 수익 격차는 약 5배 정도였다. 2000년대 초반 최고 가격하락 국면에서도 약 5배의 차이가 났다. 채소류와는 약 10배의 수익 차이가 발생하였다. 식량작물에 비해 채소류와 과실류의 수익성 증대는 결과적으로 이들 품목의 재배면적 확대를 초래했고 생산량 증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중국의 주요 농산물 10a당 현금수익 변화 추이(계속)



자료: 農業部, 2010中國農業發展報告

2. 소비 요인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소비 패턴도 소득탄력성이 작은 곡류의 소비가 감소하고 육류와 채소, 과일 등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였다. 1985~2009년 동안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은 농촌지역은 257kg에서 189.3kg, 도시지역은 134.8kg에서 81.3kg으로 감소하였다. 채소 소비량은 농촌지역의 경우 감소 추세이지만 도시지역은 1990년대 말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일 소비량도 도시지역의 경우 41.1kg에서 57kg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육류 소비는 도시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가금육 소비는 도시와 농촌 모두 증가 추세이다.

채소, 과일,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들 품목의 생산 증대를 촉진하여 결국 농작물 작부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육류, 채소, 과일 등의 1인당 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 증대는 앞으로도 중국의 농작물 작부구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표 4-1. 중국의 도시 및 농촌 주민 1인당 식품소비량 변화 추이

단위: kg/년

연도	곡류		채소(과일)		식용유		육류		가금육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1985	257.0	134.8	131.1	144.4(41.1)	4.0	5.8	11.0	18.7	1.0	3.2
1990	262.1	130.7	134.0	138.7	5.2	6.4	11.3	21.7	1.3	3.4
1995	260.1	97.0	104.6	118.6	5.8	7.6	11.3	19.7	1.8	4.0
2000	249.5	82.3	112.0	114.7	7.1	8.2	14.6	20.1	2.9	7.4
2005	208.8	77.0	102.3	118.6	6.0	9.3	17.1	23.9	3.7	9.0
2009	189.3	81.3	98.4	123.2(57.0)	6.3	10.3	15.3	24.2	4.2	10.5

주: 식용기준이며 괄호 안은 과일 소비량, 육류는 돼지고기·양고기·소고기를 포함함.

자료: 農業部. 2010中國農業發展報告

3. 정책 요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개혁개방 이전의 단일한 농업생산구조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여 식량작물과 경제작물(특용작물)의 동시 발전, 재배업·임업·축산업·어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였다. 최근에는 농산물의 수급균형 유지 및 농산물 잉여 축적의 기초 위에서 지역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작물의 생산지역 배치를 조정하고, 다수확·고품질·고효율·친환경·안전성 요구에 따라 집약화·산업화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농업성장 단계별로 추진된 농업구조조정정책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농작물 작부구조에서 원예작물(특히 채소류)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1990년대부터 농업구조조정정책과 함께 추진된 ‘채람자공정’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중국 농업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곡물의 제외한 육류와 채소, 과일류 등 부식물의 공급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988년 부식물의 생산증대와 수급안정을 목표로 채람자공정(Vegetable Basket Projects)을 추진하였다. 1988년 이후 제1기(1988~1994년), 2기(1995~1999년), 3기(2000~2009년)에 이어 2010년부터 4기 채람자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1998~2003년 동안 식량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연속적으로 감소한 데 자극을 받아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량증산정책은 감소 추세에 있던 식량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증가 추세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 정부는 농민들의 식량생산의 적극성을 유인하기 위해 식량직불제, 농자재종합직불제 등 소득보조정책과 함께 식량최저수매가격제도를 실시하여 식량증산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요강(2008~2020년)’을 제정하여 95%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제시하고 경지면적을 최소한 1.2억ha 이상 유지하며 식량성장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전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계획(2009~2020년)’을 제정하여 2020년까지 5,000만 톤의 식량을 증산하고, 경지면적을 1.2억ha 이상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핵심지역(동북지역, 황회해지역, 장강유역), 대규모 식량 생산 현(縣), 예비지역, 기타지역을 지정하여 생산량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식량증산에 대한 성장(省長)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식량작물의 재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1. 중국의 농산물 교역

1.1. 교역 현황 및 특징²³

1.1.1. 교역규모 확대, 수출기여도 하락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002~2010년 동안 농산물 교역액이 304.3억 달러에서 1,208.0억 달러로 연평균 18.8% 증가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1979~2001년 동안 100억 달러에서 279억 달러로 연평균 4.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WTO 가입 이후 농산물 교역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농산물 교역은 수출

23 중국의 농산물 교역관련 통계는 대외무역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부(商務部)가 생산하는 통계와 농업관련 주무부처인 농업부(農業部)가 생산하는 통계로 구분됨. 상무부의 농산물 교역 통계는 “해관수출입세칙海關進出口稅則”상의 HS 01류~24류와 HS 290543~290544, HS 3301, HS 3501~3505, HS 38091, HS 38246, HS 4101~4102, HS 4103, HS 4301, HS 5001~5003, HS 5101~5103, HS 5201~5203, HS 5301~5302 품목의 해관(海關) 수출입 통계를 토대로 작성됨. 한편 농업부 통계는 농산물 종류를 20개로 대분류하고 각 종류별로 “해관수출입세칙海關進出口稅則”상의 HS-4단위 세번 품목을 정의한 데 기초하여 해관(海關) 수출입 통계를 토대로 작성됨(중국농업동향 제4권 제1호 참조).

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 이후 중국은 농산물 순수입국이 되었다. 2002~2010년 동안 농산물 수출액은 180.2억 달러에서 488.8억 달러로 연평균 13.3%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24.1억 달러에서 719.0억 달러로 연평균 24.6% 증가하였다.

표 5-1. 중국의 농산물 교역액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총액	2,661	3,256	4,382	5,933	7,620	9,689	12,178	14,307	12,017	15,779
-농산물 ¹	161	180	212	231	272	310	366	402	392	489
-HS01류~24류 ²	155	174	207	225	265	302	355	389	383	476
수입총액	2,436	2,952	4,128	5,612	6,600	7,915	9,560	11,326	10,056	13,948
-농산물 ¹	118	124	189	280	287	320	410	583	522	719
-HS01류~24류 ²	98	103	155	218	222	236	332	504	463	610
수출입총액	5,097	6,208	8,510	11,546	14,219	17,604	21,737	25,633	22,072	29,728
-농산물 ¹	279	304	401	511	558	630	776	986	914	1,208
-HS01류~24류 ²	252	277	362	442	487	539	687	893	845	1,086
무역수지	226	304	255	321	1,020	1,775	2,618	2,981	1,961	1,831
-농산물 ¹	42	56	24	-49	-15	-10	-44	-181	-130	-230
-HS01류~24류 ²	57	71	51	7	43	66	23	-116	-80	-134

주 1. 중국 상무부가 생산하는 농산물 교역 통계임.

2. “해관수출입세칙海關進出口稅則”상의 01章~24章에 속하는 품목을 의미함.

자료: 商務部.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農產品. 2010年12月; 國家統計局. 2010年中國統計年鑒; 國家統計局. 2010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2011.2.28)

중국의 전체 수출입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5.5%에서 2010년 4.1%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출 비중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전체 수출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6.1%에서 3.1%로 감소하여 중국 농산물의 수출기여도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수출과 달리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수입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8%에서 5.2%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UN comtrade 통계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중국의 HS 01류~24류 교역총액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로 세계 HS 01류~24류

교역총액의 4.7%를 차지하였다. 이는 WTO 가입 직후인 2001년 2.8%에 비해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세계 HS 01류~24류 수입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1%에서 2009년 5.3%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현재 중국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의 농산물 수입 대국이 되었다. 세계 HS 01류~24류 수출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4%에서 2009년 4.2%로 소폭 증가하였다. 2009년 현재 중국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브라질에 이어 세계 6위의 농산물 수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1.1.2. 농산물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

가. 수출시장

2010년도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은 아시아지역으로 전체 수출시장의 59.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유럽 18.0%, 북미 13.5%, 아프리카 3.7%, 남미 3.3%, 오세아니아 1.8% 순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아시아시장은 줄곧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비중은 2002년 72.5%에서 2010년 59.8%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유럽, 북미,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시장의 비중은 2002년 12.8%, 10.0%, 2.5%, 1.3%, 0.9%에서 2010년 18.0%, 13.5%, 3.7%, 3.3%, 1.8%로 증가하여 중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도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대상국은 일본으로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18.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11.8%, 홍콩 8.7%, 한국 7.2%, 인도네시아 3.6%, 독일 3.6% 순이다. 일본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줄곧 최대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 시장의 비중은 2001년 35.8%에서 2010년 18.7%로 크게 감소하였다. 일본과 같은 아시아시장에 속한 홍콩과 한국 시장의 비중도 2001년 11.8%, 10.2%에서 2010년 8.37%, 7.2%로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11.8%로 증가하였으며, 독일 시장의 비중도 소폭 증가하였다.

표 5-2.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 상위 11개국의 수출액과 비중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총액	159.8	180.2	212.4	230.9	271.8	310.3	366.2	402.2	392.1	488.8
일본	57.2 (35.8)	57.2 (31.7)	60.4 (28.5)	73.9 (32.0)	79.3 (29.2)	82.1 (26.5)	83.5 (22.8)	77.0 (19.1)	76.9 (19.6)	91.5 (18.7)
미국	12.2 (7.6)	16.3 (9.0)	20.5 (9.7)	23.2 (10.0)	28.4 (10.4)	37.8 (12.2)	43.8 (12.0)	47.0 (11.7)	51.2 (13.1)	57.8 (11.8)
홍콩	18.9 (11.8)	20.6 (11.4)	22.1 (10.4)	26.0 (11.3)	26.4 (9.7)	26.4 (8.5)	30.5 (8.3)	35.6 (8.8)	34.4 (8.8)	42.8 (8.7)
한국	16.4 (10.2)	20.4 (11.3)	25.6 (12.1)	21.2 (9.2)	28.5 (10.5)	28.5 (9.2)	36.0 (9.8)	28.3 (7.0)	31.7 (8.1)	35.3 (7.2)
인도네시아	2.8 (1.8)	5.3 (2.9)	5.4 (2.5)	4.5 (2.0)	4.2 (1.6)	6.1 (2.0)	9.0 (2.5)	8.4 (2.1)	10.5 (2.7)	17.8 (3.6)
독일	5.0 (3.1)	4.9 (2.7)	6.1 (2.9)	6.8 (2.9)	9.3 (3.4)	11.0 (3.5)	13.7 (3.7)	14.9 (3.7)	16.4 (4.2)	17.4 (3.6)
말레이시아	3.7 (2.3)	5.7 (3.2)	6.7 (3.2)	5.3 (2.3)	6.9 (2.5)	8.5 (2.7)	10.5 (2.9)	12.3 (3.0)	11.9 (3.0)	16.8 (3.4)
러시아	2.5 (1.5)	4.4 (2.5)	5.7 (2.7)	5.9 (2.6)	7.3 (2.7)	8.8 (2.9)	12.2 (3.3)	14.4 (3.6)	11.9 (3.0)	15.4 (3.1)
베트남	1.0 (0.7)	1.9 (1.1)	3.2 (1.5)	2.4 (1.0)	3.1 (1.1)	3.5 (1.1)	4.7 (1.3)	7.1 (1.8)	9.4 (2.4)	13.5 (2.8)
태국	1.1 (0.7)	1.7 (0.9)	2.2 (1.0)	2.5 (1.1)	3.0 (1.1)	3.6 (1.2)	5.2 (1.4)	8.6 (2.1)	7.3 (1.9)	11.9 (2.4)
대만	1.6 (1.0)	2.9 (1.6)	2.7 (1.3)	3.1 (1.3)	3.6 (1.3)	4.2 (1.4)	6.1 (1.7)	7.4 (1.8)	8.0 (2.0)	11.6 (2.4)
네덜란드	3.9 (2.4)	3.0 (1.7)	3.6 (1.7)	4.1 (1.8)	5.4 (2.0)	7.7 (2.5)	9.9 (2.7)	10.0 (2.5)	9.2 (2.3)	10.8 (2.2)
소 계	126.3 (79.0)	144.3 (80.0)	164.2 (77.3)	178.9 (77.5)	205.4 (75.6)	228.2 (73.5)	265.1 (72.4)	271.0 (67.4)	278.8 (71.1)	342.4 (70.0)

주: () 안의 수치는 각 연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商務部. 中國農產品進出口月度統計報告(각 연도 12월)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아세안FTA(CAFTA)와 중국-대만 ECFA 체결로 아세안시장과 대만시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비중은 2001년 1.8%에서 2010년 3.6%로 증가하여 제5위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이 외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시

장의 비중도 2001년 2.3%, 0.7%, 0.7%, 1.0%에서 2010년 3.4%, 2.8%, 2.4%, 2.4%로 증가하였다.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전체 농산물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시장의 집중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1~2010년 동안 수출대상국 집중도지수(CR_k)는 CR₂(47.6%→30.5%), CR₃(57.8%→39.2%), CR₅(68.5%→50.0%), CR₁₀(76.1%→65.5%) 모두 감소하였다.

표 5-3. 중국의 농산물 수출대상국 집중도 변화 추이

연도	수출액 점유율(%)						집중도 지수			
	일본	미국	홍콩	한국	독일	인도네시아	CR ₂	CR ₃	CR ₅	CR ₁₀
2001	35.8	7.6	11.8	10.2	3.1	1.8	47.6	57.8	68.5	76.1
2002	31.7	9.0	11.4	11.3	2.7	2.9	43.1	54.4	66.6	75.5
2003	28.5	9.7	10.4	12.1	2.9	2.5	40.6	51.0	63.9	73.7
2004	32.0	10.0	11.3	9.2	2.9	2.0	43.3	53.3	65.4	74.2
2005	29.2	10.4	9.7	10.5	3.4	1.6	39.7	50.1	63.2	72.6
2006	26.5	12.2	8.5	9.2	3.5	2.0	38.7	47.9	59.9	70.3
2007	22.8	12.0	8.3	9.8	3.7	2.5	34.8	44.6	56.6	68.2
2008	19.1	11.7	8.8	7.0	3.7	2.1	30.8	39.6	50.3	63.3
2009	19.6	13.1	8.8	8.1	4.2	2.7	32.7	41.5	53.8	66.4
2010	18.7	11.8	8.7	7.2	3.6	3.6	30.5	39.2	50.0	65.5

자료: 商務部. 中國農產品進出口月度統計報告(각 연도 12월)

나. 수입시장

2010년도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시장은 북미지역으로 전체 수입시장의 30.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남미 27.1%, 아시아 22.5%, 유럽 9.5%, 오세아니아 8.6%, 아프리카 2.2% 순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북미 시장은 줄곧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비중은 2004년 32.7%에서 2010년 30.1%로 다소 감소하였

다.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시장의 비중도 같은 기간 각각 11.5%에서 8.6%, 3.3%에서 2.2%로 감소하였다. 반면 동기간 남미 시장은 23.6%에서 27.1%, 아시아 시장은 19.7%에서 22.5%, 유럽 시장은 9.2%에서 9.5%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5-4.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 상위 12개국의 수입액과 비중 변화

단위: 억 달러,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 총액	279.7 (100.0)	286.5 (100.0)	319.9 (100.0)	409.7 (100.0)	583.3 (100.0)	521.7 (100.0)	719.0 (100.0)
미국	76.9 (27.5)	67.2 (23.5)	75.9 (23.7)	91.3 (22.3)	140.0 (24.0)	140.0 (26.8)	186.1 (25.9)
브라질	28.5 (10.2)	30.1 (10.5)	38.0 (11.9)	48.2 (11.8)	87.9 (15.1)	84.4 (16.2)	107.2 (14.9)
아르헨티나	27.0 (9.7)	29.9 (10.4)	24.1 (7.5)	51.8 (12.6)	84.2 (14.4)	34.9 (6.7)	57.0 (7.9)
호주	24.4 (8.7)	24.1 (8.4)	23.2 (7.3)	26.1 (6.4)	29.3 (5.0)	24.9 (4.8)	39.3 (5.5)
말레이시아	14.4 (5.1)	13.4 (4.7)	17.1 (5.3)	30.2 (7.4)	40.6 (7.0)	29.7 (5.7)	34.3 (4.8)
캐나다	14.4 (5.1)	11.5 (4.0)	8.1 (2.5)	12.5 (3.1)	17.6 (3.0)	26.5 (5.1)	30.0 (4.2)
인도네시아	8.8 (3.1)	9.2 (3.2)	12.5 (3.9)	18.1 (4.4)	26.3 (4.5)	22.5 (4.3)	29.1 (4.0)
인도	2.7 (1.0)	4.0 (1.4)	11.6 (3.6)	12.9 (3.1)	16.1 (2.8)	9.3 (1.8)	25.4 (3.5)
태국	9.8 (3.5)	9.8 (3.4)	12.9 (4.0)	13.5 (3.3)	11.9 (2.0)	17.6 (3.4)	24.3 (3.4)
뉴질랜드	7.9 (2.8)	7.1 (2.5)	7.3 (2.3)	8.3 (2.0)	10.2 (1.7)	13.5 (2.6)	22.1 (3.1)
프랑스	3.9 (1.4)	6.8 (2.4)	6.8 (2.1)	11.2 (2.7)	14.3 (2.5)	12.3 (2.4)	16.4 (2.3)
러시아	8.5 (3.0)	11.5 (4.0)	12.9 (4.0)	14.4 (3.5)	13.3 (2.3)	12.9 (2.5)	13.9 (1.9)
소 계	227.2 (81.2)	224.6 (78.4)	250.4 (78.3)	324.1 (79.1)	491.7 (84.3)	428.5 (82.1)	585.1 (81.4)

주: () 안의 수치는 각 연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商務部. 中國農產品進出口月度統計報告(각 연도 12월)

2010년도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대상국은 미국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25.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브라질 14.9%, 아르헨티나 7.9%, 오스트레일리아 5.5%, 말레이시아 4.8%, 캐나다 4.2%, 인도네시아 4.0%, 인도 3.5%, 태국 3.4%, 뉴질랜드 3.1% 순이다. 수입액 1~3위 국가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최대 수입 품목인 대두의 주요 수출국이다.

표 5-5. 중국의 농산물 수입대상국 집중도 변화 추이

연도	수입액 점유율(%)						집중도 지수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CR ₂	CR ₃	CR ₅	CR ₁₀
2004	27.5	10.2	9.7	5.1	5.1	8.7	37.7	47.3	61.2	78.9
2005	23.5	10.5	10.4	4.7	4.0	8.4	34.0	44.4	57.5	74.6
2006	23.7	11.9	7.5	5.3	2.5	7.3	35.6	43.1	55.7	72.5
2007	22.3	11.8	12.6	7.4	3.1	6.4	34.9	46.7	60.4	76.7
2008	24.0	15.1	14.4	7.0	3.0	5.0	39.1	53.5	65.5	79.1
2009	26.8	16.2	6.7	5.7	5.1	4.8	43.0	49.7	60.5	78.0
2010	25.9	14.9	7.9	4.8	4.2	5.5	40.8	48.7	59.0	81.4

자료: 商務部. 中國農產品進出口月度統計報告(각 연도 12월)

1.1.3. 중국내 농산물 수출입지역의 편중

2010년도 중국 내 최대 농산물 수출지역은 산둥성으로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26.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광둥성 11.6%, 복건성 10.1%, 절강성 7.5%, 요녕성 7.3% 순이다. 중국내 농산물 수출지역은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산둥성, 광둥성, 복건성, 절강성, 요녕성 5개 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 지역으로 모두 연해지역에 위치하여 수출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2001년 이후 5개 성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곧 59~65%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집중도가 매우 높다. 특히 산둥성과 광둥성은 각각 부동의 1,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개 성이 전국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9%에 달한다.

표 5-6.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 상위 10개 성·직할시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1년				2010년			
	지역	수출액	비중	누적비율	지역	수출액	비중	누적비율
1	산둥성	3,546.4	22.2	22.2	산둥성	12,705.4	26.0	24.9
2	광둥성	2,345.9	14.7	36.9	광둥성	5,671.7	11.6	37.6
3	절강성	1,515.1	9.5	46.4	북건성	4,958.2	10.1	47.7
4	북건성	1,241.3	7.8	54.1	절강성	3,666.8	7.5	55.2
5	요녕성	1,233.5	7.7	61.9	요녕성	3,590.3	7.3	62.6
6	북경시	721.1	4.5	66.4	강소성	2,521.8	5.2	67.7
7	길림성	720.7	4.5	70.9	상해시	1,489.3	3.0	70.8
8	강소성	628.0	3.9	74.8	운남성	1,307.3	2.7	73.5
9	상해시	585.6	3.7	78.5	하북성	1,229.5	2.5	76.0
10	하북성	435.9	2.7	81.2	호북성	1,085.1	2.2	78.2
	전국 합계	15,975.1	100.0		전국 합계	48,883.2	100.0	

자료: 商務部. 中國農產品進出口月度統計報告(2001년 12월, 2010년 12월)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중국 내 최대 농산물 수입지역은 산둥성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17.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광둥성 13.6%, 강소성 12.7%, 북경시 11.6%, 상해시 10.8% 순이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지역 편중이 심하다. 산둥성, 광둥성, 강소성, 상해시, 북경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수입지역이다.

2001년 이후 이들 5개 성·직할시가 전국 농산물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66~72%를 유지하여 집중도가 높다. 특히 산둥성과 광둥성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수입액의 비중이 부동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38%에 달한다. 대표적인 대규모 소비시장인 북경시는 2004년 중국 최대의 농산물 수입지역이었으나 점차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또 다른 대규모 소비시장인 상해시와 강소성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

표 5-7.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 상위 10개 성·직할시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1년				2010년			
	지역	수입액	비중	누적비율	지역	수입액	비중	누적비율
1	북경시	5,952.6	21.3	21.3	산둥성	12,362.9	17.2	17.2
2	광둥성	4,572.8	16.3	37.6	광둥성	9,789.6	13.6	30.8
3	산둥성	4,408.4	15.8	53.4	강소성	9,119.8	12.7	43.5
4	강소성	2,796.8	10.0	63.4	북경시	8,305.4	11.6	55.0
5	상해시	2,276.0	8.1	71.5	상해시	7,759.6	10.8	65.8
6	요녕성	1,530.3	5.5	77.0	절강성	4,172.6	5.8	71.6
7	절강성	1,364.9	4.9	81.9	천진시	3,428.3	4.8	76.4
8	북건성	1,046.1	3.7	85.6	북건성	3,274.0	4.6	81.0
9	천진시	924.0	3.3	88.9	요녕성	3,019.4	4.2	85.2
10	하북성	622.1	2.2	91.1	하북성	2,162.3	3.0	88.2
	전국 합계	27,972.9	100.0		전국 합계	71,903.7	100.0	

자료: 商務部. 中國農產品進出口月度統計報告(2001년 12월, 2010년 12월)

표 5-8. 중국내 지역별 농산물 수입액 집중도 변화 추이

연도	수입액 점유율(%)					집중도 지수		
	산둥성	광둥성	강소성	상해시	북경시	CR ₂	CR ₅	CR ₁₀
2004	15.8	16.3	10.0	8.1	21.3	37.6	71.5	91.1
2005	17.5	13.5	10.8	10.0	18.0	35.5	69.9	91.1
2006	18.8	14.8	12.2	10.4	13.5	33.7	69.8	90.8
2007	16.2	15.2	13.7	12.4	10.9	31.5	68.4	90.7
2008	15.1	14.2	10.4	12.0	16.3	31.4	68.0	90.4
2009	16.1	15.3	12.8	11.9	9.8	31.4	65.9	88.2
2010	17.2	13.6	12.7	10.8	11.6	30.8	65.8	88.2

자료: 商務部. 中國農產品進出口月度統計報告(각 연도 12월)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내 농산물 수입의 지역집중도는 수출에 비해 높아 농산물 수입액 상위 10개 성·직할시의 집중도지수 CR10가 90% 수준이다. 그러나 수입지역의 집중도지수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다. 2004~2010년 동안 농산물 수입액 상위 2개 성의 집중도지수 CR₂는 37.6%에서 30.8%, 상위 5개 성의 집중도지수 CR₅는 71.5%에서 65.8%, 상위 10개 성의 집중도지수 CR₁₀도 91.1%에서 88.2%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 내 농산물 수입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1.4. 농산물의 국영무역 비중 감소

2010년도 중국의 농산물 수출기업 유형별 수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사영기업(민간기업)이 219.4억 달러로 44.9%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외자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이 187.1억 달러로 38.3%, 국유기업이 65.8억 달러로 13.5%를 차지하였다.

표 5-9. 중국의 농산물 수출기업 유형별 수출입액 및 비중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

	2004		2006		2008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합 계	230.9	279.8	310.3	319.8	402.2	583.4	488.8	719.0
국유기업	71.2 (30.9)	117.3 (41.9)	67.3 (21.7)	96.1 (30.0)	70.8 (17.6)	159.7 (27.4)	65.8 (13.5)	167.9 (23.4)
외자투자기업	100.5 (43.5)	99.3 (35.5)	134.3 (43.3)	135.2 (42.3)	171.3 (42.6)	269.3 (46.2)	187.1 (38.3)	301.7 (42.0)
- 중외합작	8.9	5.8	8.7	3.9	8.9	4.3	9.3	4.4
- 중외합자	53.1	47.7	68.6	54.9	88.5	98.5	95.8	100.8
- 외자독자	38.6	45.8	57.1	76.5	73.9	166.5	82.0	196.5
집단지업	12.4 (5.4)	23.4 (8.4)	14.1 (4.6)	22.2 (6.9)	14.9 (3.7)	28.4 (4.9)	16.1 (3.3)	29.6 (4.1)
사영기업	46.7 (20.2)	39.7 (14.2)	94.3 (30.4)	66.2 (20.7)	145.0 (36.0)	125.8 (21.6)	219.4 (44.9)	219.3 (30.5)
개인경영기업	0.00	0.00	0.23	0.02	0.33	0.14	0.40	0.42
기타	0.03	0.08	0.00	0.12	0.02	0.08	0.02	0.05

자료: 商務部. 中國農產品進出口月度統計報告(각 연도 12월)

농산물 수입기업 유형별 수입액 비중은 외자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이 301.7억 달러로 42.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영기업(민간기업)이 219.3억 달러로 30.5%, 국유기업이 167.9억 달러로 23.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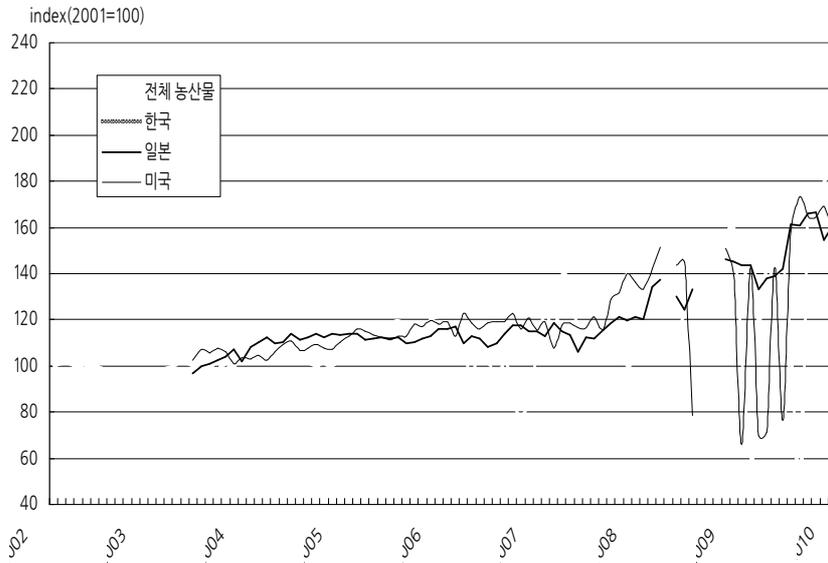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 가운데 국유기업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3.6%에서 2010년에는 13.5%로 줄어든 반면, 사영기업은 동기간 12.2%에서 44.9%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에서 민영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수입액 가운데 국유기업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1.9%에서 2010년에는 23.4%로 줄어든 반면, 사영기업은 동기간 14.2%에서 30.5%로 증가, 외자기업은 동 기간 35.5%에서 42.0%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에서도 민영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이 농산물 수출입을 독점하던 체제는 개혁개방 이후 점차 변화를 겪었지만 농산물 수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까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1년 WTO 가입 이후 대외무역업이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외자기업과 사영기업 등이 대외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농산물 수출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1.1.5. 농산물 수출가격 상승 추세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농산물 수출가격은 2008년 말까지 완만한 상승 추세를 나타냈으나 2009년 초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중후반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대상국의 수출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최대의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가격은 커다란 변동이 없이 2008년까지 완만한 상승 추세를 나타냈으며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가격은 대체적으로 일본과 같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9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변동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으로의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일본, 미국과 상이한 패턴을 보였으며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변동이 매우 심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5-1.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별 농산물 수출가격지수 변화 추이



자료: 商務部. 中國農產品進出口月度統計報告(각 연도 각 월)

1.2.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농산물 교역

무역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요소부존도는 생산구조에 반영되고, 다시 생산구조의 차이가 무역패턴의 차이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농업생산구조는 농산물 교역구조(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생산구조는 소득탄성치(수요측 요인)와 수익성(공급측 요인)이 낮은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득탄력적이고 수익성이 높아 비교우위가 있는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경제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농업총생산액에서 곡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한 반면, 돼지·가금류 등 축산물과 채소류 생산액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표 5-10. 중국의 HS 01류~24류(HS 03류 제외) 수출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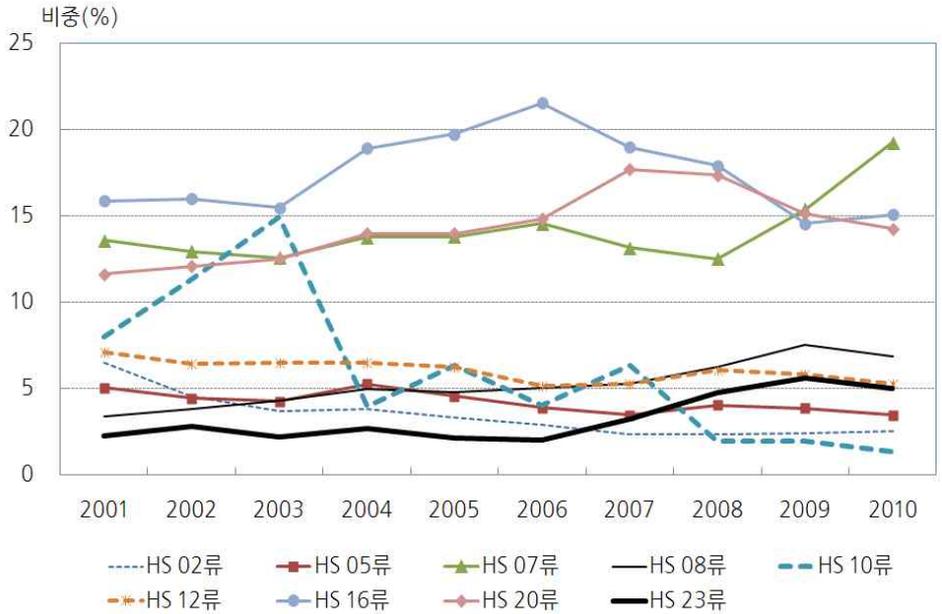
HS 코드	종류	2001	2002	2004	2006	2008	2010	비중
01	산동물	345	344	330	333	507	454	1.2
02	육과 식용설육	842	666	705	747	798	996	2.6
04	낙농품·조란·천연꿀	192	194	234	302	622	405	1.0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653	650	975	995	1,366	1,358	3.5
06	산수목·꽃	35	43	64	105	149	206	0.5
07	채소	1,750	1,883	2,536	3,715	4,223	7,477	19.3
08	과실·견과류	436	555	917	1,281	2,105	2,680	6.9
09	커피·차·향신료	543	552	864	989	1,314	1,657	4.3
10	곡물	1,034	1,651	740	1,039	673	539	1.4
11	제분공업제품	107	118	170	236	541	551	1.4
12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 식물, 사료	914	940	1,197	1,326	2,044	2,048	5.3
13	식물성엑스	67	77	72	155	443	647	1.7
14	기타 식물성생산품	43	44	43	53	66	64	0.2
15	동식물성 유지	118	108	158	391	595	370	1.0
16	육·어류 조제품	2,046	2,327	3,489	5,492	6,038	5,865	15.1
17	당류 및 설탕과자	156	227	252	463	678	1,060	2.7
18	코코아 및 그 제품	28	36	70	124	200	213	0.5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413	455	653	861	993	1,160	3.0
20	채소·과실 조제품	1,499	1,761	2,578	3,784	5,847	5,546	14.3
21	기타 조제식료품	400	460	612	912	1,240	1,562	4.0
22	음료, 주류 및 식초	574	597	743	1,091	861	995	2.6
23	조제사료	296	408	502	516	1,618	1,954	5.0
24	담배	386	434	514	566	743	1,020	2.6
	합 계	12,877	14,530	18,418	25,476	33,664	38,827	100.0

자료: 중국 해관통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입 농산물 품목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변화된 농업생산구조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HS 03류(어패류)를 제외한 HS 01류~24류 품목군 중 최대의 수출

품목군은 HS 07류(채소)로 2001년 17.5억 달러에서 2010년 74.8억 달러로 4.3배 증가하였다.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S 07류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WTO 가입 이전 13.6%에서 2010년 19.3%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 HS 16류(육·어류조제품)를 제치고 최대 수출품목군으로 부상하였다.

그림 5-2. 중국의 HS 01류~24류 중 주요 품목군의 수출액 비중 변화 추이



자료: 중국 해관통계

채소류의 수출 증대와 함께 HS 08류(과실·견과류)의 수출액도 2001년 4.4억 달러에서 2010년 26.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액 증가 속도에서는 오히려 채소류를 능가하였다. HS 08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4%로 전체 23개 품목군 중 10위였으나 2010년에는 6.9%로 4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HS 20류(채소·과실 조제품)도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 농식품으로서 2001년 이후 수출액 순위 3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액 비중은 같은 기간 11.6%에서 14.3%로 증가하였다.

채소류, 과실·견과류, 채소·과실조제품에 이어 중국의 최대 수출농식품 품목군에 포함되는 것은 HS 16류(육·어류조제품)이다. 수출액이 2001년 20.5억 달러에서 2010년 58.7억 달러로 2.9배 증가했다. 그러나 채소류, 과실·견과류, 채소·과실조제품에 비해서는 수출액 증가 속도가 느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5.9%에서 2006년 21.6%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2010년 15.1%를 차지하였다.

<그림 5-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농산물 중 가장 대표적인 3대 수출 품목군은 채소류(HS 07류), 육·어류조제품(HS 16류), 채소·과실조제품(HS 20류)으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41.1%에서 2010년 48.6%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과실·견과류(HS 08류)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44.5%에서 55.5%로 증가하여 이들 품목군의 수출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HS 10류(곡물)와 HS 02류(육과 식용설육)의 수출액 비중 감소 추세이다. 이 중 HS 10류는 2001년 수출액이 10.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4위를 차지했던 대표적인 수출품목군이었다. HS 10류의 수출은 2007년까지 연도별 수출액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 수출액이 감소하여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4%에서 2010년 1.4%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 세계곡물위기 상황에서 2007년 말 중국 정부가 곡물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998년 1억 1,379만ha를 기록한 후 2003년 9,941만ha로 5년 연속 감소하였고, 생산량도 같은 기간 5억 1,230만 톤에서 4억 3,069만 톤으로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78.6%에서 1998년 68.8%, 2003년 60.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식량안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강력한 식량증산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식량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7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63.5%로 다시 증가한 상태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몇 개 연도를 제외하고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였지만 이후 곡물 순수출국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연도별 곡물 순수출량의 변동이 심하긴 했지만 2004년을 제외하고는 곡물 순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식량작물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중국의 곡물 수출은 2007년 이후 순수출량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2004년 이후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이 다시 증가하고는 있지만 매년 증가속도가 완화되고 있어 농작물 작부구조상 식량작물의 비중이 과거 199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구조를 반영하여 앞으로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곡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농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축산업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소비자들의 소득향상에 따른 축산물 소비의 증가로 수출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수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HS 02류(육과 식용설육)와 HS 04류(낙농품·조란·천연꿀)의 수출액은 2001년 10.3억 달러에서 2010년 14.0억 달러로 증가폭이 크지 않는 반면, 수입액은 같은 기간 8.2억 달러에서 42.2억 달러로 5.2배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1년 이후 HS 02류와 HS 04류의 교역에서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순수입량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S 03류(어패류)를 제외한 HS 01류~24류 품목군 중 최대의 수입 품목군은 HS 12류(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 식물, 사료)로 2001년 33.4억 달러에서 2010년 270.5억 달러로 8.1배 증가하였다.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HS 12류가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WTO 가입 이전 39.7%에서 2010년 47.8%로 증가하였다. 이 중 HS 1201(대두) 수입액은 250.8억 달러(수입량은 5,480만 톤)로 전체 HS 12류 수입액의 92.7%를 차지한다. 수입 대두는 주로 식용유와 식품단백질 사료 제조에 사용된다.

표 5-11. 중국의 HS 01류~24류(HS 03류 제외) 수입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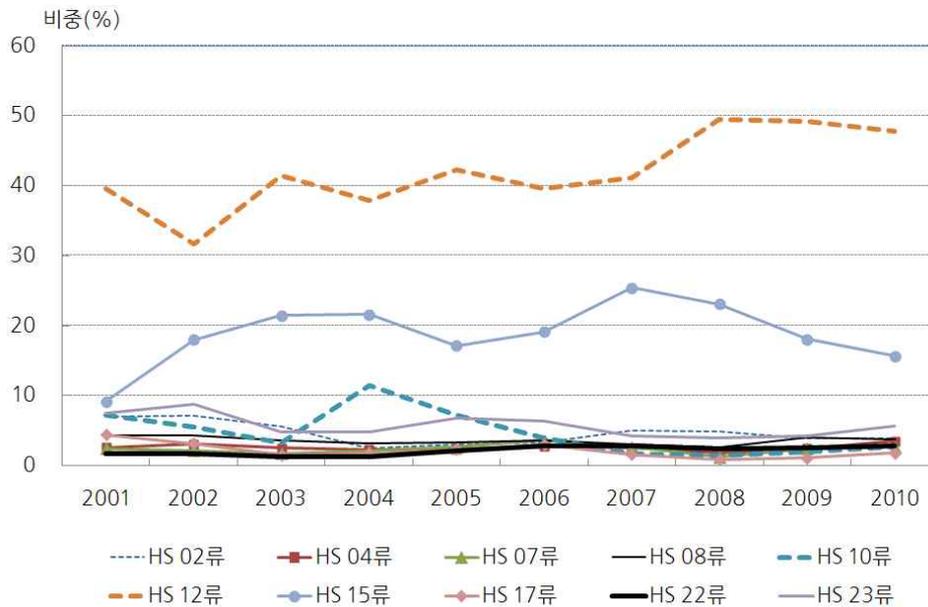
HS 코드	종류	2001	2002	2004	2006	2008	2010	비중
01	산동물	36	53	220	63	104	269	0.5
02	육과 식용설육	597	626	475	686	2,320	2,224	3.9
04	낙농품·조란·천연꿀	219	272	448	565	874	2,000	3.5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173	188	249	193	255	417	0.7
06	산수목·꽃	22	33	51	70	91	103	0.2
07	채소	210	194	405	756	583	1,515	2.7
08	과실·견과류	367	378	619	737	1,237	2,139	3.8
09	커피·차·향신료	21	23	32	54	101	150	0.3
10	곡물	607	482	2,219	821	699	1,501	2.7
11	제분공업제품	81	95	189	247	235	452	0.8
12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 식물, 사료	3,344	2,777	7,349	8,118	23,183	27,051	47.8
13	식물성엑스	32	36	58	75	111	121	0.2
14	기타 식물성생산품	65	44	88	99	79	201	0.4
15	동식물성 유지	776	1,579	4,204	3,924	10,808	8,884	15.7
16	육·어류 조제품	14	19	26	45	79	100	0.2
17	당류 및 설탕과자	376	280	336	617	424	1,033	1.8
18	코코아 및 그 제품	80	80	136	183	313	437	0.8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93	144	195	359	717	1,222	2.2
20	채소·과실 조제품	85	114	142	198	301	462	0.8
21	기타 조제식료품	181	179	475	325	464	682	1.2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46	148	261	586	1,138	1,646	2.9
23	조제사료	639	772	946	1,298	1,865	3,234	5.7
24	담배	268	243	292	463	788	791	1.4
	합 계	8,432	8,759	19,415	20,482	46,769	56,634	100.0

자료: 중국 해관통계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식문화의 영향으로 식용유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04년까지 다른 식량작물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

를 보이다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두의 순수출국이었으나 1996년 이후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매년 총소비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수입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3년 이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였다. 2009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은 무려 2.84배에 달한다.

그림 5-3. 중국의 HS 01류~24류 중 주요 품목군의 수입액 비중 변화 추이



자료: 중국 해관통계

HS 12류 다음으로 수입액이 많은 품목군은 HS 15류(동식물성 유지)로 2008년 108.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 88.8억 달러로 약간 감소하였다.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5.5%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 15.7%로 감소한 상태이다. 2001년 이후 HS 12류와 HS 15류 두 품목군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에서 63.5%로 증가하여 수입 품목의 집중도가 심화되었다. HS 08류(과실·견과류), HS 12류, HS

15류, HS 22류(음료, 주류 및 식초) 등은 2001~2010년 동안 5배 이상 수입이 증가하였다.

2.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2.1.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한·중 수교 이후 1992~2010년 동안 농산물 교역액은 9.8억 달러에서 24.7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규모가 동기간 63.8억 달러에서 1,884.1억 달러로 약 30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농산물 교역액의 증가 규모는 크지 않다. 그리고 한·중 교역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15.4%에서 1.3%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 중 대중국 수출총액에서 농산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1% 미만이었다. 대중국 수입총액에서 농산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26.0%에서 2010년 2.8%로 급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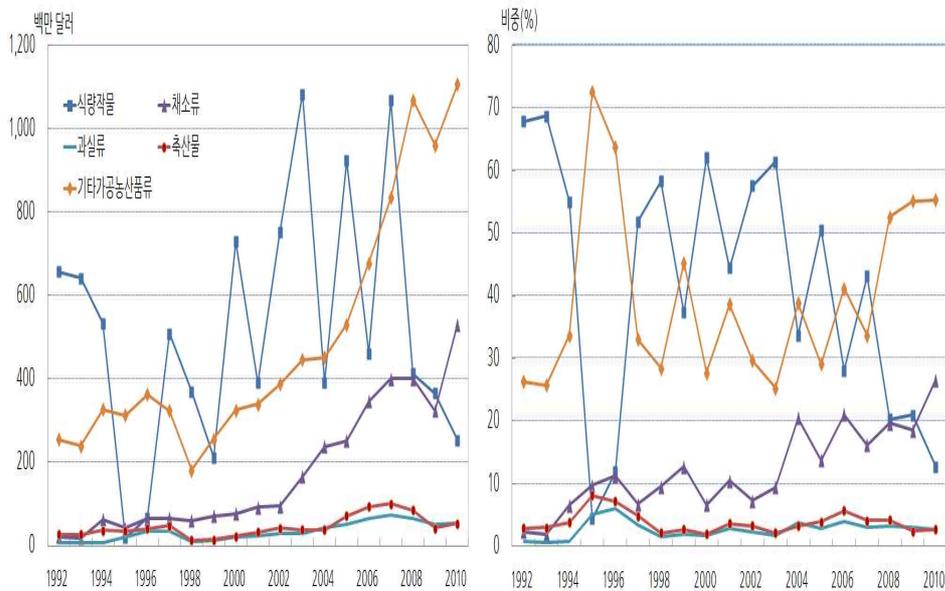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농산물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1992~2010년 동안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이 9.7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증가한 데 비해 수출액은 5.3백만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출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다. 대중국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992년 9.6억 달러에서 2007년 22.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9년까지 감소했으나 2010년 15.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1992년 9.7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연도별 변동폭이 큰 가운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7년 24.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2010년 20.0억 달러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G코드 570개 실품목 가운데 수입액이 1,000달러 이상인 품목이 1997년 246개에서 2008/10년(3년 평균) 377개로 증가하였

다. 1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도 같은 기간 70개에서 142개로 증가하였다.

농산물을 5개 품목류로 구분해서 보면 중국으로부터 식량작물(특히 곡류)의 수입액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채소류와 기타가공농산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2/94년~2008/10년 동안 식량작물 수입액이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8%에서 17.9%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 중 곡류의 비중이 동기간 62.1%에서 9.3%로 급감한 반면, 두류는 1.7%에서 8.5%로 증가하였다. 곡류의 수입액 비중이 감소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최대 수입 품목이었던 옥수수(사료용 HS 1005.90.1000, 기타용 HS 1005.90.9000)의 수입액 비중이 동기간 61.9%에서 0.5%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말 중국이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한 이후 수입액이 급감하였다.

그림 5-4. 농산물 품목류별 대중국 수입액 및 비중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5-12. 대중국 주요 수입농산물 수입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세부품목	1992	1997	2000	2005	2010	2008~2010(3개년 평균)			
							수입액	비중		
							A	B	C	
1	쌀	0	10.1	37	33.5	136.2	130.6	6.78	6.8	56.1
2	대두	0	0.7	9.7	28.5	35.7	126.7	6.58	13.4	18.9
3	전분박	1.0	1.6	5.4	25.7	117.3	118.4	6.15	19.5	95.9
4	김치	0	0	0.2	51.3	102	93.7	4.86	24.4	100.0
5	고추	8.3	8.6	10.4	49.7	109.2	91.2	4.73	29.1	95.4
6	기타채소	10.8	16.7	21.1	30.7	70	59.3	3.08	32.2	80.8
7	마늘	0	11.6	9.1	21.2	101.3	48.4	2.51	34.7	99.9
8	참깨	24.8	10.9	26	31.3	48.6	48.2	2.50	37.2	41.6
9	기타과실	0.9	16.9	15.9	41.6	44.9	47.6	2.47	39.7	33.7
10	당면	16.2	21.3	19.6	27.1	53.8	47.3	2.46	42.1	99.6
11	기타소스제품	1.9	10.6	16.4	36.9	51.1	47.2	2.45	44.6	55.3
12	혼합조제식료품	0	0	-	-	55	41.4	2.15	46.7	12.4
13	기타한약재	-	-	-	-	52.5	39.9	2.07	48.8	88.2
14	땅콩	11.5	22.9	21	22.8	41.9	39.1	2.03	50.8	85.0
15	당근	0	2.6	3.1	27.9	40	38.1	1.98	52.8	98.7
16	기타당	0	0	0	14.7	35.8	33.4	1.73	54.5	52.1
17	에틸알코올	14.4	15.3	12.7	18.9	54.6	32.8	1.70	56.2	22.4
18	기타사료	0	1.6	2.3	14.5	28.3	29.5	1.53	57.8	88.2
19	들깨	0	9.8	4.8	12.5	27.2	28.4	1.47	59.2	100.0
20	팥	4.8	7.9	12.5	17.3	37.9	28.1	1.46	60.7	99.7
21	대두박	32.6	0	2.8	4.2	25.5	26.8	1.39	62.1	3.7
22	보리	0.4	1.1	2.3	5.4	13.7	24.7	1.28	63.4	25.2
23	설탕박	2.1	8.9	9.3	16.1	9.0	24.1	1.25	64.6	69.1
24	혼합조미료	1.1	7.8	11.5	9.9	21.0	20.2	1.05	65.7	69.3
25	배합사료	0.1	0.1	0	1.6	18.4	19.8	1.03	66.7	40.5
26	채종·콜자씨박	10.0	7.4	33.2	1.6	16.4	19.2	1.00	67.7	17.5
27	일담배	5.4	0	0	14.0	20.3	18.7	0.97	68.7	8.1
28	양조박	0	0	0.4	3.1	6.1	18.4	0.96	69.6	15.9
29	개 사료	0	0	0	9.3	21.2	18.1	0.94	70.6	24.9
30	텍스트란기타변성전분	0	0	0	3.0	17.5	17.0	0.88	71.4	22.2
31	닭고기	0	16.3	3.1	18.5	14.2	16.8	0.87	72.3	10.2
32	고구마전분	2.2	8.3	8.7	8.9	22.6	16.6	0.86	73.2	99.4
33	포도당	0	0	0	3.3	22.5	15.5	0.81	74.0	82.0
34	기타식물성액즙	0.2	1.5	2.0	6.9	19.0	15.4	0.80	74.8	23.4
35	비스킷	0	1.2	5.9	14.1	11.6	15.2	0.79	75.6	26.4
36	토마토	1.2	4.6	3.4	7.4	13.6	14.5	0.75	76.3	33.3
37	생사	0	0	0	0	24.9	14.1	0.73	77.1	94.7
38	기타조제식료품	0	0.4	4.1	8.5	12.8	13.5	0.70	77.8	65.6
39	옥수수전분	0	0	0.4	7.3	6.8	13.3	0.69	78.5	97.9
40	기타사료용조제품	0.1	0	0.6	1.4	17.8	11.0	0.57	79.0	29.6
41	과	0	5.9	4.8	8.3	11.5	10.7	0.56	79.6	98.6
42	기타과스타	1.5	2.2	1.8	9.1	9.0	10.0	0.52	80.1	39.7
43	양과	0	1.0	1.8	8.0	10.6	10.0	0.52	80.6	92.9
44	옥수수	624.7	479.1	659.9	820.0	3.5	10.0	0.52	81.1	0.5

주: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임. A는 대중국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B는 누적 비중, C는 해당 품목의 전세계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량작물은 수입액 비중이 크게 감소했지만 채소류는 동기간 3.6%에서 21.7%로 대폭 증가하였다. 과실류 수입액 비중도 동기간 0.7%에서 3.0%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원예작물의 수입액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동기간 3.2%에서 3.1%로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기타가공농산품은 수입액 비중이 교역초기 28.6%에서 2008/10년 54.3%로 대폭 증가했으며 대중국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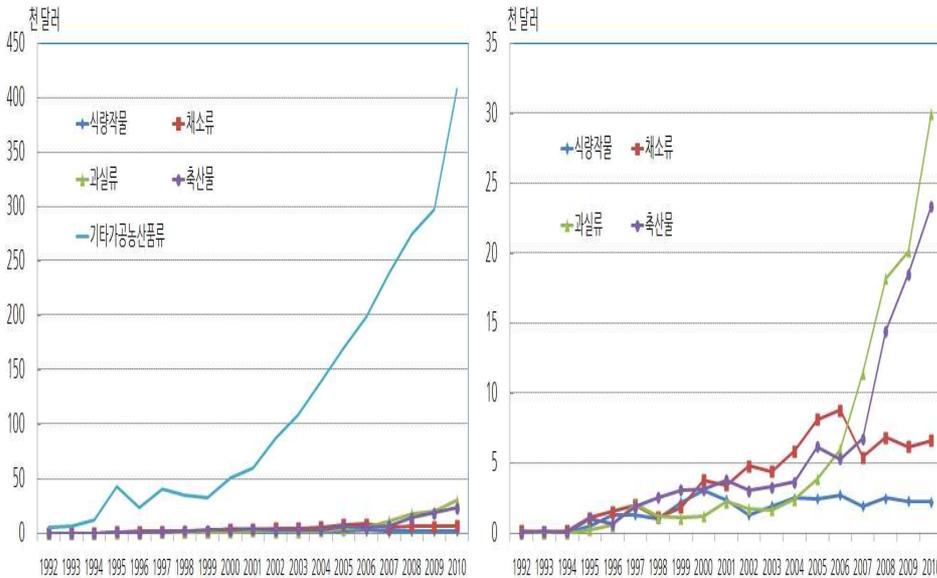
<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10년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은 쌀(6.8%), 대두(6.6%), 전분박(6.2%), 김치(4.9%), 고추(4.7%), 기타채소(3.1%), 마늘(2.5%), 참깨(2.5%), 기타과실(2.5%), 당면(2.5%)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42.1%를 차지하였다. 한편 CR₂₀, CR₃₀, CR₄₀도 각각 60.7%, 71.4%, 79.0%를 차지하여 대중국 농산물 수입 품목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 상위 40개 품목을 5개 품목류로 구분해보면 기타가공농산품 52.8%(24개), 채소류 22.7%(6개), 식량작물 20.4%(4개), 과실류 3.1%(1개), 축산물 1.1%(1개) 순이다. 기타가공농산품과 채소류가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식량작물은 교역초기에 비해 수입액 비중은 크게 감소했지만 실품목 기준으로는 쌀과 대두가 대중국 수입액 1위, 2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은 품목 분류상 가공농산품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가공농산품에 이어 수입 비중이 큰 채소류도 신선농산물 형태(주로 신선이나 냉장 형태)보다는 냉동, 조제처리 등 단순가공을 거친 반가공품 형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2008/10년 대중국 채소류 수입액 중 1위(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4위)를 차지한 김치는 기본적으로 가공식품에 속한다. 그리고 수입액 2위(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5위)인 고추는 냉동과 건조형태가 각각 77.8%와 22.2%를 차지한다. 또한 수입액 4위(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7위)인 마늘은 신선/냉장과 냉동 형태가 각각 48.1%와 43.8%를 차지하며, 식초/초산조제 형태가 6.7%를 차지한다. 수입액 3위(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6위)인 기타채소도 냉동/일시저장처리/건조/혼합물/조제품의 비중이 77.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신선/냉장 형

태의 농산물에 비해 냉동/조제저장처리 등 반가공품 형태의 수입이 많은 것은 양허관세율의 차이가 주요 원인이다.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1992년 5.3백만 달러에서 2010년 4.7억 달러로 단조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수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0.7%(농산물 0.8%, 축산물 0.03%)에 불과했으나 2010년 12.2%(농산물 12.0%, 축산물 16.0%)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9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다만, 2010년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719.2억 달러)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5%에 불과하다.

그림 5-5. 농산물 품목류별 대중국 수출액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5-13. 대중국 주요 수출농산물 수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세부품목	1992	1997	2000	2005	2010	2008~2010(3개년 평균)			
							수입액	비중		
							A	B	C	
1	자당	2.1	16.8	12.0	36.8	96.6	67.6	17.9	17.9	39.1
2	라면	0	1.1	2.2	12.6	28.3	29.9	7.9	25.8	20.9
3	커피조제품	0.9	0.6	0.7	13.4	43.2	28.1	7.4	33.2	14.2
4	혼합조제식료품	0	-	0.3	0	24.4	20.9	5.5	38.8	7.5
5	난초	-	-	1.2	13.9	18.3	18.5	4.9	43.7	92.9
6	기타베이커리제품	0	0.6	2.5	1.1	17.9	14.5	3.8	47.5	39.9
7	기타음료	-	0	0.2	2.1	17.4	14.3	3.8	51.3	27.8
8	유자	-	-	-	-	13.9	11.1	2.9	54.2	38.5
9	단일과실조제품	0	1.6	0.9	2.6	12.1	8.8	2.3	56.6	20.3
10	담배	-	0.6	0.4	6.8	7.3	8.1	2.1	58.7	1.7
11	혼합조미료	0	0.9	0.9	2.2	10.2	7.0	1.9	60.6	41.6
12	대두유	-	0	0.6	0	16.2	7.0	1.9	62.4	40.5
13	비스킷	0	0.3	1.2	18.3	7.0	6.9	1.8	64.3	10.2
14	인스턴트면	-	0.3	0.7	2.3	8.6	6.6	1.8	66	46.4
15	팽이버섯	-	-	-	0	6.5	6.6	1.8	67.8	33.7
16	캔디	0	0.2	0.2	3.9	7.6	6.2	1.6	69.4	46.2
17	홍삼	-	0	2.5	4.1	11.3	6.1	1.6	71	13.2
18	곡류조제품	0	0.6	1.8	7.7	6.5	6.1	1.6	72.7	16.0
19	소주	0	0.2	0.4	2.4	5.0	5.8	1.5	74.2	4.8
20	조제분유	-	0	0.7	1.3	7.9	5.2	1.4	75.6	21.8
21	기타소스제품	0	0.3	0.8	1.4	5.7	4.5	1.2	76.8	20.1
22	탈지분유	-	-	0	0	7.6	3.8	1	77.8	88.2
23	초콜릿	0	0.1	0	0.5	4.9	3.5	0.9	78.7	31.7
24	채소종자	0	2.0	3.0	3.4	4.0	3.3	0.9	79.6	14.4
25	맥주	0	0.3	0.7	1.8	3.1	3.1	0.8	80.4	7.0
26	아이스크림	-	0.3	-	0.8	3.0	3	0.8	81.2	21.0
27	쇠고기	-	-	-	0	3.8	2.7	0.7	81.9	49.5
28	포도당	-	0	0.1	0.1	0.2	2.7	0.7	82.6	32.6
29	위스키	-	0.6	1.9	1.6	2.5	2.4	0.6	83.2	28.2
30	마요네스	-	0	0	1.2	2.9	2.4	0.6	83.9	6.0
31	로열젤리	-	0.7	1.3	1.9	0	2.4	0.6	84.5	8.1
32	커피	0	0	0.7	1.5	2.7	2.2	0.6	85.1	30.3
33	기타식물성점질물	-	0	0.1	0.5	4.0	2.1	0.6	85.7	10.0
34	카레	-	-	0	0.6	1.5	2.1	0.5	86.2	63.3
35	기타과실	0	0.2	0	0.7	2.8	2.0	0.5	86.7	17.6
36	밀	-	1.1	2.8	2.1	1.6	1.9	0.5	87.2	16.4
37	간장	0	0.2	1.2	1.7	1.5	1.7	0.4	87.7	14.5
38	고추장	0	0	0.3	0.7	2.3	1.6	0.4	88.1	11.8
39	껌	0.5	8.0	0.7	9.2	2.2	1.6	0.4	88.5	6.3
40	기타설탕과자	-	0	0	0.2	1.4	1.6	0.4	89	2.9
41	쇼트닝	-	0.7	2.0	2.6	1.3	1.4	0.4	89.3	10.6
42	기타조제식료품	-	0	0.7	0	2.3	1.4	0.4	89.7	13.9
43	물	0	0	0	0.5	1.1	1.4	0.4	90.1	6.2
44	기타채소	0	0	0.5	3.0	1.0	1.3	0.3	90.4	10.9

주: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임. A는 대중국 전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B는 누적 비중, C는 해당 품목의 전세계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AG코드 570개 실품목 중 중국에 1,000달러 이상 수출한 품목 수는 1997/99년 201개에서 2008/2010년 260개로 늘었다. 100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도 같은 기간 8개에서 47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도 1개 품목(자당)에서 8개 품목(자당, 라면, 커피조제품, 혼합조제 식료품, 난초,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음료, 유자)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원료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한 가공식품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2008/10년의 5개 품목류별 대중국 수출액 비중을 보면 기타가공농산품이 86.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과실류, 축산물, 채소류,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5.0%, 1.7%, 0.6%로 미미하다.

<표 5-13>는 AG코드 570개 실품목을 대상으로 2008/10년 대 중국 수출액 상위 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상위 40개 품목 중 난초(5위), 유자(8위), 팡이버섯(15위), 홍삼(17위) 정도가 우리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품목이다. 이들 4개 품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가공농산품이다.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액 합계(CR₁₀)는 전체 수출액의 58.7%를 차지한다. CR₂₀, CR₃₀, CR₄₀도 각각 75.6%, 83.9%, 89.0%를 차지하여 대중국 수출 농산물의 품목 집중도가 높다. 이는 수입농산물의 품목 집중도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 상위 40개 품목을 5개 품목류로 구분해보면 기타가공농산품류 78.1%(31개), 과실류 5.8%(3개), 축산물 3.7%(4개), 채소류 0.9%(1개), 식량작물 0.5%(1개) 순이다. 가공농산품류를 제외하고 과실류의 비중이 높은 것은 수출액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유자 때문이다. 그러나 유자의 수출도 신선 형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유자차 형태로 수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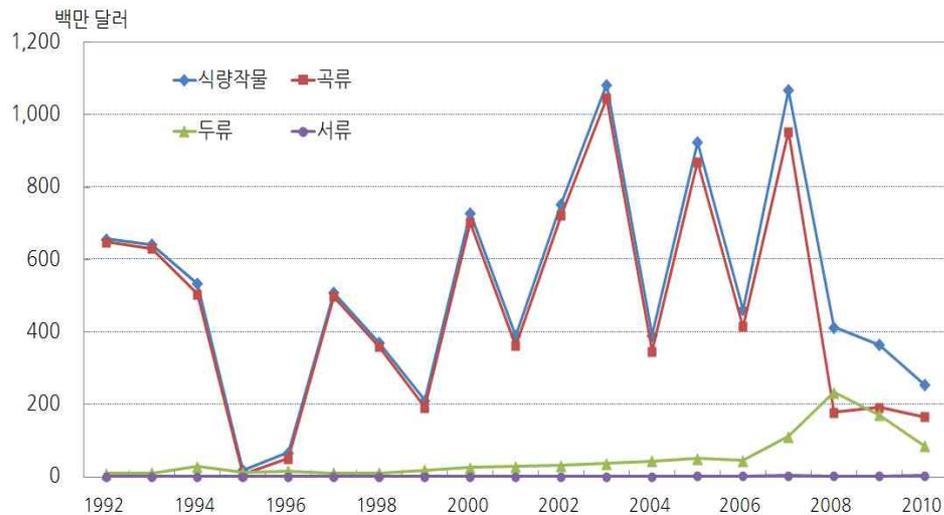
2.2. 대중국 농산물 품목별 교역구조

2.2.1. 식량작물

식량작물은 한·중 농산물 교역 초기인 1992/94년(3년 평균)에 농산물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3%에 달하는 주요 교역 품목이었다. 그러나 연도별 변동이 심한 가운데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08/10년(3년 평균)에 15.0% 수준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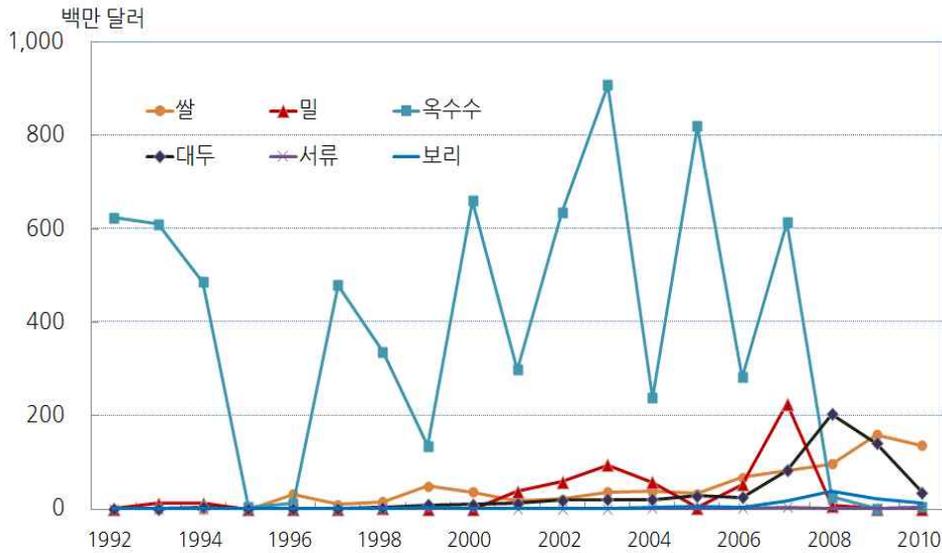
<그림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식량작물 수입은 연도별 변동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연도별 등락이 심한 가운데 수입액이 2007년 10.7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08년 급격히 감소한 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국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식량작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2/94년 63.8%, 1997/99년 50.0%, 2008/10년 17.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전세계 식량작물 수입액에서 중국산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36.3%, 16.5%, 7.6%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식량작물 교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림 5-6. 식량작물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입액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그림 5-6. 식량작물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입액 변화 추이(계속)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식량작물 수입이 급감한 것은 식량작물 중 최대 수입 품목이었던 옥수수의 수입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한·중간 농산물 교역액에서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년 61.9%, 1997/99년 45.2%, 2005/2007년 30.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07년 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2007년 말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발표한 이후 2007년 6.1억 달러(25.8%)에 달했던 대중국 옥수수 수입액이 2008년 25.8백만 달러(1.3%), 2009년 77.3만 달러(0.05%)로 급감하였다. 2010년에는 3.5백만 달러(0.2%)로 소폭 증가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도가 1982년 52.6%에서 2009년 30.2%로 하락하였는데 옥수수도 자급률이 4.9%에서 1.0%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사료용 및 가공용 수요가 많은 옥수수의 공급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액에서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1992년 이후 2010년까지 옥수수의 수입액 비중은 평균 15% 수준이다.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옥수수의 수입을 상당부분 중국에 의존하였

다. 그러나 중국이 2007년 말부터 국내사정을 이유로 곡물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수입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도 우리나라의 최대 옥수수 수입대상국은 미국으로 수입액의 84.2%를 차지하였다.

한·중 식량작물 교역구조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곡류의 비중 감소’와 ‘두류의 비중 증가’이다. 1992/1994년~2008/2010년 동안 대중국 식량작물 수입액에서 곡류의 비중은 97.3%에서 51.8%로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수수의 수입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세계 곡류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6.6%에서 4.9%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두류의 수입액은 1992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다 2006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중국 식량작물 수입액에서 두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년~2008/10년 동안 3.7%에서 47.4%로 대폭 증가하였다. 두류 중 대두의 수입액 비중이 1.1%에서 36.8%로 대폭 증가하였다. 팥과 녹두도 동기간 각각 1.7%에서 8.2%, 0.3%에서 0.9%로 증가했다. 중국산 두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4.6%에서 22.8%로 크게 증가하여 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두류 자급률은 1982년 37.8%에서 2009년 10.7%로 감소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류인데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4>은 2008/10년(3년 평균)의 식량작물 26개 세부품목의 대중국 수입액 순위가 높은 품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1992/94년(3년 평균)에는 옥수수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팥(1.7%), 수수(1.6%), 밀(1.3%), 녹두(0.3%) 등이 매우 적은 비중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 동안에는 옥수수의 비중이 급감한 탓에 쌀과 대두가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하였다. 그 뒤를 이어 팥, 보리, 옥수수가 주요 수입품목인데 CR₂, CR₅가 각각 74.8%, 93.0%로 교역초기와 마찬가지로 수입품목의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14. 대중국 식량작물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품목	비중	주요 세부품목
쌀	38.0	메현미(HS 1006201000) 71.7%, 맵쌀(HS 1006301000) 28.3%
대두	36.8	대두(기타, HS 1201009090) 71.8%, 대두(콩나물용, HS 1201009010) 20.1%
팥	8.2	팥(건조/중자용 이외 기타, HS 0713329000) 67.4%, 팥(탈각한것/조제 저장처리/냉동제외, HS 2005511000) 23.3%
보리	7.2	맥아(볶지않은것, HS 1107100000) 82.4%, 걸보리(HS 1003009010) 13.1%
옥수수	2.9	옥수수(중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기타, HS 1005909000) 64.6%, 옥수수(사료용, HS 1005901000) 31.7%
밀리트	2.0	밀리트(기타, HS 1008209000) 88.6%, 조(기타, HS 1008201090) 11.4%
녹두	0.9	녹두(건조/중자용 이외 기타, HS 0713319000) 99.4%
밀	0.9	밀(사료용, HS 1001909020) 51.9%, 밀가루(HS 1101001000) 46.8%
기타 품목	3.1	비그나파세라스(0.5%), 기타콩(0.5%), 수수(0.5%), 강낭콩(0.4%), 감자(0.4%), 메밀(0.3%), 기타서류(0.2%), 고구마(0.1%), 기타곡물(0.1%), 완두 등
합 계	100.0	

주: 세부 품목은 수입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며 비율은 해당 품목의 전체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식량작물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옥수수를 제외하고 주요 수입 품목은 대부분 교역 초기에 비해 수입액 규모가 증가하였다. 수입액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1992/94년 8개에서 1997/99년 7개로 감소했으나 2008/10년 14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식량작물 중에서 대중국 최대 수입품목인 쌀은 MMA물량 쌀로서 1995년부터 수입되기 시작되었다. 2004년 쌀협상에서 국별쿼터(20만 5,200톤)의 56.6%인 11만 6,159톤이 중국에 배정된 데다 총량쿼터(MFN) 중 중국산의 수입량도 매년 증가하여 2006년 이후 중국산 쌀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쌀은 메현미(HS 1006.20.1000, 가공용)와 맵쌀(HS 1006.30.1000, 밥쌀용 백미)로 구분되며 시장접근세율은 모두 5%이다. 중국산 쌀의 수입액은 2006년 83백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159.2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 136.2백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현미와 백미의 수입액 비중은 2010년 각각 66.6%, 33.4%로 가공용 쌀의 비중이 높다.

대중국 식량작물 수입액 중 2위를 차지하는 대두는 2007년 이후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또는 사료용인 아닌 기타 대두(HS 1201.00.90)의 비중이 높다. 이 중에서도 기타 대두(HS 1201.00.9090)의 수입액 비중이 2008년 81.3%에 달했으나 2010년 10.2%로 급감했다. 반면 콩나물용 대두(HS 1201.00.9010)의 수입액 비중은 2007년 19.5%(16백만 달러)에서 2010년 67.5%(24.1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식량작물과 곡류의 비중은 교역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식량작물에 속한 쌀과 대두는 AG코드 570개 품목 중 2010년도 대 중국 수입농산물 중 수입액이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 품목이다. 쌀과 대두의 수입액이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8%와 6.6%로 두 품목을 합쳐 13.4%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에서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적다. 시기별 비중 변화를 보면 1992/94년 0.4%(3.4만 달러), 1997/99년 3.5%(1.54백만 달러), 2008/10년 0.6%(2.36백만 달러)로 1990년대 말 잠시 증가한 후 감소하였다. 지난 3년 동안의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대부분 밀가루(HS 1101.00.1000)로 대중국 식량작물 수출액의 79.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리(볶은것, HS 2101.30.1000) 11.0%, 콩나물용 대두(HS 1201.00.9010) 4.8%, 감자(플레이크, 합착 및 펠릿, HS 1105200000) 1.2%를 차지하였다.

2.2.2. 채소류

한·중 농산물 교역 초기인 1992/94년에 채소류 교역액이 농산물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4.8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비중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2008/10년에는 18.5%(425.1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3년 이후 비중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에서 채소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년 3.0%에서 2008/10년 4.4%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

라의 채소류 교역액에서 중국과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7%에서 49.9%로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채소류 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채소류 수입액은 1992/94년 34.6백만 달러에서 2008/10년 418.5백만 달러로 12배 증가하였다. 농산물 전체 수입액이 같은 기간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채소류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산 채소류의 수입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중 수교 후 2001년까지 22.1백만 달러에서 92.0백만 달러로 4.2배 증가한 반면 2002~2010년 동안 95.7백만 달러에서 531.6백만 달러로 5.6배 증가하였다.

중국산 채소류의 수입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채소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6%에서 21.7%로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세계 채소류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8%에서 70.1%로 증가하여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채소류 수입상대국별 비중은 중국 73.9%, 미국 9.2%, 일본 3.2%, 태국 2.3%로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채소류 수입 품목의 수와 품목별 수입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AG코드 채소류 48개 세부품목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은 1992년 12개 품목에서 2010년 33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수입액이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도 각각 9개와 3개에서 30개와 22개로 증가하였다.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1개(기타 채소)에서 8개(고추, 김치, 마늘, 기타채소, 당근, 토마토, 파, 양파)로 증가하였다.

<표 5-15>는 2008/10년(3년 평균)의 채소류 48개 세부품목 중 대중국 수입액 순위가 높은 품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 채소류 교역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국 수입품목구조가 김치와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류 위주로 고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김치, 고추, 마늘은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 순위가 각각 4위, 5위, 7위로 대표적인 대중국 수입품목이다.

표 5-15. 대중국 채소류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품목	금액(비중)	주요 세부품목
김치	93.7(22.4%)	김치(조제저장처리, HS 2005991000) 100%
고추	91.2(21.8%)	고추류(냉동, HS 0710807000) 77.8%,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 않은 것, HS 0904201000) 20.2%,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HS 0904202000) 2.0%
마늘	48.4(11.6%)	마늘(신선/냉장/기타, HS 0703209000) 44.4%, 마늘(냉동, HS 071 0802000) 43.8%, 마늘(조제저장처리, HS 2001909060) 6.7%, 마늘 (신선/냉장/탈피, HS 0703201000) 3.3%
당근	38.1(9.1%)	당근(신선/냉장, HS 0706101000) 89.3%, 당근(건조, HS 0712902 040) 7.8%, 당근(냉동, HS 0710804000) 2.9%
토마토	14.5(3.5%)	토마토페이스트(HS 2002901000) 96.4%, 토마토케첩(HS 21032010 00) 1.9%
파	10.7(2.6%)	파(건조, HS 0712902030) 100%
양파	10.0(2.4%)	양파(신선/냉장, HS 0703101000) 67.0%, 양파(건조, HS 0712200 000) 21.1%, 양파(냉동, HS 0710801000) 10.7%
기타 채소	59.3(14.2%)	기타채소(냉동, HS 0710809000) 24.8%, 기타채소(신선/냉장, HS 070990 9000) 22.5%,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HS 0711905099) 16.4%, 기타채소 (조제조장처리, HS 2005999000) 15.2%, 기타채소(건조, HS 0712902099) 7.3%, 식용식물기타(조제저장처리, HS 2001909090) 6.2%, 기타채소혼 합물등(조제저장처리/냉동, HS 2004909000) 5.3%
기타 품목	52.6(12.4%)	채소종자(2.0%), 기타근채류(1.8%), 꽃양배추(1.4%), 양배추(1.1 %), 딸기(1.0%), 오이(1.0%), 생강(0.9%), 무(0.7%), 결구상추(0.5%), 배추(0.4%), 채소혼합물(0.4%), 연교(0.3%), 기타파속채소(0.3%), 상치(0.2%)
합 계	418.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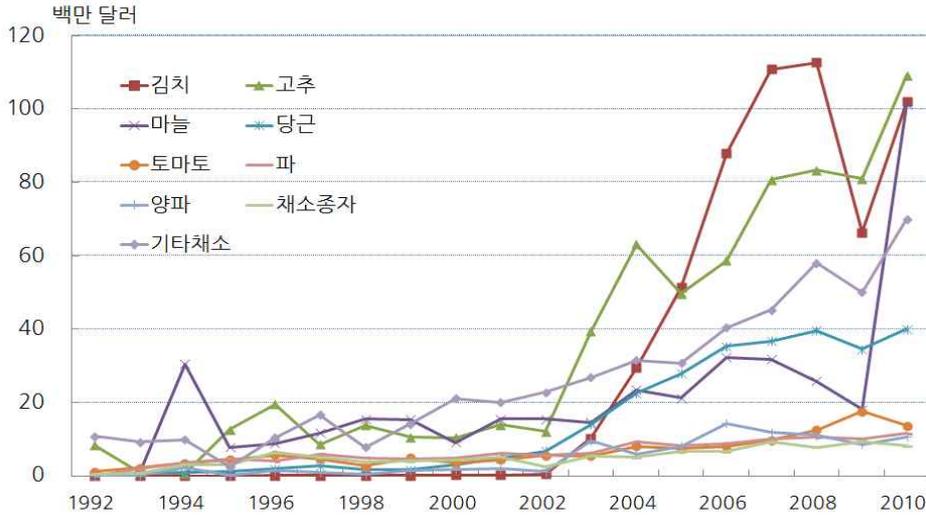
주: 금액은 100만 달러. 세부 품목은 수입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며 비
율은 해당 품목의 전체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괄호 안의 비율은 전
체 채소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치는 1996년부터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200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112.7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소폭 감소한 후 2010년 109.2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대중국 채소류 수입액 중 김치의 비중은

1996년 0.02%에서 2010년 19.2%로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김치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어 중국산 의존도가 100%이다.

그림 5-7. 대중국 채소류 주요 품목별 수입액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채소류 가운데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대표적인 수입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2010년 대중국 채소류 수입액에서 각각 1위(109.2백만 달러), 3위(101.3백만 달러), 7위(11.5백만 달러), 8위(10.6백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한·중 농산물교역 초기에 고추 수입액은 마늘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늘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입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까지 감소한 후 2010년 101.3백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파와 양파의 수입액은 비교적 완만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추, 마늘, 파, 양파 4개 품목이 2010년 대중국 채소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5%, 19.1%, 2.2%, 2.0%로 4개 품목을 합치면 43.8%에 달한다. 특히 고추와 마늘의 수입액 점유율이 높다. 한·중 교역초기인 1996/98년(3년 평균) 21.9%, 18.8%, 7.7%, 1.4%와 비교하면 마늘과 양파

의 비중은 증가했지만, 고추와 파는 오히려 감소했다. 4개 품목의 수입액 점유율도 49.8%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는 교역초기 수입품목이 적은 상태에서 양념채소류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수입 품목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대중국 채소류 수입은 교역초기부터 수입품목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1996/98(3년 평균)~2008/10년(3년 평균) 동안 채소류 48개 세부품목의 수입액 순위를 기준으로 수입품목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CR₂와 CR₅가 각각 40.8%에서 44.2%, 74.7%에서 79%로 증가하였다. CR₁₀은 동기간 92.6%에서 91.3%로 다소 약화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추는 대부분 냉동고추(HS 0710.80.7000)와 건조고추(HS 0904.20.1000)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2008/10년(평균) 대중국 고추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7.8%와 20.2%이다. 양허기준세율은 각각 30%와 300%로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신선/냉장 형태를 피하여 수입관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류의 수입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마늘의 형태는 냉동(HS 0710.80.2000), 신선/냉장/기타(HS 0703.20.9000), 조제조장처리(HS 2001.90.9060), 신선/냉장/탈피(HS 0703.20.1000) 등 다양하다. 2008/10년(평균) 대중국 마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4%, 43.8%, 6.7%, 3.3%이다. 양허기준세율은 각각 30%, 400%, 40%, 400%로 고추에 비해 냉동 형태가 적긴 하지만 관세율이 낮은 냉동 및 조제저장처리 마늘의 비중이 51.1%로 절반을 넘는다.

파는 전량 건조(HS 0712.90.2030) 형태로 수입되며 양허기준세율은 60%이다. 양파는 고추, 마늘과 달리 신선/냉장(HS 0703.10.1000) 형태의 수입액 비중이 67%로 높고 다음으로 건조(HS 0712.20.0000) 21.1%, 냉동(HS 0710.80.1000) 10.7% 순이다. 양허관세율은 각각 150%, 150%, 30%이다. 고추, 마늘에 비해 신선/냉장 형태의 수입관세율이 낮아 양파의 수입에서 신선/냉장 형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채소류 수출액은 1992/94년 16.6만 달러에서 2008/10년 656.7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액에서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1.7%로 감소하였다.

2008/10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주요 채소류 품목은 기타채소종자(HS 1209.91.9000) 3.30백만 달러(50.2%), 토마토케첩(HS 2103.20.1000) 1.18백만 달러(18.0%), 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HS 2006.00.9090) 0.55백만 달러(8.3%),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HS 0711.90.5099) 0.38백만 달러(5.8%),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HS 2005.99.1000) 0.25백만 달러(3.8%),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HS 0904.20.2000) 0.18백만 달러(2.7%) 등이다.

2.2.3. 과실류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과실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역초기인 1992/94년 0.7%(7.1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2008/10년 3.5%(80.0백만 달러)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에서 과실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년 5.2%에서 2008/10년 5.1%로 커다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채소류 교역액에서 중국과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8.0%로 소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과실류 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과실류 수입액은 1992/94년 7.1백만 달러에서 2008/10년 57.2백만 달러로 8배 증가하였다. 농산물 전체 수입액이 같은 기간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과실류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산 과실류의 수입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2007년 72.8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2 참조). 중국산 과실류의 수입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7%에서 3.0%로 소폭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세계 과실류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1%에서 6.9%로 증가하여 중국 의존도가 미미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으로부터 과실류 수입품목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식물검역조치로

인해 중국산 신선과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대부분 과일을 원료로 한 조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5-16 참조). AG코드 과실류 39개 세부품목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은 1992년 9개 품목에서 2010년 20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수입액이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도 각각 3개와 2개에서 8개와 4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2010년 1개(기타과실)에 불과하다.

표 5-16. 대중국 과실류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품목	금액(비중)	주요 세부품목
기타과실	47.6(83.1%)	견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HS 2007999000) 41.1%, 기타과실(신선, HS 0811909000) 25.3%, 견과,땅콩외 기타의 씨류(조제저장처리, HS 2008199000) 23.5%, 과일주스기타(HS 2009801090) 3.5%, 기타과실(건조, HS 0813409000) 2.3%, 잼·제리·마말레이드기타(HS 2007991000) 2.2%
사과	3.2(5.7%)	사과주스(기타, HS 2009790000) 92.4%,
기타감귤류	2.7(4.7%)	기타감귤류과실(조제저장처리, HS 2008309000) 100%
복숭아	2.3(4.0%)	복숭아(설탕첨가/밀폐용기의것, HS 2008701000) 86.8%, 복숭아주스(건조, HS 2009801010) 8.3%, 복숭아(기타/조제저장처리, HS 2008709000) 4.9%
버찌	0.49(0.9%)	버찌(기타방법조제, HS 2008600000) 98.0%
포도	0.37(0.6%)	포도(기타방법조제, HS 2008991000) 95.1%
나무딸기	0.29(0.5%)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라(냉동, HS 0811200000) 100%
기타품목	0.29(0.5%)	캐슈넛(0.1%), 배(0.1%), 파인애플(0.1%), 과실혼합물(0.1%), 유자(0.03%)
합계	57.2(100.0)	

주: 금액은 백만 달러. 세부 품목은 수입액이 1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며 비율은 해당 품목의 전체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과실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5-16>은 2008/10년(3년 평균)의 과실류 39개 세부품목 중 대중국 수입액 순위가 높은 품목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 과실류 교역에서 대중국 수입품목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기타 과실

을 원료로 한 조제품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품목의 대부분이 HS 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에 속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과실류 수출액은 1992/94년 2.9만 달러에서 2008/10년 22.8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에서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4%에서 6.0%로 증가하였다. 2008/10년 식량작물과 채소류의 비중이 각각 0.6%, 1.7%인 것에 비하면 과실류의 대중국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식물검역조치로 우리나라의 신선과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수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출 품목은 모두 과일을 원료로 한 조제품이다. 유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대표적인 과실 품목으로 유자차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유자는 대중국 과실류 수출액의 48.6%로 1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 순위에서도 8위(2.9%)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대중국 수출 품목이다. 유자에 이어 과즙음료(HS 2202.90.2000)가 38.7%,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HS 2007.99.9000)가 5.1%를 차지하고 있다.

2.2.4. 축산물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축산물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2008/10년의 비중은 3.4%(78.9백만 달러)로 교역초기인 1992/94년 3.2%(30.9백만 달러)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 과실류와 마찬가지로 축산물도 양국이 동물검역조치로 상대국과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역액이 많지 않은 품목에 속한다.

축산물도 중국의 대한국시장 수출특화 품목류로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다. 축산물 114개 세부품목 중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은 14개(육류·난류 3개, 낙농품 8개, 기타축산물 3개)에 불과하다. 다만 낙농품은 전체 12개 품목 중 우리의 수출특화 품목이 8개로 축산물 중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품목이다.

한·중 축산물 교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앞서 양국간 과실류 교역에서도 관찰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1992/94년 0.3%에서 2008/10년 31.2%로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축산물 수입액은 1992/94년 30.9백만 달러에서 2008/10년 60.2백만 달러로 1.9배 증가하였다. 중국산 축산물의 수입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2007년 100.5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2 참조). 중국산 축산물의 수입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세계 축산물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2.0%로 낮아져 중국 의존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중 축산물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품목 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육류의 비중 증가이다. 교역초기인 1992/94년에는 대중국 축산물 수입액 중 기타축산물과 육류의 수입액 비중이 각각 78.2%와 19.7%였으나 2008/10년에는 각각 38.8%와 51.7%로 기타축산물의 비중이 줄고 육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육류 수입은 양국의 동식물검역조치로 인해 신선육류나 신선가금육류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고 열처리가금육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육류 수입은 가금육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축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2%에 달한다.

<표 5-17>는 2008/10년의 축산물 114개 세부품목 중 대중국 수입액 순위가 높은 품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 축산물 교역에서 신선육류의 수출입이 금지된 까닭에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도 HS 02류(육과 식용설육)는 없고 HS 16류(육 어류조제품), HS 04류(낙농품·조란·천연꿀), HS 05류(기타동물성생산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8/10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축산물 수입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금육류인 닭고기로 축산물 수입액의 27.9%를 차지하였다. 수입액 상위 13개 세부품목 중 육류의 비중은 기타육류(7.7%)와 기타가금육(7.3%), 돼지고기(1.7%)를 합해 44.6%를 차지하였다.

표 5-17. 대중국 축산물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품목	금액(비중)	주요 세부품목
닭고기	16.8(27.9%)	닭고기(기타조제저장, HS 1602329000) 78.0%, 닭고기(밀폐용기의것, HS 1602321090) 22.0%
로열젤리	5.9(9.7%)	조제품기타(HS 2106909099) 90.4%, 로열젤리(HS 0410003000) 6.9%
렘톤(단백질류)	5.5(9.2%)	유리단백질(HS 3504002030) 78.3%, 기타단백질물질계(HS 3504002090) 19.9%
기타육류	4.6(7.7%)	조제육·설육 기타(HS 1602909000) 99.8%
기타가금육	4.4(7.3%)	가금류의것(기타조제저장, HS 1602399000) 100%
녹용	3.8(6.3%)	녹용(전지, HS 0507901110) 97.4%
육류수프	2.5(4.2%)	수프·브로드·제조품(육류의것, HS 2104101000) 100%
젤라틴	2.2(3.7%)	동물성 글루기타(HS 3503003000) 83.6%, 젤라틴(HS 3503001010) 16.5%
동물의견과근	2.0(3.3%)	동물의 사체(기타/비식용, HS 0511999090) 65.8%
개	1.5(2.4%)	개(HS 0106191000) 100%
영장류	1.4(2.3%)	영장류(HS 0106110000) 100%
돼지고기	1.04(1.7%)	돼지고기기타부위(밀폐용기의것, HS 1602491000) 80.6%,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의것, HS 1602411000) 16.0%
조란	0.97(1.6%)	조란(껍질불은것/신선한것 이외 기타, HS 0407009000) 81.6%, 조란(껍질불지않은것/건조한것, HS 0408910000) 10.3%
합계	52.6(87.3)	

주: 금액은 100만 달러. 세부 품목의 비율은 해당 품목의 전체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우리나라의 대중국 축산물 수출액은 1992/94년 8만 달러에서 2008/10년 18.8백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액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에서 5.0%로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도 31.2%로, 39.2%인 과실류에는 다소 미

치지 못하지만 1% 내외에 불과한 식량작물, 채소류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낙농품(56.1%), 육류(22.0%), 기타 축산물부산물(18.2%)이다. 앞서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낙농품은 12개 세부품목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이 8개로 중국산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다. 주로 수출되는 품목류(AG코드 63개 품목류)는 조제분유(27.6%), 탈지분유(20.2%), 생우유(4.8%), 연유(1.3%) 등이다. AG코드 570개 실품목으로 보면 조제분유(유아용, HS 1901.10.1010),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HS 0402.10.1090), 밀크와 크림(HS 0401.20.0000, HS 0401.10.0000) 등이다.

육류 중 주로 수출되는 품목류는 쇠고기(14.6%), 돼지고기(4.3%), 가금육류(0.8%), 기타육류(2.3%) 등이다. 570개 실품목으로는 쇠고기(냉동/기타/뼈채절단/갈비, HS 0202.20.1000), 쇠고기(냉동/뼈없는것, HS 0202.30.0000), 돼지고기기타부위(밀폐용기의것, HS 1602.49.1000) 등이다. 기타축산물 부산물 중에서는 로열젤리(12.5%)와 꿀(5.6%)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2.2.5. 기타 가공농산품류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기타 가공농산품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년 29.2%(281.9백만 달러)에서 2008/10년 59.6%(1,373.2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가공농산품도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 품목류로서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대중국 수입액의 증가와 함께 수출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중국 기타가공농산품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은 교역 초기 2.8%에서 최근 31.2%로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액에서 중국과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1.3%에서 13.8%로 약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기타가공농산품류의 교역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기타가공농산품 수입액은 1992/94년 274.1백만 달러

에서 2008/10년 1,046.1백만 달러로 3.8배 증가하였다. 농산물 전체 수입액이 같은 기간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산 기타가공농산품의 수입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그림 3-2 참조). 한·중 수교 후 2001년까지 255.1백만 달러에서 339.7백만 달러로 1.3배 증가한 반면 2002~2010년 동안 387.7백만 달러에서 1,106.6백만 달러로 2.9배 증가하였다.

중국산 기타가공농산품의 수입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기타가공농산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8.6%에서 54.3%로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세계 기타가공농산물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4.5%에서 14.4%로 변화가 없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기타가공농산품류 수출액은 1992/94년 7.9만 달러에서 2008/10년 327.1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액에서 기타가공농산품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교역초기 96.2%에 달했다. 최근에도 이러한 국면은 유지되고 있지만 교역초기에 비해 비중은 9.6%포인트 감소하였고 이 공간은 과실류가 대체하였다.

표 5-18. 대중국 가공농산물 수출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AG코드 34개 품목류	
수입	박류(21.5%), 채유종실(12.0%), 사료(8.8%), 소스류(7.1%), 기타조제농산물(6.3%), 면류(5.6%), 당류(5.5%), 과자류(4.8%), 주류(4.0%), 음료(4.0%), 전분(3.0%), 연초류(2.3%), 식물성액즙(2.1%), 잡사류(2.1%), 기타식물성물질(1.8%), 기타곡실류(1.6%), 식물성유지(1.3%), 버섯류(1.0%), 효모류(0.9%), 화훼류(0.8%), 한약재(농산물, 0.7%), 기타산식물(0.6%), 코코아류(0.5%), 커피류(0.5%), 유지가공품(0.4%), 인삼류(0.3%), 기타농산부산물(0.3%), 빵류제조용(0.2%), 차류(0.1%)
수출	당류(21.8), 면류(11.7), 과자류(11.6%), 커피류(9.3%), 기타조제농산물(8.8%), 소스류(6.5%), 화훼류(5.8%), 음료(5.2%), 주류(4.1%), 인삼류(3.0%), 연초류(2.9%), 식물성유지(2.5%), 버섯류(2.0%), 코코아류(1.1%), 식물성액즙(1.0%), 사료(0.7%), 유지가공품(0.5%), 지방성물질(0.3%), 식물성섬유(0.2%), 채유종실(0.2%) 등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5-18>은 2008/10년(3년 평균) 기타가공농산물 AG코드 34개 품목류 중 대중국 수출입액 순위가 높은 품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수입액 면에서 박류와 채유종실은 교역초기부터 지금까지 최대 수입품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박류의 세부품목별 수입액 비중을 보면 전분박 52.6%, 대두박 11.9%, 설탕박 10.7%, 채종·콜자씨박 8.5%, 양조박 8.2%, 면실유박 2.9%, 밀기울 2.8%, 옥수수박 2.0% 순이다. 이 중 전분박, 대두박, 설탕박, 채종·콜자씨박, 양조박은 AG코드 570개 실품목 중 2008/10년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 순위에서 3위, 21위, 23위, 26위, 28위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품목이다.

채유종실의 세부품목별 수입액 비중은 참깨 38.5%, 땅콩 31.3%, 들깨 22.7%, 기타채유종실 5.4%, 해바라기씨 1.2% 순이다. 이 중 참깨, 땅콩, 들깨는 AG코드 570개 실품목 중 2008/10년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 순위에서 8위, 14위, 19위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품목이다.

대중국 기타가공농산품류의 수입은 품목집중도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이다. 1992/94년~2008/10년 동안 CR₂는 55.1%에서 33.5%, CR₅는 82.0%에서 55.6%, CR₁₀은 93.3%에서 79.5%로 감소하였다. 이는 수입 가공농산품류의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타가공농산품류 34개 품목류 중 대표적인 대중국 수출품목은 당류와 면류, 과자류, 커피류, 기타조제농산물, 소스류, 화훼류, 음료, 주류, 인삼류, 연초류이다. 이들 11개 품목류의 비중은 90.6%에 달한다. 수입품목의 집중도가 약화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수출품목의 집중도도 약화되고 있다. 1997/99년~2008/10년 동안 CR₂는 50.9%에서 33.6%, CR₅는 72.6%에서 63.2%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CR₁₀은 86.6%에서 87.8%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위 10위 품목류들간 집중도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3.1. 식량작물

한·중 식량작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으로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AG코드 식량작물 26개 세부품목 중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유일하게 밀(밀가루, HS 1101.00.1000) 한 개 품목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 나타났지만 수출액이 미미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낮다. 특히 밀은 국내자급률(2009년)이 0.5%에 불과한 품목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하여 지속적으로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국내농업과의 관련성이 매우 적다. 결과적으로 한·중간 식량작물의 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식량작물은 쌀을 제외한 곡류, 두류의 자급률이 낮아 수입수요가 크다. 이들 곡류와 두류의 수입시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한·중 수교 이후 우리의 최대 수입품목인 옥수수의 수입에서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작물 수입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실제로 예전과 같이 중국산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중국으로부터 식량작물의 수입이 증가 혹은 감소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수급 상황 및 가격 변화 그리고 식량정책 및 농산물 수출입 정책 등 정책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식량은 교역상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식량감산과 세계식량위기를 경험한 상황에서 식량안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95% 식량자급률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하면 중국의 국내사정에 의해 얼마든지 교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시장여건이 교역에 유리하게 조성되더라도 중국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식량교역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여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근 급속히 위축된 한·중간 농산물교역이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설사 활성화되었다고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시장요인이든 정책요인이든 여러 요인에 의해 또다시 급격한 단절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2007년 중국이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곡물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최대 수입농산물 품목이었던 옥수수의 수입이 급감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이지만 연간 약 40여만 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최대의 수출시장이다(2009년 54.6%). 다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대두는 중국내 수요와 경합되는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또는 사료용인 아닌 기타 대두(HS 1201.00.9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인 보리는 중국의 최대 수입곡물 품목(2009년 174만 톤)이지만 수출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중국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수급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공급능력이 충분한 지역의 수출기업들이 수출가격만 적정하게 보장된다면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전국적인 수급 상황만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가능성을 자칫 간과하기 쉽다.

한·중 식량작물 교역의 품목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중국산 쌀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쌀 재협상 이후 수입된 MMA 물량 쌀 중 중국산이 2005연도분 14만 톤에서 2009연도분 17.2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추세에 비추어 2014년까지 의무수입물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중국산 수입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2015년 이후 쌀 수입이 관세화로 전환된 이후 중국산의 수입이 더욱 증대될 것인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나 중국산 중단립종 쌀

수입은 중국의 쌀 생산 및 시장가격 상승 그리고 높은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를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국내 곡물수급 안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쌀은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곡류보다는 두류와 서류의 수입 증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팥, 녹두, 강낭콩, 완두 등의 품목은 중국의 관리대상 식량이 아니어서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3.2. 채소류

한·중간 채소류 교역은 산업간무역으로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중 채소류 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중국 채소류 수입은 김치와 양념채소류의 비중이 높은 품목구조가 형성되었다. 앞으로도 한·중 채소류 교역은 우리나라의 김치와 양념채소류 위주의 수입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수입 품목이 다양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농산물 가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채소류 가공품의 수입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채소류 중 수입액 순위 1위, 2위를 차지하는 고추와 마늘은 국내 자급률이 48.5%와 76.8%로 매년 일정량의 수입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 특히 고추는 중장기 수급 전망에서 2021년도 자급률이 42.2%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수입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마늘은 2021년 자급률이 81.9%로 예측되어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여전히 수입 수요는 존재한다.²⁴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업전망2011(I)」 '제25장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중국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식량작물과 달리 양념채소류의 특성상 가격 및 내수와 수출 증가 등 수요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여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008/10년 우리나라의 중국산 고추와 마늘의 수입량은 중국 국내 생산량의 0.9%, 0.3%에 불과하여 중국 국내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수출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산 고추와 마늘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채소류 수입 품목 1위인 김치는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009년도 국내 김치 수급 상황에서는 전체 김치 생산량 중 자가생산과 상품김치의 비중이 각각 약 50%이고 상품김치의 약 11%(2009년 기준) 내외가 수입김치이다. 국내 배추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전체 공급량의 10% 이상 수입수요가 존재하고,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수입김치의 안전성이 개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채소류 수급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농업생산구조도 유사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채소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을 배추 수급 불안정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배추와 무에 각각 적용되는 수입관세 27%, 30%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중국으로부터 배추 100톤, 무 50톤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장철 배추 등 채소류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향후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채소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수입농산물 관세율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채소류 수입시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신선/냉장 형태보다는 반가공품 형태의 우회수입이 지속

적으로 선호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선농산물 수입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바꾸어 생각하면 관세가 낮아지는 경우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농업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한·중 FTA 체결을 가정하면 신선/냉장 형태의 관세율이 낮아지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신선/냉장 형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식품안전성은 양국간 채소류 수출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05년 한국산 및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사례와 같이 식품 안전사고는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역마찰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양국간 채소류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런 맥락에서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위생기준, 기술표준을 적용하는 등 SPS조치, TBT조치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경우 교역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식물검역 조치를 통해 주요 신선 과채류 품목의 상호간 수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채소류 교역의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양국은 모두 수출확대를 위해 특정 품목의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국내 검역당국의 과거 사례를 보면 수입허용 요청 국가와 대상 품목에 따라 통상 8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된다. 한국과 중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다른 나라의 여타 품목들도 평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국이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들에 대한 수입허가 결정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상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들에 대한 평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시차를 두고 한 품목씩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검역해제조치로 인해 중국산 과채류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양국의 동식물 검역조치는 교역확대를 제약하는 실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한두 품목씩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거쳐 수입이 허용된다면

신선채소류의 교역이 좀 더 확대될 것은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노동집약형 작물인 채소류는 중국의 대표적인 비교우위 농산물로서 최대의 수출품목류이다. 이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비용에 기초한 낮은 생산비 그리고 저생산비 구조를 토대로 한 가격경쟁력이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에서도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져 고용노동비용이 증가하고 토지용역비 등 기타 투입재가격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농작물 생산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는 수출농산물의 수출단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채소류의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토대로 수출을 확대해왔던 전통적인 수출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과실류

한·중 과실류 교역은 산업간무역으로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AG코드 채소류 39개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장 특화품목은 오렌지, 감귤, 유자, 과실혼합물, 단일과실조제품 등 5개 품목에 불과하다. 식량작물과 채소류가 1개, 3개였던 데 비해 과실류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실적이 있는 21개 품목 가운데 산업내무역 품목은 한 품목도 없다. 결과적으로 한·중 과실류 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08/10년 한·중간 과실류 교역규모는 1997/99년에 비해 4배 증가하였다. 채소류가 동기간 6.3배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은 낮지만 식량작물, 축산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중간 과실류 교역은 신선과일의 수출입이 금지되어 모두 과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이 수출입되는 특징이 있다. 향후 양국

의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과일조제품의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신선과실류가 양국의 식물검역조치로 수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양국 모두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간 수입금지 농산물의 수입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앞서 과채류의 경우와 같이 장기적으로 품목별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거쳐 수입이 단계적으로 허용되면 신선과실류의 교역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양벚(2003년), 여지, 용안, 사과, 배(이상 2004년)에 대해 우리나라에 수입금지 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양벚은 수입식물병해충 위험분석 8단계를 완료하여 5년 만인 2008년에 수입 허용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감(2008년), 포도, 감귤(이상 2009년)을 대상으로 중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3.4. 축산물

한·중 축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으로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AG코드 채소류 114개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장 특화품목은 14개 품목에 불과하다. 그리고 양국간 교역실적이 있는 68개 품목 가운데 산업내무역 품목은 돼지고기 한 품목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한·중 축산물 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 달리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낙농품 12개 세부품목 중 우리나라는 생우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치즈, 발효유, 조제분유, 우유조제품 등 8개 품목, 중국은 유당, 버터, 유장 등 3개 품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축산물 수출의 주력 품목으로서 최근 멜라민 분유 사건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로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낙농품을 신뢰하지 않고 외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중국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간 축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의 요인은 양국의 동물검역조치이다. 양국은 모두 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대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함으로써 동물검역조치의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열처리 가금육의 수입허용을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축산물 수입위험평가 8단계 중 6단계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5개월 만에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이며 수입위험평가 5단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식물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국 모두 동물검역이 일시에 해제되어 교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양국 모두 상대국에 지속적으로 동물검역조치의 해제를 요청하고 장기에 걸쳐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완료하면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을 대체하여 양국간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동식물 유병의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여 ‘가축전염병 무발생지역 시범구’ 설치 등을 통해 무역상대국과의 검역협정 및 FTA 협상시 지역화 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전체를 구제역 상시 발생지역으로 간주하여 신선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검역당국은 우리나라 검역당국에 지역적으로 병해충 또는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생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한중 FTA에서도 지역화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육돈과 육계의 한·중 생산비 격차가 다른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계는 한국의 생산비가 중국의 82% 수준으로 격차가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축산부문의 생산비 증가는 노동비용과 토지용역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중국 축산물의 수출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5. 기타 가공농산물²⁵

한·중 기타 가공농산물(AG코드 343개) 교역은 산업간무역의 비중이 73.5%로 높지만 식량작물,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에 비해 산업내무역의 비중도 9.3%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국시장 특화품목이 68개에 달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이 다른 작물에 비해 압도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기타가공농산물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교역초기 2.8%에서 최근 31.2%까지 증가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한·중 기타가공농산물 교역은 다른 품목에 비해 산업내무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한 수입 및 수출 품목의 집중도가 약화되는 추세에서 보듯 수출입 품목의 수와 품목별 교역액 규모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의 국내수급상황과 식량안보, 그리고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의 경우 양국의 동식물검역조치가 실질적으로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기타가공농산품류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양국간 기술 격차가 존재하여 교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5 AG코드 570개 농축산물 중 축산물 114개, 식량작물 26개, 채소류 48개, 과일류 39개를 제외한 202개 품목

1. 요약

□ 중국 농업의 성장과 위상 변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는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중국 농업은 1980년대 중반에 생산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이 되었지만, 고용 비중은 아직도 가장 높은 산업으로 남아 있어 고용구조의 비전형화(非典型化) 현상이 존재한다. 중국을 6대 농업지역으로 구분해서 보아도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6대 농업지역에서 모두 경제성장의 일반법칙이 관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생산구조의 변화와 고용구조의 변화간에 상당한 시간격차가 존재하는 고용구조의 비전형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6대 농업지역 가운데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전국 GDP 점유율 31.8%) 장강중하류지역은 고용구조상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변환점이 나타났다. 또한 중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광동성이 위치한 남부연해지역도 변환점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농업지역 가운데 중국의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부상한 동북3성은 고용구조상 1990년대 후반 이후 농림어업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고용구조의 비전형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중국 농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도별 변동이 심했지만 이후 안정된 성장 추세를 나타냈다. 중국 농업의 TFP 성장은 기술진보(연평균 4.0%)와 기술효율성 하락(-1.5%) 현상이 병존하여 기술진보에 대한 의존이 뚜렷한 기술유발형 성장 특성을 지닌다. 이는 기술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 총요소생산성의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개혁개방 이후 농업생산요소의 투입 및 산출에서 위상이 크게 제고된 황하중하류지역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남부연해(3.3%), 동북3성(2.6%), 장강중하류(2.6%)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대표하는 농업지역이던 장강중하류는 농업산출의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연지리 및 사회경제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서북·청장고원(1.8%)과 서남내륙지역(-0.5%)의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서남내륙지역은 부(負)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Yamada & Ruttan(1980), Hayami & Ruttan(1985) 그리고 Yamada(1987)의 농업성장경로를 참고하여 중국 농업의 성장경로 파악하였다. 중국 농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토지/노동 비율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토지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단계로 전환하였고, 이 시기에 ‘Yamada의 아시아형 농업성장경로’상 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은 토지생산성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노동 비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토지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지면적당 비료와 농약 투입 비율도 모두 증가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단위면적당 투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6대 농업지역 모두 1980년대까지는 토지생산성 향상이 농업성장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가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1980, 90년대에는 지역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컸으나 2000년대

들어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토지/노동 비율 곡선이 1990년대 초를 전후로 ‘V’자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 노동력의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이 중국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중국 농업이 아시아의 ‘S’자형 성장경로를 따라 2단계에서 3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변화 요인

중국의 토지(재배면적) 투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고, 노동 투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 농업에서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농업기술도 점차 노동절약적인 기술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농업기술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화학비료 증투, 농약 사용 등 생물화학적(Bio-Chemical) 기술의 발전에 크게 의존했다면,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노동 투입의 감소 추세가 현저한 가운데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농업의 경상재 및 자본재 투입은 개혁개방 이후 단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지역별 농업생산요소 투입과 산출은 자연지리 및 사회경제조건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장강중하류와 황하중하류지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개혁개방 이후 장강중하류지역의 위상이 하락하고 황하중하류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황하중하류와 함께 동북3성과 서북·칭장고원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중국 농업의 투입과 산출에서 남부지역의 위상이 점차 감소하는 대신 북서부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이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업지역 최적 배치전략을 추진한 결과로써 그동안 농업생산의 비교열위지역이었던 북서부지역이 자연지리조건을 활용하여 식량생산기지, 목축업기지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1970년 이후 40년 동안 중국의 농림어업부가가치는 연평균 4.05% 성장하였다. 개혁개방 초기인 1981~85년 동안 8.6%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나

타낸 후 점차 성장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3.0~4.5%의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농업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71.3%에서 2009년 58.2%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 농업이 현대적 투입요소의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는 고비용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남내륙 62.0%, 남부연해 60.6%, 장강중하류 60.1%, 서북·청장고원 59.5% 수준이다. 동북3성과 황하중하류지역의 농업은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농업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52.0%, 56.1%로 낮다.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산출 성장을 비교하기 위해 농업총생산액(1990년 불변가격) 지표를 사용하여 1980~2009년 동안의 성장 추이를 살펴보았다. 서북·청장고원, 동북3성, 황하중하류, 남부연해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6.7%, 6.6%, 6.4%, 6.1%로 서남내륙, 장강중하류지역의 5.3%, 4.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재배업지대인 장강중하류지역의 성장률이 가장 낮고 대표적인 목축업지역인 서북·청장고원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은 농업총생산액의 구성에서 재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의 전체 농업총생산액(2009년)에서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3%, 25.5%이다. 개혁개방 초기에 비해 중국 최대 농업지역이었던 장강중하류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고 황하중하류지역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지역도 개혁개방 초기에 비해 전체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농업부문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생산구조는 재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재배업은 토지집약적인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집약적인 원예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우리나라의 농업구조 변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양국간 농업구조가 상호보완관계보다는 경쟁관계가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대 농업지역에서도 이러한 변화 추세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지만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부상한 동북3성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식량작물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이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95%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동북3성은 식량산업 특화지역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재배업 작부체계에서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작물의 비중이 60% 이상(남부연해지역은 2009년 44%)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도 동북아지역 재배업 작부구조의 특성이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식량작물의 비중 감소 추세가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증산정책으로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과정에서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농촌의 농업 생산·경영제도로 정착한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중국의 농업경영구조가 집단경영시스템에서 농가경영시스템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토지소유제도 측면에서 보면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확립된 집단토지소유제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사용제도 측면에서는 개별농가가 농업 생산과 경영의 기본단위로서 토지사용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중국의 현행 농가경영시스템은 바로 토지사용권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의 농가경영시스템은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경영권)이 일체화된 자본주의의 농가경영시스템과는 구별되며,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토지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른바 ‘쌍층경영시스템(雙層經營體制)’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농가경영시스템은 토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산권인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이 분리되어 있어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경제의 진전으로 영세소농구조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농업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도입에 이은 제2차 농업경영시스템의 개혁이

라는 중요한 의미도 부여되고 있다. 중국의 ‘농업산업화’는 시장화·구역화(단지화)·전업화·규모화·통합화·기업화를 특징으로 하며, 분화된 생산·가공·유통과정을 통합하는 생산계열화가 핵심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산물 가격 변화는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다. 농산물 가격은 식량작물에 비해 채소류, 축산물, 유지작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들 품목의 재배면적(사육두수) 확대에 기여하였다. 작물의 재배 수익성에서도 채소류와 과일류는 단위면적당 수익이 다른 작물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재배면적 확대를 유인하였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 소비 패턴도 소득탄력성이 작은 곡류의 소비가 감소하고 육류와 채소, 과일 등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였다. 채소, 과일,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들 품목의 생산 증대를 촉진하여 작부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단일한 농업생산구조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여 식량작물과 경제작물(특용작물)의 동시 발전, 재배업·임업·축산업·어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였다. 농업성장 단계별로 추진된 농업구조조정정책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본격 추진된 ‘채람자공정’은 채소류, 과일류의 생산 증대를 촉진하였고,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량증산정책은 감소 추세에 있던 식량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증가 추세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농산물 교역구조

무역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요소부존도는 생산구조에 반영되고, 다시 생산구조의 차이가 무역패턴의 차이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농업생산구조는 농산물 교역구조(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생산구조는 소득탄성치(수요측 요인)와 수익성(공급측 요인)이 낮은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득탄력적이고 수익성이 높아 비교우위가 있는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경제작물)의 재배

면적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농업총생산액에서 곡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한 반면, 돼지, 가금류 등 축산물과 채소류 생산액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입 농산물 품목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변화된 농업생산구조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HS 03류(어패류)를 제외한 HS 01류~24류 품목군 중 최대의 수출 품목군은 HS 07류(채소)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WTO 가입 이전 13.6%에서 2010년 19.3%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 HS 16류(육·어류조제품)를 제치고 최대 수출품목군으로 부상하였다.

채소류의 수출 증대와 함께 HS 08류(과실·견과류)의 수출액도 2001년 4.4억 달러에서 2010년 26.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HS 08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4%로 전체 23개 품목군 중 10위였으나 2010년에는 6.9%로 4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HS 20류(채소·과실 조제품)도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농식품으로서 2001년 이후 수출액 순위 3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액 비중은 같은 기간 11.6%에서 14.3%로 증가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HS 10류(곡물)와 HS 02류(육과 식용설육)의 수출액 비중 감소 추세이다. 이 중 HS 10류는 2001년 수출액이 10.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4위를 차지했던 대표적인 수출품목군이었다. HS 10류의 수출은 2007년까지 연도별 수출액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 수출액이 감소하여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4%에서 2010년 1.4%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 세계곡물위기 상황에서 2007년 말 중국 정부가 곡물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몇 개 연도를 제외하고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였지만 이후 곡물 순수출국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연도별 곡물 순수출량의 변동이 심하긴 했지만 2004년을 제외하고는 곡물 순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식량작물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세를 반영하

여 중국의 곡물 수출은 2007년 이후 순수출량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은 농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축산업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소비자들의 소득향상에 따른 축산물 소비의 증가로 수출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수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식문화의 영향으로 식용유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04년까지 다른 식량작물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두의 순수출국이었으나 1996년 이후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매년 총소비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수입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3년 이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였다. 2009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은 무려 2.84배에 달한다.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곡류의 비중이 감소하고, 채소류 및 기타가공농산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수입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2007년(23.5%)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곡물수출 제한조치로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옥수수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점유율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채소류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며(2010년 73.9%), 주요 양념채소류인 고추, 마늘, 양파, 파는 중국산 의존도가 모두 95% 이상이다. 대중국 수입 채소류의 형태는 커다란 관세율 격차로 인해 신선/냉장 형태보다 냉동/조제처리 등 단순가공을 거친 반가공품 형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중국은 2009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2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원료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한 가공식품류로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매우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및 전망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곡류의 비중이 감소하고, 채소류 및 기타가공농산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수입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2007년(23.5%)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곡물수출 제한조치로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옥수수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점유율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채소류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며(2010년 73.9%), 주요 양념채소류인 고추, 마늘, 양파, 파는 중국산 의존도가 모두 95% 이상이다. 대중국 수입 채소류의 형태는 커다란 관세율 격차로 인해 신선/냉장 형태보다 냉동/조제처리 등 단순가공을 거친 반가공품 형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중국은 2009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2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원료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한 가공식품류로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매우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품목류별로 살펴보면 한·중 식량작물 교역은 산업내무역 품목이 없는 산업간무역으로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류와 두류의 자급률이 매우 낮아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가 매우 크다.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부족한 곡물(특히 가공용·사료용 옥수수)의 수입을 중국에 크게 의존했으나 2007년 말 중국이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실시한 이후 급감한 상태이다. 곡물의 대중국 수입이 감소한 대신 두류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중국 식량작물 수입은 옥수수의 비중이 급감하고 쌀과 대두 두 품목의 집중도가 약 75%에 달하는 품목구조를 형성하였다.

쌀은 2014년까지 MMA 물량 쌀의 증가와 연동하여 중국산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두도 중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채유용·탈지대두박용 또는 사료용이 아닌 기타 용도(주로 콩나물콩용)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수입 확대에 커다란 제약요인은 없다. 우리나라의 식량작물 수입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예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인

지의 여부는 옥수수의 수입량에 달려 있다.

한·중 채소류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채소류 수입은 품목 수와 수입액 규모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중국 채소류 수입은 김치와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비중이 높은 품목구조를 형성하였다. 김치, 고추, 마늘은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위, 5위, 7위에 해당하는 대표적 수입 품목이다. 김치는 연간 공급량의 10% 이상 수입수요가 존재하고, 국내 자급률이 낮은 고추(48.5%)와 마늘(76.8%)도 매년 수입수요가 존재하여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수입이 유지 및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한·중 채소류 교역은 김치와 양념채소류 위주의 수입 품목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채소류 가공품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채소류 수급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농업생산구조도 유사한 중국으로부터 채소류 수입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반면 식품안전성은 양국간 채소류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하지 못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양국간 채소류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이 SPS조치, TBT조치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경우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한·중 양국은 식물검역 조치를 통해 대부분 신선 과채류 품목의 상호간 수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채소류 교역의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양자간 검역 협상의 관례상 수입허가 결정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단기간에 중국산 과채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과실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로 미미하다. 한·중 과실류 교역은 산업내무역 품목이 없는 산업간무역으로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식량작물, 채소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이 많

아 대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중 과실류 교역은 품목 수와 금액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양국이 식물검역조치로 신선과일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교역품목의 대부분은 HS 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에 속하는 과일을 원료로 한 조제품이다. 향후 양국의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과 함께 과일조제품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채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단기적으로 검역해제 조치로 인해 중국산 과일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축산물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이다. 축산물도 양국이 동물검역조치로 상호간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역액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한·중 축산물 교역은 산업내무역 품목이 1개에 불과한 산업간무역으로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강한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품목이다. 과실류와 마찬가지로 대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낙농품은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이다. 최근 멜라민 분유 사건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로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낙농품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여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크다.

대중국 축산물 수입품목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육류, 그 중에서도 열처리 가금육으로 중국이 2005년 수입허용을 요청하여 수입결정이 완료된 품목이다. 우리나라도 2006년 중국에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이며, 모든 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수입금지가 해제되면 대중국 열처리 가금육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동식물 유행의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통해 양자간 검역협정 및 FTA 협상시 지역화 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중 축산물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중국 검역당국이 우리나라 검역당국에 지역적으로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생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신선육류가 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중간 농산물 교역에서 기타가공농산물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역 초기 약 30%에서 최근 약 60%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중 기타가공농산

품 교역은 산업간무역 품목의 비중이 높지만 산업내무역 품목의 비중도 약 10%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장 특화품목도 상당수(68개)에 달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이 다른 작물에 비해 압도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기타가공농산물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도 약 31%로 증가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중 기타가공농산물 교역은 다른 품목에 비해 산업내무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한 수입 및 수출 품목의 집중도가 약화되는 추세에서 보듯 수출입 품목의 수와 품목별 교역액 규모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의 국내수급상황과 식량안보, 그리고 과채류, 과실류, 축산물의 경우 양국의 동식물검역조치가 실질적으로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기타가공농산물은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양국간 기술 격차를 토대로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교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 결론

한·중 농산물 교역은 산업내무역이 가능한 품목이 가공농산물 중 일부 품목에 불과하여 산업간무역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중국 농산물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출특화가 뚜렷한 일방무역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향후 한·중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외부환경의 변화(DDA, FTA 등)로 수입농산물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행 농산물 수입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 형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식량작물의 교역액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채소류와 가공농산품의 교역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가공농산품류와 채소류 위주의 품목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교역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과일류와 축산물은 양국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동식물 검역조치가 단기간에 해제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을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패턴을 보면 중국 농업이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으로 변화하여 향후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수출 농산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농업노동임금과 토지용역비의 가파른 상승 추세가 관찰되고 있는데 향후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산품이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면 한·중 농산물 교역은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과 식품안전성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연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경우 농업구조의 변화패턴이 선진국이 경험한 표준패턴과 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경제사회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일반법칙이 예외 없이 관철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 구조변화의 방향을 잘못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셋째, 중국 농업은 우리나라 농업과 비교하여 요소생산성의 변화와 요소대체관계 그리고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방향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양국 농업은 자원부존 조건과 성장단계상의 차이로 인해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한·중 농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압도적이고 보완

구조의 형성도 어렵다. 중국의 비교우위에 의한 일방무역구조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농업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양국의 농업성장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원료 및 기초 농산물 또는 노동 및 토지집약형 농식품 수출에 특화하고, 우리나라는 가공농식품이나 기술 및 자본집약형 농식품 수출에 특화하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승호 외. 2005.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 미·일·중과의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Vol.6, No.0: 3-22. 한중사회과학연구.
- 고재모 외. 2006. “동북아 각국의 농산물 교역과 경쟁력 비교 연구” 「농업경영정책 연구」 Vol.33, No.4: 848-868. 한국축산경영학회, 농업정책학회(구 한국축산경영학회).
- 김경필 외. 2006. 「과실 수급 과급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P.1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민 외. 2004. “SPS 협정문 위협평가의 경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 「농업경영정책 연구」 Vol.31, No.1: 72-88. 한국축산경영학회, 농업정책학회(구 한국축산경영학회)
- 김명환 외. 2007.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1/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환 외. 2008.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2/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승규. 2009.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대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식. 2007. 「한·중 FTA 대비 중국 과수산업의 실태 및 대 한국 수출가능성 분석」. C2007-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자삼. 2007.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교역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외. 2004. “중국의 쌀 생산비 동향” 「농촌경제」 27(1): 75-9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지현. 2010. 「한국과 중국의 대미 수출경쟁력 및 보완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길 외. 2009. 「최근 국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제58권.
- 김태윤. 2010. “중국과 일본의 농수산물 비관세장벽 분석” 제3차 DDA/FTA 농수협상 포럼 발표자료.
- 김한호 외. 2009.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국 과실류의 교역형태 분석” 「농촌경제」 제32권 제3호: 47-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노채영 외. 2008. “친환경농식품의 구매행태 및 중국진출 가능성 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16권 3호: 259-274.
- 농수산물유통공사. 2010. 「중국 수입제도 및 수출 애로사항 조사」.
- 농촌진흥청 편. 2008. 「과수산업의 한·중 산업내무역 활성화 방안연구」(연구기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박영실. 2007.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농업의 변화와 과제」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 박주근 외. 2009. “WTO 위생검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위험평가 및 규제채택 절차의 해석과 적용” 「국제통상연구」 제14권 제1호: 125-149. 한국국제통상학회.
- 박평식 외. 2004. “중국의 쌀산업 동향과 전망”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16(1): 1-12.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 배기형 외. 2010.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산물교역의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Vol.12, No.3: 167-195. 한국통상정보학회.
- 한은수 외. 2010. “한중일 농산물 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Vol.35, No.1: 305-334. 한국무역학회.
- 어명근 외. 2009. 「한·중 FTA 협상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 C200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8.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와 산업내 무역 가능성 분석” 「농촌경제」 제31권 제3호: 15-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8a.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농산물 양허전략 연구」. C200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8b.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과 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03-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7.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방안」. R5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6.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2/2차 년도)」. R5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5.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1/2차 년도)」. R5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3.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R4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용석. 200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중국 농산물교역 환경의 변화와 대응”

- 「중국연구」 Vol.20, No.0: 105-132.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 유승록 외. 2007. “한·중 칠강교역구조 변화와 한·중 FTA 과급 영향 분석-교역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2007, No.2: 247-266.
- 윤형효. 2010. 「한·중 농산물교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중국통상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수행 외. 2002. “중국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농촌경제」 제25권 제1호(2002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선. 2004. “중국의 과채류 수급 실태와 한·중 교역 전망” 「식품유통연구」 Vol.21, No.2: 93-112. 한국식품유통학회.
- 이인규 외. 2005. “주요국의 쌀 생산비 및 산출방법 비교분석” 「韓國國際農誌」 Vol.17, No.4: 216-224.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 이일영. 2007. 「중국 농업, 동아시아로의 압축」 서울: 폴리테이아.
- 이장규 외. 2011. 「중국의 농식품분야 비관세장벽 실태분석」, KIEP(KREI 위탁연구)
- 이재득. 2008.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구조 비교” 「동북아경제연구」 Vol.20, No.1: 149-184.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이창수 외. 2005.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형진. 2011.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제도와 우리의 수출확대 방안” 「농업전망 2011(I)」 E04-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외. 2008. 「중국농업동향」(2008년 봄호)
- 전형진 외. 2009. 「중국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 P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외. 2008. 「중국의 주요 농산물 주산지 변동에 관한 연구」 R5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외. 2004. 「중국의 중단립종 쌀 생산·수출 잠재력」. 정책연구보고 P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외. 2003a.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농업정책 동향” 「韓中社會科學研究」 제1권 제2호(통권 2호): 219-240. 한중사회과학학회.
- 정정길 외. 2003b.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R4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재완 외. 2008.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연구자료 08-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환우. 2010. “중국의 비관세 수입장벽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광호. 2001. “중국의 양돈산업과 교역 전망에 관한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Vol.28, No.3: 556-577. 한국축산경영학회, 농업정책학회(구 한국축산경영학회).
- 주유진. 2009. 「중국의 농업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개혁개방시기(1978~1984)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만수. 2008.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KIEP 세미나자료.
- 최봉호. 2005.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교역패턴 및 지역경제통합체의 효과 분석;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산업경제연구』 Vol.18, No.3: 1035-1052. 한국산업경제학회.
- 최세균. 2005.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중사회과학연구』 Vol.5, No.0: 83-110. 한중사회과학학회.
- 최세균 외. 2003. 「동식물검역 효율화 방안 및 WTO/SPS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농림부.
- 최세균 외. 2002.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C2002-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의현. 2009. “한중교역 증가의 원인에 대한 분석-특화의 심화인가, 다양성의 확대인가” 『동북아경제연구』 Vol.21, No.1: 39-66.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한석호 외. 2010.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0 운용·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석호 외. 2010. 「세계농업전망모형 Aglink-Cosimo 2010 운용·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석호 외. 2010. 「농촌·농가인구모형 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홍호 외. 2009. “한중 FTA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 『경영사학』 Vol.52, No.0: 251-271. 한국경영사학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업전망2011(I)」 ‘제25장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농림수산식품부. 「2010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자료집」 각 연도.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 연도.

- Chang-Tai Hsieh and Ralph Ossa. 2011. "A Global View of Productivity Growth in China," NBER Working Paper No. 16778
- Gale, F. 2002. China's Food and Agriculture: Issues for the 21st Century, Agricultural Information Bulletin No.(AIB775).
- Gale, F. 2002. "China Corn Exports: Business as Usual, Despite WTO Entry." FDS-1202-01, USDA/ERS.
- Gale, F. 2004. "Is China's Corn Market at a Turning Point?." FDS-04C-01, USDA/ERS.
- Global Insight's World Overview 2010. 2010. IHS Global Insight.
-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1. 2010.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 Lohmar, B. 2004. "China's Wheat Economy: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for Imports", USDA/ERS, WHS-04-D01.
- Razeen Sally. 2011. "Chinese Trade Policy After (almost) Ten years in The WTO: A Post-Crisis Stocktake," ECIPE Occasional Paper No. 2/2011
- Tso, T.C. and H. Kang. 2004. Vision of 2050 Agriculture in China.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Press.
- Tuan, F. C., C. Fang, and Z. Cao. 2004. "China's Soybean Imports Expected To Grow Despite Short-Term Disruptions." Outlook OCS-04J-01, USDA/ERS.
- USTR. 2010.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2011. U.S. and World Agricultural Outlook. 2010.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Institute (FAPRI)
- WTO. World Tariff Profiles 2010(<http://www.wto.org>)
- 李滋睿. 2010. 我國重大動物疫病區划研究. 博士畢業論文.
- 黃紹明·周秋平. 海南无規定動物疫病區建設經驗. 獸醫導刊. 2010年 第4期總第152期, 4-6.
- 余勇·王勤·陳斌·谷曉婧. 2007. 深化无規定動物疫病區建設, 全面提升動物疫病防控水平, 四川畜牧獸醫, 2007(09): 10-12.
- 張衍海·蔣正軍·劉俊輝·孫淑芳·範欽磊·鄭增忍. 中國動物疫病區域化管理進展, 獸醫導刊, 2009(8): pp4~8.
- 韓俊. 2011. "近年來我國農業人工成本變動特點分析及建議" 「農村金融研究」 March 2011: 4-5

-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農業部. 「2010中國農村統計年鑒」
農業部. 「2010中國農業年鑒」
農業部. 「2010中國農業發展報告」
國家發展改革委員會價格司編.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匯編」 각 연도.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國家統計局編. 「2010中國統計年鑒」
國家統計局. 「2010中國農村統計年鑒」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2010中國統計年鑒」
國家糧食局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谷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18期(2009.11.11),
第141期(2011.10.12)
國家糧食局 國家糧油信息中心. 「飼用谷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41期(2011.10.12)
國家糧食局 國家糧油信息中心. 「油脂油料市場供需狀況月報」 第139期(2011.10.12)
中國糧食發展報告編輯委員會. 「2010中國糧食發展報告」
中國海關總署編. 「中國海關統計年鑒」 각 연도.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http://www.fta.go.kr>
WTO, 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http://www.wto.org/>)
국립수의과학검역원<<http://www.nvrqs.go.kr>>
농림수산물식품부<<http://www.mifaff.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정보(<http://www.kati.net>)
무역협회<<http://www.kita.net>>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연구보고 R649-2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1.

발 행 2011. 11.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전화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ISBN 978-89-6013-282-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